EPIC을 통한 여성 리더십 연구
: 동•중앙아프리카여성 크리스천을 중심으로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조병호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레너드 스윗 철학박사

김은례

드루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25년 5월

Copyright © 2025 Eun Rye Kim

All rights reserved.

ABSTRACT

WOMEN'S LEADERSHIP THROUGH EPIC
: A STUDY OF EAST AND CENTRAL AFRICAN WOMEN CHRISTIANS

Eun Rye Kim

Love World, Kampala,, Uganda, East-Central Africa

Education is essential for achieving freedom, peace, and social justice. Women's education is a key tool for empowerment, overcoming barriers, and reducing poverty, oppression, and discrimination in East and Central Africa. It plays a crucial role in establishing gender equality and improving women's social status. Women in these regions face economic disadvantages and societal prejudices, limiting their leadership opportunities.

This study aims to highlight the potential of East/Central African women, enabling them to lead in society. Women's leadership, currently explored through women's ministry, helps them tackle challenges and expand their roles. Based on the EPIC theory, this research examines leadership formation through experience, participation, and imagination, connecting family, local, school, church, and social communities. It also fosters solidarity with women globally.

The study focuses on female pastors, educators, tribal women, and young leaders like Maasai, Pygmy women, and MZ generation students. Leadership training includes

theological education, spiritual practices, and community engagement, particularly through the 2024 conference. Interest in spirituality and education is growing, and ongoing evaluation is needed. This study seeks to create spiritual ripple effects, fostering women's empowerment and advancing the 'Ecclesia Movement.' Future efforts will focus on continuous leadership training and development.

국문초록

EPIC을 통한 여성 리더십 연구
: 동•중앙아프리카 여성 크리스천을 중심으로

김 은 례

러브 월드, 캄팔라 우간다, 동-중앙 아프리카

교육은 자유, 평화,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이며, 여성 교육은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 장벽을 극복하는 핵심 도구다. 특히 동·중앙아프리카에서 여성 교육은 빈곤, 억압, 차별을 줄이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며 성평등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 지역 여성들은 경제적 불이익과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지도자로 성장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연구는 동·중앙아프리카 여성들의 잠재력을 조명해 그들이 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여성 사역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는 여성 리더십은 여성들이 도전에 대응하고 역할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한다. 연구는 EPIC 이론(경험, 참여, 상상 이미지의 상호작용)에 기반해 리더십 형성을 탐구하며, 가정, 지역사회, 학교, 교회 및 사회 공동체를 연결하고 전 세계 여성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연구대상은 여성목회자, 교육자, 부족여성(마사이 및 피그미여성 포함), 그리고 차세대 여성리더인 MZ 세대유학생들이다. 리더십교육은 신학교육, 영적훈련, 공동체 참여를 포함하며, 특히 2024년 컨퍼런스를 중심으로 실천적 사례를 연구했다.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들의 영성과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지속적인 평가와 활성화가 필요하다. 연구는 여성들의 회복과 부흥을 돕고, '에클레시아운동'을 통해 희망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여성리더십을 확립하는데 기여 할 것이다. 앞으로도 여성리더십 개발을 위한 영적 훈련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목차

감사의 글.....ix

I. **서론**.....1

A. 문제 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1

B. 연구의 목적 4

C. 연구의 방법과 범위..... 8

II. **동·중앙아프리카 여성의 이해**.....11

A. 아프리카 여성신학의 태동.....14

B. 동·중앙아프리카 여성들이 직면한 문제점.....18

III. **EPIC 이론의 정의와 이해**.....23

A. 경험(Experience) 27

B. 참여(Participation).....31

C. 이미지(Image).....35

D. 연결(Connection).....39

IV. **동·중앙아프리카 여성 리더십을 위한 영성 형성연구사례** 44

A. 교육연수를 통한 여성 교육지도자 리더십 형성 47

B. “여성 지도자 키우기” MZ 세대 여성 유학생 62

C. 교육계 및 공동농장 여성 지도자 리더십 연구 실천 85

D. 마사이 여성 리더십 영성 형성 104

E. 피그미 공동체 여성 리더십 형성 110

F. 동·중아프리카 3 개국 여성 목회자 교육지도자 컨퍼런스 116

V. **사례에 따른 EPIC 이론 적용** 256

A. E “경험” 적용 259

B. P “참여” 적용 263

C. I “이미지” 적용 266

D. C “연결” 적용 270

VI. **결론 및 제언** 274

참고문헌 284

감사의 글

수십 년 전 동/중앙 아프리카 땅에서 마주친 여성들이 눈빛은 고단했고 척박한 땅 위를 걷고 있는 모습이 매우 추워보였습니다. 이는 나의 삶의 목적과 가치를 깊이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 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위임소명을 함께 하기 위해 동/중앙 아프리카의 여성들의 손을 덥석 잡게 되었습니다.

녹록치 않은 아프리카의 선교 환경과 팬더믹의 영향은 선교사의 길을 계속 가야 하는지를 갈등하게 되었을 즈음, 드루대학교 목회학 박사과정은 하나님의 신비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이 과정은 선교 사역에 대한 성찰의 기회와 하나님이 행하실 기대와 새로운 비전을 품게 되는 제 2의 사명의 길이자 그에 따른 선교전략의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신비와 영성으로 열린 미래와 넓은 지평을 열어주신 레너드 스윗 교수님과 지성의 장을 넘어 새로운 성경적 세계관을 갖게 해 주신 조병호 교수님, 진취적인 지도력과 영성으로 잠재력을 이끌어 내어 사명을 세워주며 사랑과 격려로 지도해 주신 김영래 교수님께 진심을 다해 감사 드립니다.

드루대학교 박사 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주고 긴 세월 아프리카 여성 사역을 동역해 준 나의 동역자이자 동생 김교수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기쁨을 나누기 전 지난 부활절 새벽 하나님 나라로 떠난 당신이 그립습니다.

한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동/중앙 아프리카 5개국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하여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현지 디렉터와 스텝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동/중앙 아프리카의 어려운 사회 환경속에서도 희생과 헌신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

는 여성리더들과 창조적 세계관으로 다음세대들의 미래를 열어 가고 있는 MZ세대 여성 지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팬데믹으로 수 년간 중단됐던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 컨퍼런스를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동역해 주신 12명의 한국과 미국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목회학 박사 논문을 연구할 수 있도록 묵묵히 기도와 사랑으로 지지해 준 사랑하는 남편 선교사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를 아프리카에 내어주고 타국 땅 독일에서 학업을 감당하고 있는 자녀 혜빈, 한빈에게 감사합니다. 이 논문이 탄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2025년 5월

김 은 례

Ⅰ. 서론

A. 문제 제기와 연구의 필요성

아프리카 속담 중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이 속담은 양육이 단순히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함께하는 과정임을 강조한다. 동시에 이는 아프리카 사회를 미개하다고 여기는 편견을 반박하며, 공동체 중심적 가치관이 강하게 내재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25년 전, 연구자는 1892년 미국인 여성 선교사 존스(G.H. Jones)가 설립한 기독교 초등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로 활동하였다. 이 학교는 조선에서 여성 선교사가 설립한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으로, ‘선교’와 ‘여성 계몽’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었다. 존스 선교사는 단 한 명의 여자 아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작하였고, 그녀의 가르침을 받은 최초의 졸업생은 이후 미국인 여성 선교사 스크랜톤이 설립한 E여대의 초대 총장이 되었다.

2003년, 연구자는 존스 선교사의 ‘선교’와 ‘여성 계몽’이라는 교육적 비전을 이어받아 동·중앙아프리카 5개국(우간다, 탄자니아, 르완다, 케냐,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선교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는 기독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여성들의 정체성 회복과 리더십 형성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 사역이었다.

우간다 엔테베 공항에 도착했을 때, 연구자는 차창 밖으로 돌밭 위를 맨발로 걷는 여성들의 모습을 목격하였다. 여성들은 아이를 안거나 업고, 옆구리에 끼거나 머리에 짐을 이고 있었다. 넓은 들판에서 농사짓는 이들 역시 대부분 여성들이었

다. 이러한 모습은 동·중앙아프리카 사회에서 여성들이 주요한 노동력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권리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연구자가 처음 선교 활동을 시작한 곳은 콩고 국경 지역의 우간다 K난민촌이었다. 이곳은 전쟁으로 인해 집과 학교, 고아원, 난민 수용소만이 남아 있는 폐허 상태였다. 아이를 안고 있는 여성들의 눈빛에서는 삶에 대한 희망을 찾기 어려웠으며, 전염병과 에이즈가 창궐했지만 이를 막을 의료 시스템조차 부재한 상황이었다. 연구자가 속한 여성 선교팀은 무너진 학교 바닥에 천막을 세우고 임시 진료소를 운영하며, 여성들의 영성 교육과 보건·위생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난민촌의 여성들은 극심한 절망 속에서도 변화의 가능성을 품어야 했다. 여성들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야만 가정과 사회, 나아가 미래에 희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K지역 난민촌 여성 국회의원 J는 “여성이 살아야 삶이 회복되고 아이들의 미래도 존재할 수 있다”며 여성 정체성 회복과 리더십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대를 간곡히 요청하였다. 이는 여성의 기본권 보장뿐만 아니라, 사회적·정치적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였다.

르완다는 오랫동안 부족 중심의 원시적 사회 구조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식민 통치를 맡았던 B국은 부족 간 갈등을 조장하기 위해 이해하기 어려운 기준을 적용하여 인구를 분류하였다. 이로 인해 부족 간 분열이 심화되었고, 1994년에는 농경 부족인 후투족과 유목 부족인 투치족 간의 대규모 종족 학살이 발생하였다. 100일간 약 70만 명이 희생된 이 비극은 여성과 아이들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

전쟁을 겪은 여성들은 극심한 정신적 외상을 입었으며, 우울증과 트라우마로 인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의료 시설의 부족으로 치료를 받을 기회도 없었고, 생계를 책임지면서도 하루하루를 극도의 불안 속에서 살아가야 했

다. 연구자가 방문했을 당시, 전쟁이 발생한 지 10년이 지난 시점이었으나, 여성들의 삶은 여전히 황폐한 상태였다. 이에 선교팀은 임시 의료소를 설치하고, 치료 및 위생 보건 활동을 제공하는 한편, 용서와 화해를 주제로 한 영성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이 세미나는 단순한 종교적 교육이 아니라, 르완다 여성들이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었다. 특히, 제노사이드 가해자들에 대한 재판이 열리는 날, 남편과 아들을 잃은 여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하며 고통을 표출하였다. 이 날, 선교팀은 여성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감정을 나누었고, 용서와 화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여성들이 더 이상 희생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 변화를 주도해야 할 존재임을 선언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중앙아프리카 최빈국 중 하나인 콩고는 지정학적으로 이슬람 세력의 남하를 막는 주요한 위치에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내전으로 인해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조혼이 만연하여 10대 과부들이 대거 발생하는 등 여성들의 삶은 더욱 열악해졌다. 의료 시설이 거의 없는 환경에서 AIDS 감염률이 급증하였고, 여성들의 건강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이에 따라, 선교팀은 의료 시스템 구축과 보건·위생 교육, 치유 상담을 포함한 포괄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동·중앙아프리카는 오랜 식민 지배로 인해 사회적 기반이 약화되었으며, 여성들의 권리는 거의 인정되지 않았다. 특히, 여성들은 가난과 자녀 양육의 부담으로 인해 생계를 위해 노동에 내몰리면서도, 가부장적 사회 구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학습되어 왔다. 이러한 억압적 구조 속에서 여성들은 교육을 받을 기회조차 박탈당하였으며, 문맹률이 높아 사회 참여의 기회마저 차단되었다.

여성들은 단순한 희생자가 아니라, 사회적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여성

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체적인 사고와 리더십을 개발하는 것은 동·중앙아프리카의 미래를 위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교육과 신앙을 기반으로 한 여성 리더십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기독교 선교는 여성들에게 올바른 성서적 가치관을 심어주고, 이들이 지역 사회에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본 연구는 동·중앙아프리카 여성들이 처한 현실을 분석하고, 기독교 선교가 여성의 정체성 회복과 리더십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였다.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실천적 노력이 필요하며, 기독교 선교는 여성들의 권리 신장과 자립을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을것이다.

B. 연구의 목적

동·중앙아프리카 여성들은 정체성과 윤리적·사회적 자원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사회적 억압과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뛰어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잠재력을 리더십으로 발전시키는 데 목적을 둔다. 시편 68편 11절에서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가 큰 무리라”고 기록된 것처럼, 성경적 해석이 다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동·중앙아프리카 여성들이 어떻게 공동체 내에서 영향력 있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또한, 이들의 리더십을 통해 형성되는 공동체적 역량과 사회적 변화를 탐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신학적, 성서적, 문헌적 배경을 토대로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들의 리더십 형성과 여성 문화의 발전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여성 리더십이 지역 사회와 문화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마리아 스튜어트는 아프리카 여성의 억압이 단순한 원인 분석에서 그쳐서는 안 되며, 이들의 독립(Independence), 자기정의(Self-definition), 자립(Self-reliance)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1] 이는 곧 아프리카 여성 중심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며, 본 연구 역시 이러한 관점을 기반으로 한다.

동·중앙아프리카 여성들의 리더십은 외부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 스튜어트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 구조적 억압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되며, 여성에 대한 억압·차별·지배의 문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논리적 담론과 실천적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아프리카 여성들이 지닌 고유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전통적 가부장적 리더십에서 벗어나, 보다 포괄적이고 협력적인 여성 리더십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과거의 리더십 구조는 가부장적 요소가 강하게 작용하는 형태였으나, 21세기의 문화적 변화 속에서 여성 리더십은 성별의 경계를 넘어 공동체 중심의 협력과 참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동·중앙아프리카 여성들의 리더십은 상호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며,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여성 리더십은 단순히 여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성과 함께하는 민주적이고 관계적인 리더십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는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불합리하고 고갈된 영역에 적극 참여하여 분석하고 설명하며, 아프리카 여성 중심의 이론과 신학을 구축하는 과정과도 맞닿아 있다.

---

[1] 패트리샤 힐 콜린스, 『흑인 페미니즘 사상』 박미선, 주해연 역 (서울: 여이연, 2009), 24.

여성 리더십의 본질적인 특징을 강조한 미래학자 에버딘과 나이스빗은 여성 리더십이 비전 중심적이며 섬세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의사소통 능력과 정신적 성향이 높아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관계 형성을 촉진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또한 여성 리더십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촉매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진다"[2]고 강조한다. 따라서 동·중앙아프리카 여성들은 뛰어난 리더십의 잠재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프리카 여성들은 전통적으로 공동체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정치적 영역에서는 배제되어 왔다. 인류학자 에반 프리차드(Evan Pritchard)는 아프리카 원시사회에서 여성들이 가족의 중심 역할을 하며, 남성과 구별된 활동 영역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3]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아프리카 사회에서 여성들은 정치적·경제적 참여가 제한되었고, 이는 사회적 규범에 의해 여성들이 주변부로 밀려나게 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여성들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나, 이들의 기여가 충분히 조명되지 못했다. 초대 교회 시절부터 여성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며 공동체 내에서 중요한 지도적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사는 이러한 여성들의 기여를 간과해 왔다. 그러나 성서는 남성과 여성을 동등한 인간으로 존중하며, 바울 역시 로마서 16장에서 여성 사역자들을 '동역자'라 칭하며 이들의 역할을 인정하였다.

연구자는 동·중앙아프리카에서 여성들이 공동체 내에서 존경 받는 어머니이

---

[2] 로리 루츠, 『세계를 움직이는 기독여성들』 횃불성경연구소 역 (서울: 횃불, 1998), 439.
[3] Teresia Mbari Hinga, *African, Christian, Feminist* (Maryknoll, New York: Orbis Books, 2017), xx.

자 교육자, 지도자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여성들은 노동력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문화와 예술, 교육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프리카 여성들은 시인이자 음악가, 미술가이며, 요리 전문가이자 삶의 신학자이기도 하다. 이러한 여성들의 창의성과 능력은 사회 전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동·중앙아프리카 여성들은 공동체 의식이 강하며, 상호 존중과 협력을 중시하는 문화적 전통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이웃 친화적인 헌신과 배려의 문화를 실천해 왔으며, 이를 통해 여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회적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여성들의 사회적 참여를 가로막는 규범적 장벽을 인식하고 이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식민지배적 사고방식이나 가부장적 제도, 여성 차별적 문화가 지속될 수 없다. 동·중앙아프리카 여성들은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회 변화를 이끌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 이들의 목소리는 단순한 개인의 권리 주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존중하고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본 연구는 기독교율이 60~70%에 달하는 동·중앙아프리카 사회에서 여성 리더십이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1세기는 아프리카 여성 리더십이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한 연구와 실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은 동·중앙아프리카 여성들이 리더십을 형성하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통해 공동체와 사회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C.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은 레너드 스윗(Leonard Sweet)이 주장한 경험, 참여, 이미지, 연결의 시대를 내다 본 EPIC 모델 이론을 근거로 한다. 다만, 본 연구의 주제가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 리더십 형성에 관한 연구이므로, 여성신학과 아프리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함께 제시한다. 연구의 대상은 연구자가 현재 선교 사역을 수행하고 있는 동·중앙 아프리카 지역의 여성들과 여성 지도자들로 한정된다. 연구의 범위는 교육 지도자 연수 그룹, '여성 지도자 키우기' MZ세대 여성 유학생 그룹, 그리고 주변부 그룹을 포함하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R국과 C국의 국경 지역에 거주하는 피그미 여성 그룹[4], T국과 K국 국경 지역의 마사이 공동체 여성 지도자 그룹[5], 지역 사회 마을 공동체 여성 지도자, 학교 여성 지도자 그룹, 그리고 매년 개최되는 '2024 동·중앙 아프리카 3개국 여성 지도자 컨퍼런스'의 주요 대상인 여성 목회자 그룹, 교육계 여성 지도자 그룹, 지역 사회 각 분야의 여성 지도자 그룹을 포함한다. 본 연구는 이들을 중심으로 교육과 영성을 핵심으로 한 리더십 형성 과정을 탐구하기 위한 방법과 범위를 둔다.

동·중앙 아프리카 지역은 각각 상이한 유럽 식민 지배의 경험을 거친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로 국경을 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별로 국민성과 문화적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가별 여성들의 필요성과 아프리카 여성신학의 주요 담론 및 동향을 분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여성

[4]르완다와 콩고 국경 지역에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피그미족 여성 리더들.
[5]탄자니아와 케냐국경지역의 마사이공동체 여성지도자들.

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역사적으로 구현되었는지를 심층적으로 고찰한다. 또한,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 리더십 형성과정에서의 주요 문제점을 규명하고, 각 국가별 여성들의 강점과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 범위를 설정하고자 한다. 나아가 교육과 영성이 여성 리더십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례별 평가 및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 방법으로는 연구자가 수년간 다양한 매개체를 활용하여 실천해 온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 컨퍼런스 및 영성 세미나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다. 이를 통해 여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치유 사역을 통한 회복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 여성 지도자들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실천적 연구 방법을 적용한다. 연구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는 논문의 목차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구성한다.

둘째,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 리더십 형성 사례의 근거 및 내용은 개별 여성과 공동체 사례를 중심으로 서술한다. 컨퍼런스의 경우, 신학 강의, 성경 액티비티, 교회력과 예전, 교육 및 리더십을 위한 중보 기도와 성경 통독 등의 활동을 통해 리더십과 영성 형성 과정을 연구한다. 이를 보다 입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심층 인터뷰, 리포트, 사진, 음악, 미술 등의 자료를 활용할 예정이다.

셋째, 사례별 교육과 영성 형성 방법을 성서 해석과 예수의 사역을 기반으로 접근하며, 극화 및 뮤지컬 형식을 통한 참여적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한다. 특히,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통합적 시각을 제공하는 세계적 성경학자 조병호의 ‘10분 스토리’를 활용하여 교육계 여성 지도자의 리더십 형성을 위한 교육 및 영성 연구를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EPIC 모델의 적용을 중심으로 연구 사례를 평가하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 및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들은 억압적 문화 규범을 뛰어 넘어 삶의 신학을 실천하는 주체적 존재들이다. 연구자는 이들이 지닌 독창적이고 풍부한 역량, 그리고 내재된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해방자이자 독립된 주체로서의 여성, 노동자이자 생태학자로서의 여성, 교사로서의 여성, 시인이자 예술가로서의 여성, 창조적 요리가로서의 여성,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로서의 여성, 국가와 민족을 위한 선지자로서의 여성, 그리고 나아가 인류 구원을 위한 연대자로서의 여성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이 설정하는 연구 방법과 범위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대한 응답으로 규정될 수 있으며, 이는 본 연구가 추구하는 최종 목표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 리더십 형성의 가능성은 단순히 특정 지역적 범위에 국한되지 않고, 더 나아가 세계적인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는 주제가 될 것이다.

Ⅱ. 동·중앙아프리카 여성의 이해

식민 지배의 잔재는 여성들이 가부장적 사회 구조를 비판 없이 수용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환경은 여성의 리더십 발휘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부족 중심의 이데올로기와 여성들이 교육 기회를 박탈당하는 현실적인 문제 역시 여성들의 주체성 형성과 정체성 확립에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이는 단순히 여성 개인의 문제를 넘어, 동·중앙 아프리카의 미래 발전과 비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동·중앙 아프리카의 여성들은 각자의 문화, 문명, 그리고 독자적인 세계관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세계관을 자유롭게 펼칠 수 없는 제도적 장벽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와 같은 문화적·제도적 제약은 여성들의 주체성과 리더십을 제한하며, 그들의 역량과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들이 자신을 증명하고 식별하는 자의적인 의지는 그들의 본래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 요소이다. 이 본래성은 여성들이 자신들의 문화와 정체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다.

중세 유럽에서도 대학이 설립되고 학문적 공간이 마련되었으나, 여성들은 교육 기관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들이 부여 받은 여성성은 신으로부터 주어진 특별한 은사이며, 이 여성성에는 끊임없이 섬기고 헌신하며 타인을 위해 풍요로운 가능성을 창출하는 내재적 힘이 포함되어 있다.

기독교는 전 세계적으로 여성 해방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종교 중 하나이다. 특히, 여성 억압적인 사회에서 전통적인 문화와 제도를 뛰어넘어 여성들의

해방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기독교가 각 지역에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교회와 사회 내 차별적 구조가 형성되었다. 아프리카의 가부장적 문화는 19~20세기 중반, 가부장적 사회에서 성장한 선교사들에 의해 이 지역으로 유입되었다. 식민지배적 가부장주의와 아프리카 토착 가부장주의가 결합하면서, 아프리카 기독교 내에서 가부장적 사고방식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이러한 가부장적 문화는 사회의 악습과 구조적 문제로 확대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들의 리더십 형성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 리더십의 문제를 식민지배의 산물로서 남성 중심적 가부장적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함을 강조한다.

아프리카 여성 신학자인 킴바 비타(Kimpa Vita)는 “아프리카 여성들이 자유로운 삶의 질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응답”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녀는 기독교가 ‘아프리카 여성의 경험을 모든 사람과 동일한 가치로 간주한다’는 주장을 모순으로 지적하며, 실제로 기독교가 여성의 비개인화 및 순응과 복종을 강화하는 문화적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고 비판한다.[6] 그녀의 주장은 서구 기독교가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우선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식민지적 이원론의 틀을 활용하여 아프리카 여성들에게 성차별적인 이원론적 사고를 내재화시켰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독교적 식민 지배가 초래한 이원론은 여성을 사회적 하위구조로 위치시키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지 못하게 하는 주요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았다. 이는 아프리카 여성들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동·중앙 아프리카의 경우,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HIV/AIDS’ 감염 문

---

[6] Hinga, *African, Christian, Feminist*, xxi.

제가 아프리카 신학의 주요 논제로 대두될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자리하고 있다. 동·중앙 아프리카는 여전히 지속되는 내전으로 인해 여성들의 희생이 현재진행형이며, 최빈국으로 분류되는 이 지역에서는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조차 제공받지 못하는 여성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에 따라,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들은 정체성을 상실하고, 삶의 의욕과 의지를 잃어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들이 사회규범에서 비롯된 성차별과 폭력, 여성 폄하의 상처와 질병이 주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인식하며, 이러한 상황을 아프리카 여성 신학적 해석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이해와 관심이 선행될 때,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들의 정체성과 리더십 형성이 가능해지며, 궁극적으로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 신학의 새로운 출발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들은 과연 해방과 희망의 시각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을 것인가. 여성 자신뿐만 아니라 치유와 해방이 절실히 요구되는 아프리카 대륙을 위해 성경을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성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는가. 누가복음 5:24-43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는 동·중앙 아프리카의 현재 문제, 특히 HIV/AIDS로 고통받고 있는 여성들의 삶과 연결 지어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성서적 해석이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 신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레고리 래드(George Ladd)는 성경신학을 '구원의 틀'로 정의하며, 성경을 하나님 나라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 해석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7][2]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희생되고 폄하된 자리에서 성경신학

[7] Winn Griffin, *God's EPIC Adventure* (North Hollywood, CA: Harmon Press, 2007), 181.

적 관점으로 이들의 현실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 여성 신학 연구는 세계 교회 여성 공동체의 상호 연대를 통해 확장되어야 하며, 억압받고 소외된 여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동력이 되어야 한다. 또한, 기독교 역사와 성서 해석이 지속적으로 양성평등적인 방향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연구는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들의 주체성과 정체성을 보호하는 아프리카 토착 신학을 형성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 해방 신학적 관점에서, 그리고 경제 정의의 측면에서도 이러한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아프리카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영성을 바탕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과정이야말로, 여성들이 가부장적 체제와 억압 속에서 삶의 무게를 견디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들은 가부장적 제도와 구조에 맞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목소리와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아프리카 공동체 내에서 여성 리더십을 재창조할 수 있다. 아프리카 여성 신학은 글로벌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특히, 질병으로 인해 생명을 잃고 고아들이 증가하는 아프리카의 현실은 사회적 불의의 결과이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이 아프리카 여성 신학과 여성 리더십 형성의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한다.

A. 아프리카 여성 신학의 태동

아프리카 여성 신학의 형성은 1976년, 동아프리카 탄자니아 다르에르살렘에서 제3세계 신학자 협의회(Ecumenical Association of Third World Theologians, 이

하 EATWOT)가 결성되면서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이 협의회를 계기로 아프리카 해방신학이 체계적으로 연구되었으며, 1980년에는 “범아프리카 교회협의회”(All Africa Conference of Churches)가 조직되어 아프리카 여성 신학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후 1983년, EATWOT 여성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아프리카 여성 신학자들의 결속력이 강화되었고, 1986년에는 보다 조직적인 형태로 여성위원회가 정식 출범하였다. 1989년에는 아프리카 여성 신학자 협의회(Circle of Concerned African Women Theologians)가 별도로 구성되면서 아프리카 여성 신학이 독자적인 신학적 논의를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누가복음 8:40-56에 등장하는 예수의 말씀, “달리다 쿰(소녀야, 일어나라)”은 아프리카 여성 신학이 다루는 다양한 신학적 주제[8]를 해석하는 중요한 성서적 근거로 자리 잡았다. 이를 바탕으로 아프리카 여성 신학이 보다 성숙한 형태로 발전해 나갔으며, 이는 아프리카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가부장적 제도로부터의 해방과 식민주의 잔재를 극복하려는 신학적 작업과 맞닿아 있었다. 또한, 아프리카 여성 신학은 서구 여성 신학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이중적, 삼중적 과제를 안고 있는 신학적 흐름이었다.

아프리카 여성 신학의 대표적 학자인 멀시 암바 오두요예(Mercy Amba Oduyoye)는 아프리카 전통 종교와 아프리카 문화를 기독교 신학과 접목하는 방식으로 여성 신학을 발전시켰다. 그녀는 아프리카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를 분석하면서, 아프리카 종교와 문화가 여성의 정체성 형성과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에 대한 신학적 고찰을 수행하였다.

---

[8] 생명을 향한 외침, 새 하늘과 새 땅, 기독교와 아프리카 문화 및 전통 예식, 아프리카 여성들의 성문제, 결혼과 일부다처제, 여성과 성서, 교회에서의 여성 참여, 예수와 아프리카 여성 해방 등의 주제 포함.

아프리카 여성들은 경제적 자립과 해방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는 단순히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과의 협력을 통해 인간의 본질적 가치를 회복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즉, 상호 환대(hospitality)를 바탕으로 여성들이 주체적인 결정을 내리고, 남성과 협력하여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야 한다. 남성들 또한 왜곡된 남성주의에서 해방되어야 하며, 이러한 변화가 바로 기독교 신앙의 토착화이자 진정한 해방의 의미를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흑인 여성 신학자인 둘로레스 윌리엄스(Delores Williams)는 '우머니스트(Womanist)' 신학을 통해, 흑인 여성들이 "전혀 길이 없는 곳"(No Way)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길을 개척해 왔다고 증언한다. 그녀는 아프리카-미국 여성 신학을 대표하는 신학자로서, 아프리카 여성들이 직면한 억압적 현실이 보다 심각한 소외를 경험하게 했다고 주장하였다.[9]

아프리카 지역에서 성서는 주로 제국주의 시대에 지배 구조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그렇다면, 식민지배와 성경 해석은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가? 19세기와 20세기 초반, 서구 열강의 식민지배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문명화'라는 도덕적 명분이 강조되었고, 이는 지배와 종속의 불평등한 관계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활용되었다. 여성 신학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비판하며, 사회 윤리적 토대를 기반으로 우머니스트(Womanist) 신학을 발전시켰고, 아프리카 여성들이 경험한 억압과 고통의 이야기를 신학적으로 재해석하였다. 특히, 계급·인종·성별에 따른 복합적 억압 구조를 "악의 지배 체제"(Demonarchy)라고 개념화하며, 이에 대한 저항과 공동체 의식의 회복을 강조하였다.[10]

아프리카 여성 신학은 단순한 이론적 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

[9] 한국여성신학회, *21*세기세계여성신학의동향 (서울: 동연, 2014), 64.
[10]둘로레스 윌리엄스, 캐티 캐논, 재클린 그랜트, 레니타 윔스, 스테이시 플로이드-토마스 등.

삶의 변화를 목표로 한다. 예를 들어, 빈곤과 질병의 문제는 아프리카 여성 신학이 다루어야 할 핵심 과제 중 하나이며, HIV/AIDS의 확산과 같은 보건 문제는 신학적으로도 심층적인 해석이 필요한 영역이다. 여성 신학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성서적으로 재해석하며, 여성의 정체성과 공동체 속에서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성서는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으로 이끄는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누가복음 8장에 등장하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는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들이 처한 현실과 연결 지어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성서적 해석은 아프리카 여성 신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신학적 기반이 된다.

그레고리 래드(George Ladd)는 성경신학을 '구원의 틀'로 제시하며, 성경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제안하였다.[11]이와 같이,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희생과 소외의 자리에서 성경 신학적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아프리카 여성 신학 연구는 세계 교회의 여성 공동체와 연대하여 발전해야 하며, 억압받고 소외된 여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성서 해석이 지속적으로 양성 평등적인 관점에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는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들의 주체성과 정체성을 보호하며, 아프리카 토착 신학을 형성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아프리카 여성 신학은 단순히 여성 해방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정의, 사회적 평등, 그리고 신앙 공동체의 실천적 변화를 함께 모색하는 총체적 신학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프리카 여성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의미는 더

---

[11] Griffin, *God's EPIC Adventure*, 181.

욱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부장적 체제와 억압 속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제시하는 원천이 된다.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들은 가부장적 제도와 사회 구조에 맞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목소리와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아프리카 공동체 내에서 여성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다.

아프리카 여성 신학은 글로벌 시대의 변화 속에서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특히, 질병과 빈곤으로 인해 생명을 잃고 있는 여성과 어린이들의 현실을 직시하며, 이에 대한 신학적 해석과 실천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아프리카 여성 신학의 중요한 과제이다.

B.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들이 직면한 문제점

아프리카 대륙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가장 열악한 대륙 중 하나로 분류된다. 특히, 동·중앙 아프리카 지역은 최빈국이 집중된 지역으로, 이는 세계 경제 체제 내에서 동·중앙 아프리카의 불공정한 구조를 반영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해당 지역의 여성들은 생계를 위한 노동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육아, 노인 돌봄 등 다방면에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소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권리 보장 측면에서 심각한 한계를 지닌다. 재산권 및 유산 상속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여성들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또한, 여성 차별적이고 억압적인 요소들이 전통문화 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여성들이 사회 및 교회 공동체 내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도록 만들 뿐만 아니라, 리더십을 향한 의지를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선교 사역을 수행하면서 목격한 아프리카 여성

리더십 형성의 주요 장애 요인을 몇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1) 고정관념, 사회적 기대 및 네트워크 부족

동·중앙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남성이 리더십을 행사하는 것이 사회문화적 제도로 정착되어 있으며, 리더십은 남성적인 특성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여성들이 리더십을 발휘하려는 시도에 대해 사회적으로 호의적이지 않은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즉, 여성들은 자기 계발을 위한 지지체계를 구축하기 어려우며, 멘토나 스폰서를 찾는 데 있어서도 남성에 비해 상당한 제한을 받는다. 이는 여성들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을 어렵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여성 리더십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2) 편견, 차별 및 문화규범에 따른 불평등

동·중앙 아프리카의 전통적인 문화규범은 여성의 역할을 남성을 섬기고 보호하며 지원하는 존재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여성들은 정치에 참여하거나 공적 영역에서 지도자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지지를 받기 어렵다. 여성들이 정치적 역할을 희망할 경우, 가족이나 지역사회로부터 강한 반대를 마주하게 되며, 이는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또한, 성차별로 인해 여성들은 미묘한 편견과 배제로 인해 리더십 영향력을 발휘할 기회를 더욱 제한받는다. 전통적으로 사회 및 공동체 내에서 '일'은 남성이 담당해야 할 영역으로 여겨져 왔으며, 여성들은 주로 가정 내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왔다. 이러한 구조적 배경으로 인해

여성들은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이는 리더십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또 다른 장애물로 작용한다.

3) 자원 부족 및 교육 기회의 차별

동·중앙 아프리카 지역의 여성들은 남성과 동등한 자원과 인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부족하다.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공직 진출이나 정치적 활동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거의 제공되지 않으며, 여성들이 리더십 직책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습득할 기회 또한 제한적이다. 여성들이 남성을 능가하는 역량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교육적 기회 자체가 남성보다 현저히 적다. 이러한 불평등한 교육 기회는 여성들의 리더십 성장에 중요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4) 부정적인 자아 이미지, 폭력 및 사이버 괴롭힘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들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자아 이미지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강하게 느낀다. 정치 및 종교계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은 종종 소속 기관 내의 구조적 폭력에 직면하며, 최근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이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 괴롭힘에도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여성들이 공적 영역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심리적 위축을 초래하며, 결과적으로 여성 리더십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5) 롤모델과 멘토의 부족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들은 성공적인 여성 리더의 사례를 직접적으로 접하기 어렵다. 여성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롤모델과 멘토링이 부족한 것은 리더십 성장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여성 리더십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사례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들의 리더십 형성에는 다양한 제도적 및 사회문화적 장애 요인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고 여성 리더십을 실현한 사례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인물로 동아프리카 케냐 출신의 왕가리 마타이(Wangari Maathai)를 들 수 있다.[12]

왕가리 마타이는 여성 리더십이 인정되지 않는 동아프리카의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인 투쟁을 이어갔으며,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 최초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인물이다. 그는 그린벨트 운동을 통해 1977년부터 여성들에게 나무 심는 법을 교육하며 환경 보호와 여성 권익 향상을 동시에 실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독재 정권과 맞서 싸우며 지속적으로 환경 보호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이에 대한 탄압과 억압 속에서도 평화를 위한 길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그는 아프리카 여성들에게 리더십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롤모델이 되었다.

---

[12]왕가리마타이, 『아프리카의푸른희망왕가리마타이』김민경역 (서울 : 리잼, 2019), 4.

또한,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 리더십의 또 다른 사례로 사라를 들 수 있다. 사라는 감리교 장학금과 서양 선교사의 지원을 받아 고등교육을 이수한 후, 본국으로 돌아와 난민 어린이들을 가르쳤으며, 여성 최초로 교육부 장관이 되었다. 그는 내전과 빈곤 속에서 어린이 교육과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해 헌신하였으며, UN에 전쟁과 내란을 겪은 어린이를 위한 특별 위원회를 설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착취와 고난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며, 빈곤은 여성 리더십 형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여성 리더십 형성을 저해하는 기존의 제도와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성경적 해석을 통한 여성 리더십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들의 리더십 연구 및 발전이 가속화될 것이며, 현재 직면한 문제점들을 극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나아가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 리더십 형성은 확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수적이다.

Ⅲ. EPIC 이론의 정의와 이해

현재 우리는 말씀을 전파하기 어려운 시대적 상황 속에 놓여 있다. 모든 시대는 지속적인 변화를 거듭하며 발전해 왔으며, 21세기는 이전의 시대와는 전혀 다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적 상황을 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는 후기 현대주의(Postmodernism) 시대라 할 수 있다. 후기 현대주의는 절대적 진리의 개념을 부정하며, 절대적 복종 또한 거부하는 특징을 지닌다. 즉,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개념이 강조되며, 이는 인간의 이성 확장과 안일주의의 범람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직면한 위기의 한 요소가 되기도 한다. 후기 현대주의의 핵심적 특징은 상대주의(Relativism)이며, 이는 기준점이 되는 중심을 상실하게 만든다. 이러한 후기 현대주의적 경향은 급격한 사회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동·중앙 아프리카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생태체계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

교회의 미래를 연구하는 레너드 스윗[13]은 현대 시대의 교회를 '속도를 내는 웹(Web-driven Church)'으로 규정하며, 현대 교회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며, 동시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4] 스윗은 기독교가 지닌 본질적인 운영 체계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받은 지상명령(The Great Commission)이며, 이를 통해 기독교는 선교적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기독교 선교의 본질적 방향이 '세계 속으로 나아가는 것'에 있음을

[13]미국 드루대학교(Drew Theological School) 석좌교수.
[14]Leonard Sweet, 『영성과감성을하나로묶는미래교회』 김영래 역(서울: 좋은씨앗, 2002), 201.

주장하며,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의 초점이 세계 가운데 맞추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기독교의 본질적 특성이 관계(Relationality)에 있기에, 기독교는 관계 중심적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즉, 기독교의 진리와 정의는 '사람' 그 자체이며, 기독교는 인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 그리고 '창조 세계와의 관계' 속으로 이끌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윗은 문화적 관점에서 선교를 꽃피우는 요소가 '문화 자체'가 아니라 '성육신적(Incarnational) 접근'이라고 보았다. 그는 기독교 신앙이 식민지 지배적 문화가 아니라, 현지 문화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토착적 신앙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기독교는 서구 문화, 아시아 문화, 아프리카 문화가 각각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들리며, 다르게 표현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프리카 여성 신학자인 테레시아 음바리힌가(Teresia Mbari Hinga)는 기독교 식민지 선교가 복음화 자체보다는 지배적인 구조를 형성하는 데 집중했다고 비판한다. 그는 아프리카 여성들이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일 때, 환희가 아닌 한탄과 외침의 이유가 존재한다고 분석한다. 그의 연구 "기독교 식민지 선교와 아프리카의 얽힘"은 아프리카 여성들이 기독교 선교 과정에서 겪은 트라우마와 치명적인 후유증을 담고 있다.[15]

연구자가 동·중앙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던 당시, 선교의 여건은 매우 열악하였다. 최소한의 의식주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숙소, 전기 부족, 극심한 더위와 말라리아 감염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해야 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연구자는 선교의 의미에 대해 끊임

[15]Hinga, *African, Christian, Feminist*, xviii.

없이 자문하며, 신앙적 확신과 소명의식을 새롭게 다지는 과정을 거쳤다.

첫 선교 대상은 R국과 C국의 국경 지역에서 세 명의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과부 여성 F였다. 연구자는 그녀에게서 작은 삶은 고구마 세 개를 받아 허기를 달랬으며, 크레파스를 이용해 복음을 전하는 그림 전도를 시도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다리로 설명하며, 함께 찬송을 부르면서 복음을 나누었다. 이후 연구자는 그녀를 지속적으로 방문하며 그녀의 삶과 신앙을 공유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그녀는 과부 여성 공동체를 돌보는 여성 지도자로 성장하였다. 이는 연구자의 토착화 선교 과정에서 최초로 형성된 신앙적 공동체이며, 현재까지 지속되는 선교적 협력 관계의 출발점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과부 여성 F의 삶 속에서 씨를 뿌리고, 싹을 틔우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셨다.

스윗은 1999년 *Soul Tsunami*[16]에서 EPIC 모델을 제안하며, 현대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E(Experiential, 경험적)
- P(Participatory, 참여적)
- I(Interactive, 상호작용적)
- C(Communal, 공동체적)

이후 2000년 출판된*Post-Modern Pilgrims*에서는 기존의 I(상호작용적 요소)를Image-driven(이미지 중심적 요소)으로, C(공동체적 요소)를 Connected(연결성 중

[16] Sweet, 『영성과감성을하나로묶는미래교회』, 61, 19.

심 요소)로 재해석하였다.[17]

EPIC 모델의 이론적 기반은 세 가지 학문적 분야에서 형성된다.

1. 후기 현대주의 해석학(Postmodern Hermeneutics)

• 참여와 관찰이 핵심이며, 성경 해석 방식이 공동체적이고 관계 중심적인 방식으로 발전한다.

2. 자연과학(Hard Sciences) 이론

• 신앙적 서약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실과 실재를 창조하는 패러다임을 형성한다.

3. 인지과학(Cognitive Science) 이론

• 가치와 신앙의 서약이 학문적 연구와 탐구 과정에서 합리적 요소로 작용하며, 사고 방식의 변화를 촉진한다.

이와 같은 EPIC 모델은 후기 현대주의적 상황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대의 디지털 문화는 이성적이고 선형적인 사고방식보다는 상호작용적이고 이미지 중심적인 접근을 요구한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기독교적 사고가 과거의 '구텐베르크 인터페이스(Gutenberg Interface)'에 머물러 있으며, 이는 현대적 선교 전략과의 괴리를 형성하고 있다.

스윗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십자가의 관점에서 해석하며, 기독교 전통에 비추어 인생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는 기존의 이원론적 접근을 초월하여 보다 높은

[17] Ibid.

차원의 종합체를 형성하는 방식이다.[18] 즉, ‘이성의 시대를 떠나 감성의 시대로’, ‘대리의 문화에서 참여의 문화로’, ‘언어 중심의 소통에서 이미지 중심의 소통으로’, ‘개인 중심 사회에서 공동체 추구의 사회로’의 전환을 통해, 성경적 가치를 현대 문화와 조화롭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기독교 선교는 지속적으로 발전하며, 후기 현대주의 시대 속에서도 효과적인 복음 전파가 가능할 것이다.

A. 경험(Experience)

하나님에 대해 논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근대(modernity) 시대는 경험(experience)보다는 설명(explanation)을 신뢰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포스트모던(postmodern) 시대는 경험과 체험을 중시하며, 모든 것을 경험 중심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즉, 인간은 삶의 본질을 탐구하며 직접 경험하고 느끼기를 원하며, 경험할 수 없는 환경에서는 거주하기를 꺼려한다.[19] 이러한 경향 속에서 신앙의 정점에는 교리적 논의가 아닌 열정적 경험이 자리하게 된다.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들은 신앙을 단순한 이론적 개념이 아닌 직접적인 경험과 체험을 통해 습득하고자 한다. 또한, 이들은 자신의 잠재력을 스스로 확인하며 이를 실현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2024년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 지도자 컨퍼런스가 세 개국에서 개최되었으며, 오감(五感)을 활용한 예전(liturgy)과 부족 간 관계 중심의 경험을 주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기존의 강의 중심 세미나 형식을 탈피하고 성경의 주제를 기반으로 한 경험적 컨퍼런스로 진행하였다. 여성들은 경험의 주체로서 감각을 통해 신앙을 체화하고, 열정과 잠재적 리더십을

[18] Ibid.
[19] Ibid 67.

개발하는 데 집중하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컨퍼런스는 뜨거운 열기를 띠었으며, 정예화된 여성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입소문을 통해 점점 더 많은 참가자들이 모여들었다. 국경을 넘어 10~12시간의 여정을 거쳐 컨퍼런스에 참여한 여성들은 교회의 바닥에서 숙박하며 오랜 시간 동안 열정을 불태웠다. 이러한 경험은 종종 반목하던 부족들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친밀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자발적 참여를 통한 관계적 연합은 '경험'을 통해 공동체의 결속을 더욱 강화하였다.

레너드 스윗(Leonard Sweet)은 EPIC(Experience, Participation, Image, Connection, 경험, 참여, 이미지, 관계)의 개념을 스타벅스 커피의 성공 원리와 연계하여 설명한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스타벅스 커피에 열광하는 이유를 분석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만남을 피할 수 없게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단순히 종교적 의무감으로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신앙이 단절된 개인주의적 태도에서 벗어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20]

오늘날 기독교는 급진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부재로 인해 대중이 기독교를 제대로 경험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21] 스윗은 복음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며, 그 경험이 마치 커피 위에 더해지는 아포카토 샷(Affogato shot)과 같다고 비유한다. 그는 스타벅스를 하나의 '영성 포털(spiritual portal)'로 활용할 수 있으며, 그 안에서 예상치 못한 영적 통찰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잔과 그 안의 내용물은 단순한 음료를 넘어 영적인 삶의 깊은 의미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20] Leonard Sweet,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이지혜 역(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19.
[21] Ibid., 24.

스타벅스의 철학을 분석하면, 이곳에서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EPIC 경험의 중심에 위치한다. 사람들은 스타벅스를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반영하며,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이러한 경험에 끌려 모여든다. 스타벅스는 종교기관이 아니지만, 그 운영 방식에서 신앙 공동체가 배울 수 있는 요소들이 존재한다. 즉, 스타벅스는 진정한 경험의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성공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스윗은 예수님께서 비록 커피를 드시지는 않았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임재하시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몸소 보여주셨다고 설명한다. 예수님은 직관적이고 역동적이며 의미가 충만한 생활 방식을 실천하셨으며,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사셨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주는 풍성한 경험을 창조하시고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열정과 의미의 본보기를 보여주셨다. 이는 곧 EPIC 경험의 핵심 요소로, 신앙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 속에서 구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 지도자 컨퍼런스에서는 교회력에 따른 사순절 성찬이 진행되었다. 이 성찬의 경험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시간이며,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이 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포도주가 놓였으며, 성찬을 통해 참석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사명을 다짐하는 신비로운 경험을 했다. 성찬의 잔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배경이나 지위, 감정, 개인적인 편견을 초월하는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였다. 여성들은 그리스도의 신비에 참여하며, 성찬을 통해 공동체와 민족, 인류로 확장되는 예배의 경험을 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한 의례를 넘어서는 실재적인 신앙 체험이었다.

현대인들은 단순한 이론적 신앙보다는 직접적인 경험을 추구한다. 그들은 하

나님을 예배를 통해 직접 경험하고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갈망한다. 이는 기존의 종교적 전통이나 교회 제도를 통해 정의되는 하나님에 대한 만족을 거부하고,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 신앙을 확립하고자 하는 경향과 연결된다. 현대인의 신앙은 절대적인 개념보다는 상대적이며, 신비로움을 즐기고, 다원성을 선호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들은 공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보다 개인적인 종교적 체험을 중시하며, 삶의 다양한 물음에 대해 스스로 답을 찾으려 한다.

이러한 변화는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 공동체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들은 영성을 추구하며, 자기 개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단순히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원한다. 즉, 신앙이 단순한 설명을 넘어 실재적인 차원에서 구현되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경향은 포스트모던 시대의 신앙적 특징을 반영하며, 경험 중심의 신앙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스윗은 현대 사회가 이성보다 경험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며, 경험이 생명, 호흡, 맥박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22] 또한, 인간의 오감을 포함한 모든 감각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쉐키나(Shekhinah)'의 개념을 강조한다.[23] 그러나 그는 연출된 경험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진정한 경험을 추구해야 하며, 경험이 우상이 될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독교의 사명은 실재와 접촉하기를 원하는 신앙인들에게 성경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경험이 단순한 정보 습득이 아닌 올바른 분별력을 동반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살아가야 하며, 기독교는 미래를 향한 확신 속에서 시대정신과 전통을 통합하는

---

[22] Ibid., 94.
[23] Ibid., 79.

문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24] EPIC 경험은 단순한 현대적 흐름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가 과거와 미래를 잇는 중요한 신학적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25]

B. P참여(Participatory)

그리스도의 지체는 본질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이다. 특히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 공동체는 참여에 대한 갈망이 깊다. 전통적인 부족 공동체 내에서는 자연스러운 참여가 이루어졌으나, 식민지배의 영향으로 인해 차별과 억압이라는 부정적 형태의 참여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여성들은 독자적이고 주체적인 참여를 희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참여에는 혁신이 내포되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에 동참하는 것을 '사명적(missional)'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은 인간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하는 것으로, 마리아의 순종이 필수적이었다.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세상 속으로 보내 창조주와 협력하여 그분의 사명을 실천하도록 명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신 참 하나님"을 보내어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셨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과 창조 사역에 동참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신, 그리고 인간이 함께하는 참여적 구조를 창조하셨다.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는 인간의 존재 목적이 신적 본질에 참여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였다.[26] 또한,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성에 동참하는 존재이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창조와 재창조를 이루며,

---

[24]Harvey Cox, "실험주의와 영성의 새로운 모형" *The Future of Faith* (New York: HarperOne, 2009) 참조.
[25]Ibid., 94.
[26] Sweet, 『교회, 스타벅스에가다 』, 19.

마지막 창조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이 과정에 동참하기를 요청하신다.[27]

동·중앙 아프리카의 R국에서는 약 20년 전 부족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여성과 소녀들이 희생되었다. 이에 대한 치유와 회복, 용서와 화합을 주제로 한 영성 세미나가 개최되었으며, 수백 명의 여성이 참여하였다. 세미나가 한창 진행될 무렵, 갓 스무 살을 넘었을 것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맨발로 뛰어 들어왔다. 그녀는 "누군가가 내 귀에 크게 소리쳤어요. 지금 바로 앞으로 뛰어가라."라는 음성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녀는 전쟁으로 인해 가족을 모두 잃었으며,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삶을 강요받아 오랜 기간 동안 고통받고 있었다. 그 음성을 들은 순간, 그녀의 가슴은 뜨거워졌고, 신발을 신을 겨를도 없이 먼 거리를 달려 탈출하였다. 그러나 그녀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고, 가혹한 문화적 규범이 그녀를 다시 억압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세미나에 참석한 모든 여성들은 그녀를 둘러싸고 따뜻하게 안아주며 축복과 평화의 인사를 건넸다.

세미나가 끝난 후, 관계자들은 정부 기관을 찾아가 그녀가 속박된 규범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그들은 "이 여성이 미래에 이 나라를 책임질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이후 그녀는 세미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였으며, 한 달 간의 의료 치료와 영성 훈련을 마친 후 선교사가 설립한 신학교에 입학하였다. 현재 그녀는 R국의 기독교 여성 지도자로서 신학교에서 여성 리더십을 실천하고 있다.

그녀의 용기 있고 자발적인 참여는 곧 거룩한 하나님께로 향하는 참여였다. 하나님의 사명에 동참하도록 강권하시는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며, 그녀의 결단은 하

---

[27] Ibid., 113.

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위대한 사명과 소명의식의 표현이었다. 현재 그녀는 동·중앙 아프리카의 미래를 창조하며 여성성을 바탕으로 한 거룩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EPIC의 개념에서 회중은 단순한 수동적 소비자가 아니라, 경험을 창조하고 형성하는 적극적 참여자로 이해된다. 이에 따라 스윗(Sweet)은 '진정한 참여'를 형성하는 두 가지 주요 요소를 제시한다.

첫 번째 요소는 '거룩한 담대함'(*spizzerinctum*)이다. 이는 주도권과 자발성, 열정과 독립성이 결합된 개념으로, 책임감과 성공에 대한 의지를 포함하는 '거침없음'을 의미한다. 스윗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spizzerinctum*을 실천하셨다고 주장한다. 예수님의 사랑은 용감하고, 상상력이 풍부하며, 대담하고 즉각적이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명에 동참하려면 상당한 수준의 *spizzerinctum*이 요구된다.[28]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들이 리더십을 형성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거룩한 담대함'이 필수적이다. 여성들이 본질적으로 주체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리더십을 가로막는 장애물과 문화적 규범을 극복할 수 있는 '거침없는' 태도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spizzerinctum*은 여성 리더십 형성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가 되어야 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이에 응답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요소는 '스프레자투라'(*sprezzatura*)이다. 이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참여를 의미하며, 영감을 주는 참여의 핵심 개념이다. 또한, 대조적인 요소들이 공존하는 가운데, 어려운 상황을 쉽게 보이도록 만드는 능력을 포함한다. 즉, 무심한 듯 보이지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과장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탁월함을

---

[28] Ibid., 117.

지향하는 개념이다.

스윗에 따르면, *sprezzatura*는 실패의 가능성과 위험 부담을 수반하는 신학을 반영한다.[29] 이는 절대로 위험을 용납하지 않는 기득권 종교의 정신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요소이다. 그러나 참여는 인간의 자발성을 자극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 더욱 깊이 상호작용하며 몰입할 수 있다.

오늘날 사회는 '참여의 시대'(*an age of participation*)이며, 동시에 '접근의 시대'(*an age of access*)로 정의된다. 따라서 자발적 접근을 통한 참여는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들에게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들은 차별과 억압이라는 문화적 규범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며, 이러한 참여는 결국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수평적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 된다.

현대의 회중은 상호의존적이며 상호작용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으며, 관찰자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존재이다.[30] 스윗은 현대인들이 자신이 변화에 기여했음을 증명하는 '변화'를 추구한다고 보았다. 즉, 오늘날 문화는 '선택의 문화'이자 '참여의 문화'이며, 상호작용이 불가능한 요소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현대의 참여문화는 다음 네 가지 신념에 기초한다.

1. 사람들은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한다.
2. 리더십이란 타인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3. 사람들은 공공의 선을 위해 희생할 수 있다.
4. 인간 조직은 자발적이며, 사람들은 자신의 자원과 시간을 현명하게 투자

---

[29] Ibid., 123.

[30] Sweet, 『영성과감성을하나로묶는미래교회』, 94.

할 수 있다.[31]

이처럼 EPIC의 자발적 참여는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 리더십 형성 연구에서 주체적인 이론으로 기능한다.

C. I 이미지(Image)

현대 사회는 이미지 중심의 문화로 전환되었다. 인간은 언어보다 이미지로 사고하며, 이미지는 단순한 시각적 요소를 넘어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다. 영성의 핵심에는 이야기와 은유가 존재하며, 이는 인간 정신의 본질적 활동 중 하나이다. 이미지와 은유는 인간의 공통 언어로 자리 잡았으며,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은유를 변화시키면 인간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다.[32] 이러한 관점에서 기독교 신앙의 전승과 확산 과정에서 이미지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특히, 인류 최초의 기록 언어가 상형문자였다는 점은 이미지가 인간 인식의 근본적인 형태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지 중심 문화 속에서 기독교 신앙의 전파와 리더십 형성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며,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 리더십 형성을 위한 신학적 접근을 모색하고자 한다.

아프리카에서는 물보다 콜라가 더 많이 소비된다. 도로변, 마을, 터미널, 버스 정류장, 그리고 가정의 지붕과 벽에 이르기까지 콜라 브랜드의 이미지가 도배되어 있으며, 이는 광고를 통해 강력한 문화적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동·중앙 아프

[31] Ibid., 100.
[32] Sweet, 『교회, 스타벅스에가다 』, 138.

리카에서는 콜라가 어린이와 성인 모두에게 필수적인 음료가 되었으며, 이는 브랜드 이미지가 사람들의 소비 습관을 지배하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기독교는 '고유한 이야기'라는 가장 강력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미지와 이야기이며, 이는 신앙의 핵심 자산으로 기능한다. 가장 위대한 이미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형상이며, 이는 사람들을 관계 속으로 끌어들이는 강력한 힘을 지닌다.[33][2]

동·중앙 아프리카 T국에서는 다양한 교통수단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등의 문구가 영어와 스와힐리어로 큼지막하게 표기되어 있다. 이러한 종교적 메시지는 이미지화 되어 전파되며, 기독교 신앙의 강력한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다. EPIC 모델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사람들이 이미지에 의해 신앙적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미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으로 전달되고, 시각적 경험을 통해 구속의 은총이 내면화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골로새서 1:15)이라고 선언하였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요한복음 14:9)이라고 하셨다. 이는 기독교 신앙에서 이미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구절이다. 기독교는 이미지를 통해 신앙을 전달하며, 이는 보편적 소통 수단으로 기능해왔다.[34]

2024년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 리더십 형성을 위한 컨퍼런스에서는 성서적 해석과 교회력 교육을 이미지와 상징을 통해 진행하였다. 대림절부터 성령강림절에 이르는 교회력 패턴이 이미지로 표현되었으며, 이는 참여자들의 신앙 형성에 강력한

---

[33]Ibid., 135.
[34]Sweet, Sweet, 『영성과감성을하나로묶는미래교회』, 134.

영향을 미쳤다. 컨퍼런스의 목표였던 여성 리더십 형성은 이미지 활용을 통해 그 효과가 극대화되었다.

아프리카의 경제적 현실로 인해 물리적 자원이 부족한 가운데, 여성들은 이미지 중심의 신앙 교육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스윗(Sweet)이 강조한 바와 같이, 이미지는 말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며, 신앙 경험을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그룹별 나눔과 토론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이는 여성들의 잠재력을 발현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미지 기반의 신앙 교육은 여성들의 침묵과 억압된 감정을 해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이와 함께, 동·중앙 아프리카에서는 역사적 사건을 상징하는 이미지가 강력한 신앙적 의미를 지닌다. 예를 들어, T국의 노예매매 시장 자리에는 현재 성공회 본당이 세워져 있다. 과거 식민지 시절, 이곳에서는 제단이 설치되어 노예들을 대상으로 의식이 진행되었으며, 이는 역사적 상흔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남아 있다. 오늘날, 이곳에서는 순례객들이 기독교적 성찰을 하며 회개와 화해를 경험하는 공간으로 변모하였다.

스윗은 기독교의 이미지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이며, 이미지가 지닌 위대한 영향력을 강조하였다. 이미지와 은유는 복합적이며, 때로는 역설적인 의미를 담을 수 있는 표현 수단이다. 인간의 정신은 은유로 구성되어 있으며, 은유는 사고와 행동을 형성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대 사회에서 셀러브러티 문화는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독교 신앙 역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EPIC 모델에서 강조하는 요소 중 하나는 영성의 지역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다. 스윗은 예수님께서 특정 지역에서 활동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구원하신 점을 강조하며, 신앙의 지역성을 중요하게

여긴다.[35]

또한, 기독교적 셀러브러티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누구나 셀러브러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며, 따라서 기독교 공동체는 긍휼과 사랑이 넘치는 리더십을 가진 이들을 강조해야 한다. 기독교적 셀러브러티는 능력과 권력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 나눔과 희생을 실천하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36]

스윗은 셀러브러티 문화가 때로는 우상화 될 위험이 있음을 경고하며,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를 탈 우상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기독교 신앙에서 아이콘(icon)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창으로 기능해야 하며, 이미지와 현실의 경계를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37]

현대 사회는 이미지 중심의 문화 속에서 신앙을 형성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기독교는 이미지로 시작하여 이미지로 끝나는 종교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자 로고스의 본질이다. 신앙의 종말에 이르면 인간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신앙 교육과 선교의 과정에서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 리더십 형성 과정에서 이미지 중심의 신앙 교육이 강력한 영향을 미친 사례는 이를 뒷받침한다. 신앙의 본질을 경험적이고 관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은유, 상징,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38]

결론적으로, 이미지와 은유는 단순한 표현 방식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과 신앙 형성을 결정하는 요소이다. 신앙 교육과 선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다 창의

---

[35]Ibid., 162.
[36]Ibid., 163.
[37]Ibid., 166.
[38]Ibid., 149.

적이고 직관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며, 이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 기독교 신앙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D. 연결 (Connection)

신앙 공동체이든 기업 조직이든, 특정 공동체의 높은 지능은 고립된 개인이 아닌 관계의 매듭-즉, 그룹(group), 네트워크(network), 단체(organization)에서 비롯된다.[39] 웹 기반 사회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두 개의 개념어는 '연결(connected)'과 '공동체(community)'이다.[40] 현대 사회에서 개인은 지극히 개별적인 동시에 공동체적 경험을 하고자 하며, 영적인 차원에서 삶의 질적 향상과 보다 심화된 유대감 및 공동체성을 갈망하고 있다. 인간은 이웃과 도덕, 그리고 영적 가치가 결합된 연결 구조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자 한다.

동아프리카 출신의 환경운동가이자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왕가리 마타이(Wangari Maathai)는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입니다. 내가 한 모든 일들은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어요. 언제나 사람들과 함께 한 것이었죠"라고 언급하며, 개인의 능력보다 공동체의 힘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아프리카 여성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41]

관계성(connectedness)은 곧 관계의 복음(the gospel of relationships)이며, 이러한 관계성의 복음은 인간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것이 EPIC 모델에서 'C'가 단순히 '공동체(community)'보다는 '관계성

[39]Leonard Sweet, 『관계의 영성』 윤종석 역 (서울: IVP, 2007), 161.
[40]Sweet,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 교회』, 163.
[41]김민경, 『아프리카의 푸른희망 왕가리 마타이』 (서우리잼, 2013), 73.

(connectedness)’ 을 의미하는 이유이다.[42] 즉, 신앙과 삶의 본질은 곧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부터 출발하며, 인간은 본질적으로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를 본질적으로 갈망하며, 자신과 전적으로 다른 문화와 언어로 이루어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발견한다. 이러한 사회적 연합은 단순한 집단적 소속감을 넘어, 인간을 보다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영적이며 관계적인 연합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기독교 문화가 확립되기 이전에는 관계의 친밀도를 형성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으나, 인간은 본질적으로 관계적 존재이며, 개인의 존재는 공동체 속에서 비로소 완성된다.[43] 즉, 인간은 관계 없이는 생존할 수 없으며, 기독교 신앙의 핵심 또한 관계성에 기초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이나 공동체로부터 박해를 받는 자들도 관계를 필요로 함을 시사한다. 관계에서 비롯되는 힘은 치유의 능력을 발휘하며, 가장 온전하고 거룩한 관계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44] ‘관계’와 ‘연결(connect)’은 상호 포괄적인 개념이며 배타적이지 않다.

특히,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들의 관계성과 네트워크는 미래의 공동체를 연결하는 거룩한 큰 그림을 형성하는 리더십 요소로 작용한다.[45] 이들은 관계성을 바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형성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관계 속에서 거룩함과 삶의 변화를 경험해야 할 존재들이다. 그들은 서로를 기뻐하고 축복하며, 대인관계의 역동성을 창출하는 리더십을 지닌다.[46] 따라서 이들이 속한 공간은 단순한 만남의 장소를 넘어, 거룩한 관계를 형성하는 신학적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

---

[42]Sweet,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183.
[43]Ibid., 193.
[44]Ibid., 171.
[45]Ibid., 188.
[46]Ibid., 189.

다.

스윗(Leonard Sweet)은 오늘날의 사회에서 관계 형성을 위한 '제3의 장소(third place)'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스타벅스(Starbucks)의 사례를 통해 설명한다.[47] 그는 스타벅스의 고객 충성도가 커피의 품질보다 오히려 사교적 공간의 제공이라는 미덕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하며, 현대 교회와 기독교 공동체 역시 관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최적의 장소로서 스타벅스의 성공 사례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한다.[48]

제3의 장소는 단순히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를 넘어서 공동체적 경험을 형성하는 공간으로 기능하며,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49] 따라서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들의 리더십 형성을 위해서는 이들이 관계 안에서 제3의 장소가 되어야 하며,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이동하는 개념으로서 존재해야 한다.

관계에 대한 학문적 논의에서, 지그문트 바우만(Zygmunt Bauman)은 "관계는 젖은 모래밭 사이사이에 있는 바위와 같다. 인간의 삶에서 유일하게 영구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맺는 관계다" 라고 정의하였다.[50] 또한, 민속학자 레이 올덴버그(Ray Oldenburg)는 제3의 장소의 필요조건으로 중립적인 공간, 대화의 중심성, 사회적 평등의 촉진, 가정과 같은 편안한 분위기 등을 제시하고 있다.[51]

디지털화가 진행됨에 따라 인터넷 매체는 관계 형성을 위한 핵심 매개체로 기능하고 있으며, 인간 관계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52] 특히, 아프리카 지역

---

[47]Ibid., 175.
[48]Sweet,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 교회』, 176.
[49]Ibid., 177.
[50]Ibid., 179.
[51]Ibid., 180.
[52] Ibid., 188.

에서의 휴대전화 보급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이는 새로운 문화적 원동력을 창출하고 있으며, 인간관계를 재정의하고 있다.

스윗은 “예배(worship service)“라는 개념이 ‘경배(worship)’와 ‘봉사(service)’라는 이중적 의미를 내포한다고 분석하며, 기독교 신앙이 곧 선교적 실천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53] 이러한 맥락에서 기독교 공동체의 본질은 관계성의 신학(the theology of relationships)으로 정리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관계적 진리(relational truth)’를 실천하는 것이 신앙적 삶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53] Ibid., 195.

Ⅳ.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 리더십을 위한 영성 형성 연구사례

연구자는 동·중앙 아프리카 선교 사역 중 다양한 여성들을 만날 수 있었다. 또한 그들을 통해 가난과 인종차별, 그리고 육체적·문화적으로 얽매인 다양한 제약들을 목격하였다. 반면, 강인한 기독교 여성 지도자들도 만나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여성들에게 부여하신 다양한 은사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기독교는 여성들에게 많은 자유와 존경을 제공하는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바라보는 관점은 여전히 여러 측면에서 열등하거나 평등하지 못한 존재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상 사역 동안 많은 여성들을 만나셨으며, 이들에게 관심과 연민을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존중하시고 동등하게 대우하셨다.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는 당시 사회에서 매우 혁신적인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여성관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복음서의 핵심은 소외 계층과 여성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서는 소외 계층을 대표하는 여성들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는 단순히 삶의 의미를 되새기거나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주는 차원을 넘어, 불평등한 사회적 관습을 타파하고 종교적·사회적 질서를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변화는 인간의 평등과 존엄을 실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임을 시사한다.

예수님께서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고통을 받는 이들을 치유하셨으며, 그들에게 자신을 따를 수 있도록 허용하셨다. 또한 예수님은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엄격했던 당시 사회 분위기에서 통념을 깨뜨리시고, 여성을 제자로 삼으셨다. 예수님의 치유 사건은 복음의 시작으로 일컬어지는 마가복음에서 잘 드러나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셨으며,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치시면서 유대 사회

의 남성 중심적 사회 체제의 장벽을 허무셨다.

예수님은 두 렙돈을 헌금한 과부를 칭찬하시며, 부자들의 헌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하셨고, 이를 통해 유대 사회의 기득권을 가진 남성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또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성을 메시아를 알아본 자로 강조하시며, 그녀를 예언자의 직무를 수행한 자로 등극시키셨다. 이에 반해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남성 제자들은 모두 흩어져 도망갔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꾸짖으셨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무덤에 매장, 그리고 빈 무덤에서의 부활 사건을 목격한 세 여성을 중요한 증인으로 등장시키며,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맡겼다. 또한, 예루살렘에서 많은 여성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복음서는 특히 여성을 복음의 주역이자 예수님의 동역자로 묘사하며, 여성 제자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여성들에게 직접 가르치셨으며, 그들을 주변부에 두지 않으셨다. 이는 단순한 치유의 차원을 넘어 여성들에게 교육과 제자도를 부여하신 것이다.

동 · 중앙 아프리카 여성들의 리더십 형성을 위한 영성 개발 사역은 남성 중심의 제도 속에서 여성 지도자들을 세우고 교육하며, 해방을 돕는 과정이기에 상당한 부담과 도전이 따른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의 리더십을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의 기득권을 가진 남성들의 방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 · 중앙 아프리카 여성들을 통해 선교와 제자도를 이루고자 하시며, 이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신다. 즉, 아프리카 여성들은 하나님의 대변자로서의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들이다.

이러한 사역은 연구자의 고유한 은사이자 사명이다. 이는 아프리카 여성들을 인도하고 조직하며 이끄는 일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연구자는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여성들의 리더십 형성을 위한 영성과 교육을 촉진하고자 한다. 여성의 자유와 해방, 그리고 평등한 권위는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실현될 수 있다.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들의 리더십이 비록 천천히 형성되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성들처럼 소명의식은 점점 강해지고 있다.

매년 개최되는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들을 위한 '가르쳐 지키게 하라'(Teaching and Keeping) 컨퍼런스는 여성들의 정체성과 잠재력을 일깨우고, 지도력을 향상시키며, 리더십 개발을 돕기 위한 자리이다. 연구자의 사명 또한 이와 함께 성장해 나가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던 그 길을 따르는 영광스러운 제자의 길을 걷고자 한다. 컨퍼런스의 구성은 실천신학과 신앙 철학, 영성과 교육, 자발적 사명감, 헌신과 봉사, 치유와 상담 목회, 그리고 지도력 개발 등의 요소로 이루어진다.

이 연구는 연구자가 지난 20여 년간 사역해 온 경험과 2024년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 리더십 영성 형성 연구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한다. 연구 사례는 동·중앙 아프리카의 부족 및 공동체적 삶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되며, 사례자의 신원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고, 국가명과 사례자의 이름은 실명 혹은 영문 이니셜로 표기한다.

A. 교육연수를 통한 여성 교육지도자 리더십 형성

동·중앙 아프리카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자의 자질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연구자는 15년 전,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 교육지도자 7명을 한국 N시의 국공립 교육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3개월간 교육 연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는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과 건기와 우기로 나뉘는 열대 기후의 아프리카가 교육을 매개로 만나게 되는 과정이었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연수 교사들은 음식, 기후, 언어, 시차에 적응하기도 전에 한국의 교육 현장에서 한국 교사 및 학생들과 함께 본격적인 연수를 시작했다. 한국의 '빨리 빨리' 문화와 아프리카의 '느림의 미학'이라는 문화적 차이로 인해 상당한 이질감과 괴리감을 느끼는 것도 적응기의 주요 과제 중 하나였다.

연수 교사들은 먼저 한국의 최첨단 교육 현장을 견학하며 교육 환경을 체험하였다. 성장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발달 단계별 교육과정과 체계적인 교육 시설은 연수 교사들에게 놀라움과 감탄, 그리고 부담감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특히, 영양결핍으로 인해 굶주림이 일상인 아프리카의 어린이들과는 대조적으로, 5대 영양소가 균형 있게 갖춰진 식단과 위생적인 환경은 연수 교사들에게 경이로운 경험이었다.

전인적 발달을 위한 소근육 및 대근육 발달을 돕는 예체능 교육 공간은 아프리카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교육 현실이었다.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는 미술실과 음악실은 풍부한 교육 자원의 보고였으며, 체계적으로 구성된 도서관과 다국어 교육이 이루어지는 언어실은 완벽에 가까운 시설이었다. 그러나 야외 놀이 시설과 다양한 식물 및 동물과 함께하는 교육 환경에서는 아프리카 대륙이 더 풍부한 자연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연수 교사들은 각 교과목과 커리큘럼의 체계적인 구성을 보며 놀라워했으며, 이에 대한 질문도 많았다. 특히, 학생들의 자기 주도 학습을 지원하는 교사와 학생 간의 친밀한 관계 형성과 1:1 수업 방식은 인구 밀도가 높은 아프리카에서는 실천하기 어려운 시스템이었다. 연수 교사들은 여러 교육 기관을 방문하며 교육 과정과 교사들의 자질을 비교·분석하고 연구하였다. 또한, 대한민국의 역사와 근현대 발전상, 그리고 미래 비전을 탐구하며 교육·행정·의료 분야의 선진화된 시스템을 경험하였다. 한국 선교 역사를 배우고 서구 선교사들의 발자취를 탐방하면서, 아프리카 역시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되새겼다.

연수 과정은 매일 아침 성경 말씀과 기도로 시작되었으며, 저녁에는 하루 동안의 일과를 나누고 말씀을 적용하는 시간을 가진 후 기도로 마무리하였다. 주일에는 한국 교회를 방문하여 복음이 전파된 역사와 선교사의 발자취를 탐구하고, 한국의 예배 문화를 경험하며 영성을 더욱 깊이 다져갔다.

신학대학과 기독교 대학 교수진의 협력으로, 연수 교사들은 크리스천 교육자로서의 영성과 기독교 교육관, 기독교 교육의 실천 방안을 배웠다. 연수 교사들은 학습 의지와 열정이 높아졌으며, 쉽지 않은 문화 적응 과정 속에서도 배움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연수 교사들은 한국어를 점차 익히며,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흥미로 이어졌다. 교육 연수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교사로서의 자부심이 강화되었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과 미래 비전 계획을 수립해 나갔다.

그러나 연수가 무르익어 갈 무렵, 연수 교사 3명이 연수를 포기하고 관광 후 출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교사들은 연수에 대한 각오와 결심을 다지고 교육 연수에 임할 의지를 갖춘 이들이었다. 따라서 예상치 못한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타문화권에서의 적응과 문명화된 연수가 힘들

수 있지만, 교육 기관과의 협력 속에서 진행되는 연수를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연수를 조기 종료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

연수의 목적과 취지를 다시 설명하고 설득했으나, 세 명의 교사들은 단호한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교육 기관과 연수 교사들이 모두 모여 회의를 한 결과, 중도 포기하는 교사들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하였다. 다만, 연수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관광 활동은 지원할 수 없다는 방침을 세웠다.

결국, 남은 네 명의 연수 교사만 교육을 지속하기로 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연수 과정을 재정비하고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남은 연수 교사들은 점차 한국의 문화에 익숙해졌고, 단체 연수 및 개별 연수에 적응해 나갔다. 한국의 교육 기관 교사들과 학생들 역시 아프리카 선생님들을 따르며 적극적으로 도왔다.

시간이 흐르며 계절이 바뀌었고, 연수 교사들은 한국의 매서운 겨울을 맞이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연수 교사들에게 한국의 한파는 극복하기 어려운 도전이었다. 감기에 자주 걸리며 병원을 찾는 일이 많아졌으나, 이들은 흔들림 없이 교육 연수를 완수하기 위해 인내하며 긴 겨울을 견뎌냈다. 연수 과정이 마무리될 즈음에는 교사로서의 정체성이 더욱 확립되었으며, 한국 교육 네트워크와의 연결도 이루어졌다. 협력 기관의 초청으로 교육 콘텐츠 및 교육 자원 현장 견학이 이루어졌고, 지자체에서는 한국 관광을 지원하였다. 또한, 교육 박람회와 컨퍼런스, 연극과 영화 관람 등의 다양한 경험을 하였다.

연수 과정에서 한-아프리카 교육자들 간의 멘토-멘티 관계도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연수를 진행한 교육 기관에서는 아프리카의 문화와 언어를 교류하였고, 한-아프리카 음식과 춤을 교류하는 등 문화 사절단 역할도 수행하게 되었다. 한국에

서 개최된 ‘세계 도시 축제’에 초청되어 아프리카 10개 도시를 소개하는 민간 대사로서 활동하는 기회도 얻게 되었다. 연수 후반부에는 100개국 이상의 세계인들과 교류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하기도 했다.

이렇게 6개월간의 교육 연수 기간 동안 연수 교사들은 단순한 교육 과정뿐만 아니라, 국경을 초월한 관계 형성과 세계관의 확장을 경험하였다. 연수를 수료하며, 한국의 교육계 리더들과 학생들과의 이별을 준비하였고, 6개월간의 소중한 연수 과정이 마무리되었다. 연수를 마친 네 명의 교사들은 본국에서 연구 및 교육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그중 두 명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H대학교와 Y대학교에서 유학생활을 하였으며, 학업을 마친 후 본국에서 여성 지도자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십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한국에서 교육연수에 참여했던 기관 및 교육계 리더들과의 협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매년 교육 시스템 제공과 컨퍼런스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 교육지도자 연수생>

1) Zaya

동·중앙 아프리카 T국 북부 출신의 교육 연수 교사로 한국에서 6개월간 연수를 받은 Zaya는 이 경험을 통해 세계관이 변화하였다. 현재 그녀는 T국에서 여성 교육 지도자로서 확고한 정체성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국가에 교육적 영향을 활발히 미치고 있다.

한국에서 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Zaya는 아프리카 교육 지도자의 역할이 시급함을 깨닫고 나래 글로벌 너서리 스쿨을 창립하였다. 그녀의 조국은 300여 개의 부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언어가 통일되지 않아 주변국에 비해 교육 수준이 크게 뒤처져 있었다. 이에 Zaya는 다음 세대의 교육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결단을 내리고, 임대 공간을 마련하여 학교를 설립하였다. 현재는 초등 교육을 넘어 세컨더리 스쿨(중등 과정)까지 건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대형 교육 센터를 통해 교육 연구 및 발전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교육자 및 타 지역의 교육 리더십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지도자 교육 컨퍼런스를 개최하며, 국가 교육 발전을 위한 견고한 토대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그녀의 교육적 비전은 곧 국가의 미래 비전과도 직결된다.

Zaya는 동·중앙 아프리카의 미래가 교육에 달려 있음을 깊이 인식하며,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 또한, 교육 연구 발전을 위해 한국 교육 연수에 수시로 참여하며 글로벌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영국인이 설립한 이웃 나라 케냐의 교육 컬리지에서 기독교 교육을 연구하며 학문적 탐구를 이어가고 있다. 그녀는 개인의 삶의 지혜를 교육 공동체와 신앙 공동체 속에서 통합하는 교육 리더십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교육 지도자의 영성 훈련을 강조하며, 교사들의 신앙생활과 영성 함양을 위한 전문 연수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녀의 교육 방식은 신명기적 사관을 바탕으로 말씀 교육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으며, 교사들에게 성경을 통해 교육적 소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연구자는 그녀의 사역을 돕기 위해 수시로 방문하며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교육지도자 Zaya는 이슬람 문화권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공동체와 교사들에게 말씀 연구와 기도 생활을 우선시하는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Zaya의 교육 방식은 유대식 하브루타(Havruta) 학습법을 접목하여, 토론과 논쟁, 질문을 통해 학습자들의 창의적 사고를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교육 방법론의 적용을 위해 이스라엘을 직접 방문하여 다양한 교육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교육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교육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그녀는 가정과의 연계를 통해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어머니 교육’과 ‘아버지 교육’을 위한 공개 수업을 진행하며, 부모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타종교 학부모 및 동료 여성 교육 지도자들과 각 분야의 지도자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공감하며, 이를 사회적 차원에서 해석하여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녀는 기독교 교육을 위한 교사 연구 모임을 이끌며, 교회와 학교에서도 어머니 기도 모임과 여성 기도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은 전문성과 기술력이 중요하지만, 그녀는 무엇보다도 ‘쉐마’ 말씀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자신의 신앙 정체성을 바탕으로 영적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

아프리카 대륙은 교육 성장 속도가 더딘 편이며, 교사의 자질 향상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Zaya의 조국은 교육의 부재와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다음 세대의 잠재적 역량이 크게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족 언어를 하나로 통일하여 '교육 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는 실정이다.

Zaya는 수도권 지역의 교육 전문가들과 연대하여 연구에 몰두하고 있으며, 국가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녀의 궁극적인 비전은 기독교 교육 대학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이며, 이는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 교육자들에게 중요한 모델이 되고 있다.

그녀의 사례는 단순히 지역 사회에서의 교육 개혁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여성 교육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조명 받고 있다. 그녀는 가정이 곧 교회이며, 학교가 되어야 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여성은 교육 지도자로서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교육 기관에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실천하며, 영성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 교육 지도자인 Zaya의 교육 실천 사례는 그녀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 그리고 비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녀의 사역을 통해 우리는 교육이 단순한 지식전달을 넘어, 공동체와 신앙의 기반 위에서 실천될 때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Zaya는 교육을 통해 다음세대를 변화시키고,국가와 지역사회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여성지도자의 모범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동 · 중앙아프리카 교육지도자 120명 컨퍼런스 참여자>

NARAE GLOBAL SCHOOLS

■ Vision Statement

To be a globally recognized Christian institution that transforms lives, equips individuals with divine purpose, and nurtures holistic excellence through faith, wisdom, innovation, cutting-edge technology, and a vibrant co-curricular culture.

■ Mission Statement

Narae Global Schools exists to:Empower students to live God-ordained lives through a Christ-centered and future-focused education.

Cultivate wisdom, knowledge, and cutting-edge skills to inspire transformational leadership in every sphere of influence.

Provide a nurturing and technologically advanced environment enriched with extra-curricular opportunities where purpose is discovered, and excellence becomes a lifestyle.

■ Core Values

1. Faith and Integrity: Upholding Christian principles as the foundation of all actions and decisions.

2. Excellence: Striving for the highest standards in academics, character, innovation, and personal growth.

3. Wisdom: Emphasizing spiritual, intellectual, and practical growth.

4. Compassion: Promoting love, kindness, and service to others.

5. Purpose-Driven Living: Guiding individuals to align their lives with God's unique calling for them.

6. Innovation and Growth: Encouraging creativity, adaptability, and lifelong learning.

7. Technology Integration: Embracing and leveraging modern technology to prepare students for a rapidly evolving global landscape.

8. Holistic Development: Promoting a well-rounded education that integrates academics, faith, and extra-curricular activities for physical, emotional, and social

growth.

■ Critical Factors for Achievement

1. Christ-Centered Curriculum : Developing a comprehensive educational framework rooted in biblical values and principles.

2. Holistic Development t: Integrating spiritual, intellectual, emotional, physical, and technological growth, complemented by dynamic extra-curricular programs.

3. Qualified and Passionate Educators : Hiring dedicated, faith-driven teachers who inspire and lead by example while supporting students' talents beyond academics.

4. Global Perspective : Fostering cross-cultural understanding, global competence, and leadership skills.

5. Advanced Technology : Providing students with access to state-of-the-art tools, digital platforms, and technological resources to thrive in a tech-driven world.

6. Comprehensive Extra-Curricular Activities : Offering diverse programs in arts, sports, music, leadership, and community service to nurture creativity, teamwork, and physical well-being.

7. Future-Ready Education : Designing programs that accommodate and adapt to rapid technological changes while fostering innovation and problem-solving skills.

8. Community Engagement : Building partnerships with families, churches, and communities to create a supportive ecosystem for students.

9. Continuous Improvement : Regularly evaluating and refining strategies to ensure sustainable growth and relevance.

■ Objectives

1. To nurture a Christ-centered environment where students can encounter God and grow in their faith.

2. To deliver high-quality education that balances academic excellence, spiritual growth, technological fluency, and extra-curricular enrichment.

3. To identify and develop each student's unique God-given gifts and talents for personal and societal impact.

4. To inspire servant leadership and a commitment to positively transforming communities.

5. To equip students with modern skills, digital literacy, and knowledge to address global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6. To foster a culture of innovation, critical thinking, and collaboration among students and staff.

7. To provide mentorship and guidance for individuals seeking purpose and direction in life.

8. To offer diverse extra-curricular programs that build leadership skills, enhance creativity, encourage teamwork, and promote physical well-being.

9. To create technologically enhanced learning and recreational spaces that promote adaptability to rapid world advancements.

■ Extra-Curricular Activities Focus

1. Sports and Athletics: Programs to enhance physical fitness, teamwork, and

discipline, including competitive sports leagues.

2. Performing and Visual Arts: Opportunities in music, dance, drama, painting, and other creative outlets to nurture artistic talents.

3. STEM Clubs: Technology and innovation-focused clubs where students can build robotics, code, or explore science experiments.

4. Community Service: Volunteering and outreach programs that instill compassion and a heart for service.

5. Leadership Development: Activities such as student councils, debates, and public speaking to groom future leaders.

6. Outdoor Learning: Camps, excursions, and nature programs to build resilience, teamwork, and a connection with God's creation.

2) 파인 (Fine)

이슬람 이맘의 딸인 파인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연수 교사로 선발되어 한국에서 연수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연수 기간 동안 그녀는 주일마다 배가 아프거나 두통을 호소하며 교회를 가기 싫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6개월의 연수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간 파인은 크리스천 교육자인 남편을 만나게 되었다. 그녀는 현재 기독교 초등학교를 운영하며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창의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실천하고 있다. 몸이 약했던 그녀는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지역 사회에서 훌륭한 지도자로 자리 잡으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한국 연수 기간 동안 파인은 잦은 건강 문제로 병원을 자주 찾았으며, 약을 달고 살았다. 약한 몸은 마음까지 흔들리게 했고, 그녀는 종종 심리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었다. 연구자는 여러 차례 그녀에게 연수를 중단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신중히 권유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정하고 온유한 성품의 파인은 연수 기관의 어린이들을 정성껏 돌보며 교육에 최선을 다했다.

한국 교육 기관의 교사들은 파인이 적응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었으며, 따뜻한 배려와 섬김으로 그녀를 지원했다. 하지만 기후, 음식, 언어 등 모든 것이 익숙하지 않았던 파인은 여전히 자주 아팠고, 연구자는 그녀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다.

그때, 한 크리스천 교육 기관의 대표 여성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녀는 외국에서 공부 중인 딸과 아프리칸 파인이 꼭 닮았다며 연수 기간이 끝날 때까지 파인과 함께 생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연구자가 직접 답사를 가보니, 그녀의 집에는 방 세 개가 비어 있어, 파인이 안정되게 연수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후원자는 다른 연수 교사 네 명에게도 숙소를 제공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이러한 한국 여성의 친절과 배려 덕분에, 연수 교사들은 추운 겨울을 불편 없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다. 또한, 아프리카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시름시름 앓던 향수병과 문화적 충격도 자연스럽게 극복할 수 있었다.

교육연수가 마무리 될 무렵, 파인은 어느덧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며 성장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전처럼 몸이 아프다거나 불안해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내적으로 만나 주시며, 변화시키고 계셨던 것이다.

연수 교사들과 교육 기관장들은 야외 리트릿을 계획하였으나, 이슬비가 내려 실내로 장소를 변경하였다. 간편한 식사로 샐러드, 과일, 빵, 김밥, 치킨, 음료를 준비하고, 작은 선물도 마련하였다.

예배가 시작되었고, 연구자는 마가복음 7장 24~30절을 중심으로 설교하며 성경을 나누었다. 이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셔서 헬라파 이방인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온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치유받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가지만, 예수님은 “자녀(유대인을 의미)가 먼저 배불리 먹어야 한다”(막 7:27)라고 말씀하셨다. 이에 대해 그녀는 굴하지 않고,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것은 겸손하면서도 강인한 믿음의 외침이었다. 이방인이라고 해서 유대인보다 열등한 존재가 아님을 보여주며, 이 사건은 선교의 전환점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한 명의 여인을 통해 이방 땅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적 순간이었다.

말씀이 끝난 후 찬양을 부를 때, 파인의 입술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결국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연구자는 파인의 가족 배경, 환경, 문제 등에 대해 아무것도 알고 있지 않았다. 동·중앙 아프리카에서 그녀를 만난 적도 없었고, 그녀는 자발적인 자신의 선택에 의해 수십대 1의 경쟁을 뚫고 교육연수에 참가한 것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내적 변화를 위해 한국이라는 이국 땅으로 보내셨던 것이다.

6개월간의 연수를 마친 파인은 한층 더 단단하고 밝아진 모습으로 본국으로 귀국하였다. 그리고 얼마 후, 그녀는 개종하였으며, 기독교인 교육 지도자인 남성과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학교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팬데믹 이전,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 지도자 컨퍼런스에서 연구자는 다시 한 번 파인을 만났다.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강인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으며, 교육을 통해 지역 사회와 국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54]

B. “여성 지도자 키우기” MZ 세대 여성 유학생

연구자는 지도자 한 사람의 영성과 인격이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15년 전부터 동·중앙 아프리카 5개국의 MZ세대 유망 인재들을 발굴하여 한국의 여러 대학(신학대 및 일반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연구자는 유학생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직접 후원하였으며, 일부 유학생들은 학교 성적 장학금 및 특수 장학금을 통해 학업을 지속할 수 있었다.

[54] 파인의 신변보호를 위해 사진은 게재하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는 동·중앙 아프리카 5개국의 유학생 중, 박사 과정을 밟고 있거나 졸업한 여성 지도자의 사례를 소개한다. (사례자가 실명 공개를 원치 않는 경우 영문 이니셜로 표기하며, 사진은 사례 내용을 반영한 이미지로 구성된다.)

1) 동아프리카 탄자니아 여성 유학생, 드보라(Debora) 사례

동아프리카 탄자니아 출신의 드보라는 유학생활을 마친 후, 연구자 선교회의 탄자니아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다. 그녀는 자국의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데 깊은 사명감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이 국가 발전의 핵심이라는 확신 속에서 한국 유학을 결심하였다.

목회자의 딸로 자란 드보라는 한국의 B신학대학에서 장학생으로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한 후, S대학교 대학원에서 일반 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현재까지 탄자니아 주한 대사관에서 수년째 근무하며, 한국과 탄자니아 간의 교육 및 외교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드보라는 탄자니아의 교육 지도자들을 한국의 교육 연수 및 포럼과 연결하여, 연수 및 교육 훈련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한국의 우수한 교육 자원을 공유하며 자국의 교육 발전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국의 정부 지도자들의 의전을 직접 담당하며, 정기적으로 한국의 교육 콘텐츠 및 첨단 기술을 소개하는 견학 및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서 12년간의 유학생활을 통해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된 그녀는, 현재 한국어-스와힐리어 통·번역자로도 활동하며, 탄자니아 의회 및 교육 지도자들에게 한국의 문화와 교육 시스템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드보라는 “지도자가 변화해야 아프리카의 차세대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교육을 통해 국가 발전을 도모하는 비전을 실현해 가고 있다. 이러한 철학은 MZ세대 리더십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며, 그녀의 활동은 차세대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본보기가 되고 있다.

드보라는 교육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마사이 부족 여성들과 마사이 학교 교육 문제를 깊이 고민하며, 일반 학생들과 차별 없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녀는 마사이 부족의 자녀들이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마사이 여성 교육과 교사 교육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지역 사회의 전반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열악한 지역에 우물 파기 프로젝트와 학교 건립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국가 교육 및 기초 개발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드보라는 단순한 교육 지도자가 아니라,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글로벌 여성 리더로 성장하고 있다.

현재 드보라는 더욱 발전된 여성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을 확립하기 위해, 한국의 Y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으며, 차세대 리더십 개발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다.

그녀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차세대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 모델을 구축하며, 국내뿐만 아니라 탄자니아 및 아프리카 전역에서 리더십과 교육 발전을 실천하는 것이 목표이다.

드보라는 자신의 비전을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와 탄자니아를 잇는 외교 활동과 교육 발전을 통해 실현해 가고 있다. 그녀의 최종 목표는 본국의 여성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계를 혁신하여 국가의 교육 성장을 이루는 것이다.

그녀는 이러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 국제 교육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차세대 여성 지도자들을 위한 멘토링과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드보라는 MZ세대 여성 지도자로서, 한국에서의 학업과 실무 경험을 통해 탄자니아 교육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녀의 사례는 단순한 개인의 성공을 넘어, 차세대 지도자들에게 교육을 통한 국가 발전 모델을 제시하는 중요한 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

그녀의 비전과 교육철학과 미래 계획을 인터뷰를 통해 들어보자.

<MZ세대 여성지도자 드보라>

<T국의 대통령한국방문 통역 드보라>

<컨퍼런스 강의중인 모습>

Debora Testimonial

Ms. Debora Eric Mukwenda with Her Excellence President Samia Suluhu Hassan of the United Republic of Tanzania in June 2024 During the President's Official Visit and the Korea Africa Summit.

My name is Debora Eric Mukwenda and I was born in Tanzania, East Africa. As the firstborn female from Tanzania, it is a privilege for me to have been born to parents who accept, appreciate and love me, since the both of them opened opportunities for me, irrespective of the fact that I am a girl which has, in turn, shaped and will shape the woman that I am and the woman that I will be in this World. As I have been growing, I have been influenced and assisted by many important people in my life both men and women, where my father played an influential role and support – edging out whilst my mother was a strong supporter and a role model to me as a woman of God. In the year 2009, I got the chance to go to South Korea and study and where I had to take an initiative and be a responsible woman and through different roles and experiences, I am growing towards the woman that God wants me to be. From the year 2013, I got the chance to head short missions' teams of students from Beaksok University to Tanzania – which had huge impact on the lives of children in Tanzania, especially in terms of education and spiritual development.

A photo of short mission educational team from Beakseok University.

Also, in 2024 August I had a privilege to be part of educational leadership Conference which was done in East Africa Tanzania & Uganda which I was a coordinator for Tanzania and the educational leadership forum was focused on women from different communities on how to raise children and find happiness and boost their personal self-esteem in God.

Photo courtesy during the leadership and Educational Conference in Tanzania

I have also been involved in community leadership as the General Secretary of TANROK (Tanzanian Residents in the Republic of Korea) 2016/2017 this gave me a great opportunity to serve my community and also, I learned a lot of skills. As a woman I also faced challenges at that time I was in my early 20's Also there are several stereotypes the society has set for woman which sometimes become standing block.

I have been also being a voice to bring hope to less fortunate groups like the Maasai with water well projects which have been supporting women in Maasai communities who face a lot of hardship due to lack of water which is a basic necessity in some of the rural areas in Tanzania.

At the moment am working at the Embassy of the United republic of Tanzania, Seoul. As a Tanzanian overseas, I am using my experiences to promote my culture and the wealth of Tanzania, sharing with the world all that my country has to offer also being a bridge between the two countries at the same time I am gaining experiences and lessons.

My plan is to continue to serve my Country, be a bridge between Tanzania and Korea. I am also dreaming to pursue a PHD in Education here in South Korea. I believe with the knowledge I will gain I will be able to gain great lessons of how Education transformed Korea and what steps Korea took towards transforming its education systems to be where it is today. I have a vision for the next Generation in Tanzania and Africa at large. Africa being the Young Continent with a large number of its people being Children and teenagers. I believe this age group needs to be equipped we through Education and well cultivated to be the citizens of the world and well-groomed citizens of their nation. I am passionate about education, particularly in the Administrational and policies related to education. I wish to be a person of influence in the sector of Education It will be beneficial for Tanzania to gain insights from other countries, fostering these relationships through bilateral relations. I owe my success to both my home country and the country where I received my Education. In conclusion, my journey as a female leader has just begun in whatever I do am open to learn from remarkable women and leaders who have influenced my path. I have a strong foundation built on Faith in God, resilience and ambition, I am dedicated to using my unique God given talents, strengths to make a significant impact in the world has a I am dedicated to using my unique God given talents, strengths to make a significant impact in the world has a global citizen. My vision

is to elevate Tanzania especially woman and Children and also bridging Tanzania and its people to the world.

2) 동아프리카 T국의 BuKo 여성의 사례

<BuKo와 H대 팔레스타인친구J> <연구자와 MZ세대유학생들> <교육연수모습>

T국 출신의 BuKo는 동·중앙 아프리카 5개국 여성 교육 지도자 양성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에 공개 모집으로 지원하였고, 50:1의 경쟁률을 뚫고 15년 전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 그녀의 고향은 T국에서도 오지 중의 오지로, 5시간 동안 배를 타고 이동한 후, 바지선을 타고 4시간을 더 가야 닿을 수 있는 지역이었다.

6남매 중 맏이였던 BuKo는 배움의 기회를 거의 가질 수 없는 환경에서 성장했으며, 가족의 생계를 돕는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부모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연구자 선교회와 협력하는 교육기관 협회의 한국 연수 프로그램에 지원하여 당당히 합격하였고, 한국으로 연수를 오게 되었다.

BuKo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멀미와 탈진으로 응급 상황을 겪었으며, 낯선 기후와 음식에 적응하지 못해 첫 일주일 동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다. 그러

나 그녀는 체력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연수를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6개월간의 교육 지도자 연수를 성공적으로 수료한 후, 다른 연수생들은 귀국하였으나 BuKo는 여성 지도자로 성장하기 위해 한국에서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보였다. 주변에서도 그녀를 미래 여성 지도자로서의 뛰어난 인성과 신앙, 그리고 리더십 잠재력을 갖춘 인물로 높이 평가했다.

이에 연구자는 그녀가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BuKo는 믿음의 바탕 위에 세워진 한국 소재 H대학교에 입학하여 상담심리학을 전공하게 되었다.

BuKo는 아프리카 여성들이 겪는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정서적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기에,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정체성을 찾아주고 인권을 보호하는 지도자가 되고 싶다는 비전을 품었다.

H대학교에는 다양한 국제 학생들이 유학하고 있었고, BuKo는 영어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환경에서 학업을 이어갔다. 그러나 열대 기후에서 자란 그녀에게 한국의 겨울은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몸이 약하고 정서적으로도 섬세한 그녀는 가족과 고향을 그리워하며 수화기 너머로 눈물을 흘리는 날이 많았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유학생들의 외로움을 헤아리며,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돕는 민간 대사의 역할을 자처하였다. 자신의 마음이 힘들면서도,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그녀의 배려심과 헌신적인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BuKo는 학업에도 최선을 다하여 학기마다 성적이 향상되었으며,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스와힐리어뿐만 아니라 영어도 유창하여, H대학교의 채플 영어 예배를

인도하고, 교수 및 직원들의 자녀들과 지역 사회 어린이 예배 사역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방과 후에는 영어 강사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자신의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은 물론, 고향에 있는 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기도 했다.

방학이 되면,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주최하는 외국 유학생 리트릿에 참여하여 한국의 산과 바다를 경험하며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해 갔다.

H대학교에서 학업을 마친 BuKo는 T국 소재 유럽 S국 대사관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유럽과 자국 간의 국제 관계를 담당하는 여성 지도자로 성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BuKo는 연구자의 동·중앙 아프리카 선교단체인 NGO L/W의 T국 디렉터로 소명의식을 갖고 여성 사역과 차세대 지도자 양성에 힘쓰며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그녀의 절친인 팔레스타인 J는 한국 Y대학교에서 한국어 박사 과정을 밟고 있으며, BuKo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출신 유학생 J가 바라본 BuKo

“H대학교에서 만난 나의 유일한 벗, BuKo를 나는 존경합니다. 그녀가 있었기에, 저는 팔레스타인을 전 세계에 알리고 독립을 위해 끝까지 학업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BuKo는 깊은 영성과 인성을 갖춘 인물입니다. 그녀는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며, 아름답고 따뜻한 배려와 강한 지도력을 동시에 갖춘 여성입니다.
그녀의 지도력은 단순히 아프리카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적으로 평화를 이루는 여성 지도자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녀가 좋은 리더십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것임을 확신합니다.”

BuKo는 아프리카 여성들의 인권과 교육 발전을 위해, 국제 사회와 연대하여 변화를 이끌어 가는 여성 지도자가 되는 것이 목표이다.

그녀는 단순히 자신의 성공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T국의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정체성을 찾아주고, 교육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사명이라고 여긴다.

BuKo의 사례는 단순한 유학생의 성공담을 넘어, 아프리카 여성들이 교육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녀가 앞으로 펼쳐갈 리더십과 교육 사명을 기대하며, BuKo의 이야기를 마무리한다.

VISION AS A FEMALE LEADER

Name: Buko

Major: Counseling Psyclology - H University

As a woman, I am fortunate to possess unique strengths and abilities. I am committed to leveraging these qualities to make a meaningful impact on the world, with a particular focus on my country. My journey began with the guidance of my aunt, who raised me, and continued with my Korean mother and teacher, who supported me during my stay in Korea. As a woman of African descent, navigating life in Korea was challenging, but with the support of resilient and ambitious women, I found my purpose.

Through my Korean mother/guardian, I connected with teachers who became my mentors and eventually close allies. These connections have shaped my vision and resilience, contributing to my current strength and knowledge. I received my education in South Korea, where I built a network of friends and professional contacts.

As a Tanzanian, I aim to use my experiences to promote my culture and the wealth of Tanzania, sharing with the world all that my country has to offer. My plan is to become the Ambassador of Tanzania, using this platform to elevate my country and apply the training and experience I gained in South Korea. I am passionate about education, particularly early childhood, and daycare education. It will be beneficial for Tanzania to gain insights from other countries, fostering these relationships through bilateral relations. I owe my success to both my home country and the country where I received my training.

In conclusion, my journey as a female leader has been shaped by the guidance and support of remarkable women who have influenced my path. With a strong foundation built on resilience and ambition, I am dedicated to using my unique strengths to make a significant impact on my country and the world. My vision is to elevate Tanzania by promoting its culture and wealth, leveraging the education and experiences I gained in South Korea. As an aspiring Ambassador, I am passionate about fostering bilateral relations and enhanc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I am committed to honoring the legacy of those who have supported me and to contributing to the success of both Tanzania and the global community.

3) 동 아프리카 U국의 여성지도자 플로리의 사례

< 유학을 마치고 U국에서 여성교장이 된 플로리와 운영하고 있는 기독초등학교>

동아프리카 U국 출신의 플로리는 장학금 혜택이 많은 한국의 지방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게 되었다. 아프리카에서 교육은 가장 시급한 문제이며, 그녀가 유학한 학교에는 플로리 외에도 동·중앙 아프리카 출신의 여성 유학생 3명이 함께 공부하고 있었기에, 연구자로서 이들을 지원하는 데 상당한 부담이 따랐다.

플로리는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할 교회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해외에서 신학을 공부한 한 목회자를 만나게 되었다. 이 목회자는 외국인 선교를 목회 방침 중 하나로 삼고 있었고, 선교사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며 선교지에서 처럼 신앙 지도를 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러한 약속은 연구자인 선교사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다.

플로리와 유학생들은 교회의 방송실과 찬양대에서 봉사하며, 교회로부터 매달 선교비를 지원받아 생활할 수 있었다. 그녀는 함께 유학 온 친구들과 대학 생활에 적응하며 학업에 충실히 임했다. 그 결과, 학사와 석사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자국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아프리카에서는 직업이 많지 않아, 유학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야 했다. 앞이 막막하던 어느 날, 플로리와 함께 공부했던

한국인 동기가 결혼 축의금을 그녀의 비전을 이루는 데 사용하라며 기탁하였다.

동·중앙 아프리카에서도 U국은 특히 국민의 62%가 어린이 나라이다. 플로리는 자국의 교육을 위해 학교 건립을 결심하였다. 그러나 학교를 건축하고, 필요한 비품을 마련하며, 인허가를 받기에는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립보서 4:13)는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중단될 위기에 처했던 학교 건립은 익명의 후원자들의 크고 작은 도움으로 계속 진행되었으며, 마침내 초등학교가 완공되었다.

플로리는 신앙과 인성이 훌륭한 교사들을 선발하여 임용하였고, 컨테이너를 이용해 도서 및 수업 자료를 운송하여 교육 환경을 점차적으로 갖춰 나갔다.

플로리는 단순히 학교를 설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사들을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수업 기자재를 첨단화하며, 학생들을 사랑으로 지도하는 여성 지도자로 성장해 갔다.

그녀는 학부모 교육을 비롯하여, 지역 사회의 어머니 교육과 여성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타 학교들과 연계하여 교육 세미나를 개최하고, 학교의 커리큘럼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켰다.

또한, 끊임없는 자기 계발과 연수를 통해 교육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하였다.

플로리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이 아니라, 신앙 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다. 그녀는 학교 내에 예배당을 건축하고, 학생들에게 성경 공부와 채플을 제공하며, 신앙과 교육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그녀의 학교에서 교육받는 300여 명의 어린이들은 장차 국가와 민족을 이끌

어 갈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할 것이며, 플로리와 같은 여성 지도자들이 더 많이 배출될 것이다.

플로리는 단순한 교육자가 아니라, 아프리카의 미래를 위해 교육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 가는 리더이다. 그녀의 노력과 헌신은 U국뿐만 아니라, 동·중앙 아프리카 전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을 넘어, 믿음과 교육을 통해 국가를 변화시키는 여성지도자의 모범 사례로 남을것이다.

4) 동/중앙 아프리카 B국의 여성지도자 샤니스의 사례

< 동/중앙 아프리카 'MZ세대 지도자 키우기' 유학프로젝트 샤니스와 찬양단 >

연구자의 선교단체인 NGO L/W의 B국 디렉터로 활동하는 샤니스(Shanice)는 E여대 여성 지도자 양성 프로젝트의 최빈국 여성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국제 관계학을 전공하게 되었다. 그녀의 부모님은 B국 감리교회의 장로로 신앙이 깊은 가정에서 성장했다.

B국은 아프리카에서도 최빈국에 속하는 아주 작은 나라이다. 식민지 시기, 유럽의 V국은 중동부 아프리카에 위치한 R국과 B국을 지정학적 고려 없이 강제 분리 정책으로 R국의 많은 부족이 B국으로 강제 이주 당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다. 자원과 인프라가 부족한 B국은 오직 인적 자원에 의존하여 국가를 운영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샤니스는 열악하고 비참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여성 리더로서 국제 관계를 구축하는 지도자가 되겠다는 비전을 품고 한국 유학을 시작하게 되었다.

샤니스는 언어 장벽을 극복해야 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과 기숙사 생활을 병행하며, 주일마다 대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지속하며 한국 사회에 적응해 나갔다.

E여대에서 유학하는 동안에도 그녀는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잃지 않았고, 2013년 한국에서 동·중앙 아프리카 유학생들과 함께 ‘샬렘 워십팀(Sallem Worship Team)’을 창설하여 복음 사역을 위한 리더로 순회찬양을 시작했다.

아프리카 유학생 찬양팀은 대한민국의 각 교단과 교계, 교회와 전국 대학의 축제 행사와 각 지자체 행사 및 외교 및 국제 행사 등에 초청을 받아, 아프리카어, 영어, 불어, 한국어로 찬양과 춤, 전통 악기를 활용한 선교 및 외교 활동을 펼쳤다. 또한, 주말과 방학 기간에는 전국을 순회하며 찬양 캠프사역을 지속하였다.

8년간 샬렘 워십팀의 찬양순회사역은 팬데믹의 영향으로 중단되어 구성원들은 본국으로 귀국하거나 취업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활동이 멈추게 되었다.

2022년, 샤니스의 남편 프랑크가 외국인 기업 주재원으로 한국에 발령받으면서,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사역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에 따라, 샤니스는 새로운

찬양팀 ‘희망의 목소리(Hope Voice)’를 창설하고 현재 리더로 활동하고 있다.[55]

Hope Voice Ministry는 단순한 찬양팀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전하는 사명을 수행하는 기독교 단체이다. 이 사역의 핵심 목표는 예배자와 예배 리더를 훈련하고 멘토링하며, 복음을 실천하는 데 있다.

샤니스의 사역은 단순한 찬양 활동을 넘어, 동·중앙 아프리카 4개국(부룬디,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에서 고아와 노숙자, 그리고 위험에 처한 젊은이들을 위한 지원 활동과 아프리칸 장학사역으로 확장되었다.

그녀는 Hope Voice를 통해 후원금을 모아,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음식과 학비를 제공하며, 신앙을 기반으로 한 멘토링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샤니스의 비전은 복음을 통해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이를 위해 예배 사역, 리더십 훈련, 후원 활동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샤니스는 단순한 찬양 리더가 아니라, 여성 지도자로서 차세대 리더들을 양성하는 데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예배뿐만 아니라, 신앙을 통해 사회적 변화와 복음 전파를 이루는 것이 목표이다.

샤니스의 예배사역은 복음사역을 통한 사회변혁이다. 그녀의 사역을 통해, 아프리카 여성 지도자들이 교육과 신앙을 기반으로 국가와 지역 사회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녀의 최종적인 비전이다.

---

[55]Hope Voice Ministry2013년 한국에서 설립된 기독교 단체로, 샤니스와 그녀의 남편 프랑크가 유학생들과 협력하여 서울에서 시작하였다.Hope Voice의 사명은,

- 예배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 캠퍼스에서 자살과 정신적 억압과 싸우는 한국의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 새로운 세대의 예배자와 예배 지도자를 돕고 훈련하며 멘토링하는 것

Hope Voice는 한국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동·중앙 아프리카 4개국(부룬디,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B국)의 고아와 노숙자 및 위험에 처한 청소년들을 위한 후원 및 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자세한내용은공식웹사이트에서확인할수있다: www.hopevoicem.com

Vision Statement

It is more than an honor to write about the need and impact that an increase in women leadership can bring into developing countries in general and Burundi in particular, where I am from.

I was born during a period of war. In the darn of 1990s, a civil war started in my country that lasted more than a decade. Along the years they have been plans and strategies of how to restore peace and stability in the country. New political parties, new economic strategies, negotiations after negotiations for a stable country.

From a cultural background. Women are usually excluded in leadership or conflict resolution roles. However, after a decade of war and conflict, the most affected are the most vulnerable: the women and children. Not because of the incapabilities but because of the roles that they are allocated and the resources (education, financial wellness, mentorship, professional networks) that they are not given.

Thanks to many works done including this thesis by Mrs. Missionary Esther to help raise awareness of the need of an increase in women leadership from small communities to the country level, more women will be emancipated and included in leadership roles. My personal vision is to work in the education area. For I firmly believe leadership is not inherited but it can be learned and taught.

I am currently working alongside my husband in a ministry called “Hope

voice”[56]. Where our focus is on young people. Empowering young men and women that there is more to achieve and to contribute to this current generation.

5) 중앙 아프리카 C국의 엘라 여성의 사례

중앙아프리카 C국의 전통 무용단에 속한 반군 자녀 엘라는 열아홉 살에 한국 세계문화축제에 초청된 동·중앙아프리카 전통 무용단 단원으로 한국 땅을 밟았다. 한달간 진행된 세계 전통 춤 축제인 세계대회가 끝나고 출국을 앞둔 즈음에, 엘라의 고국 C국에서 반군과 정부군 간의 내전이 발생했다. 신분상의 이유로 엘라는 고국으로 돌아가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어 출국을 보류해야 했다. 내전이 끝나야만 귀국할 수 있었기에 그는 한국에서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한국 체류를 위한 비자가 필요했다. 어렵게 후원자를 구해 Y대 한국어 과정에 입학을 시켰다.

엘라는 한국어를 배우며 C국 내전이 종식되기를 기다렸지만, 내전은 좀처럼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한국어 과정이 연장되면서 어느덧 1년이 흘렀다. 하지만 불어를 사용하는 엘라는 한국어 실력이 거의 늘지 않았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유학생들은 대학 입학 전 1년 동안 한국어 과정을 이수하고 한국어 능력 시험을 통과하는데 비해 엘라는 언어 실력의 향상도, 한국어 자격 취득도 하지 못했다. 엘라는 “왜 한국어를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동기가 부족했고, 공부에 대한 의지가 있는 상태에서 온 것도 아니었다. 나라의 상황은 내전이 계속되면서 엘라의 체류 기간은 길어만 갔다. 비자 연장이 필요한 시기에 엘라가 학업에 대한 의지를 보

이지 않는다며 후원자는 후원을 철회했다.

설상가상으로, 엘라가 숙소에서 짐을 싸서 사라졌다는 고시원 주인의 긴급전화를 받게 되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공부하는 아프리카 유학생들에게 단체 공지를 띄워 긴급 상황을 알렸다.

엘라의 실종은 한국 내 아프리카 유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도 있는 문제였다. 유학생들은 엘라를 찾기 위해 비상 연락망을 가동했다. 무엇보다도 엘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하루가 지나자 모 지방 대학 행정실에서 연락이 왔다. 엘라가 그 대학 기숙사에 몰래 숨어 들었다는 것이었다. 즉시 지방으로 내려가 엘라를 만났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제발 고국으로 돌려보내지 말아 달라”고 간청했다. 또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다시 후원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처음으로 공부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듯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공부보다는 전쟁으로 황폐해진 고국으로 돌아가기 싫다는 절박함이 더욱 강하게 담겨 있었다.

연구자는 엘라의 가정사와 고국에서의 학력 여부를 확인한 뒤, 다시 후원자를 찾아 비자와 거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결국 엘라는 정식으로 한국어 과정을 다시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 엘라의 어머니는 중앙아프리카 C국 감리교 여선교회 전국 회장으로 헌신하고 있었다. 엘라의 상황에 지치고 심적으로 고갈된 연구자는 그의 미래와 부모를 생각하며 새로운 후원자를 찾아 한국에서 유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왔다.

기적적으로 엘라는 조선 근현대사 속에서 여성 교육을 위해 설립된 A여대의 특채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공부할 기회를 얻었다. A여대는 교육 환경이 열악한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특별 전형을 운영하고 있었고, 엘라는 C국 출신 여학생 한 명을 선발하는 프로그램에 합격했다. 언제나 생명의 위협을 받아온 신분이였던 엘라

는 최빈국 출신이었지만, 세계적으로 명성 있는 여자 대학에서 공부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연구자는 학기마다 서울부터 지방까지 유학생들의 학사 및 생활 상태를 점검했다. 그러나 엘라의 유학생활은 늘 불안했다. 과연 엘라가 졸업할 수 있을까? 비전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 특히 여성과 어린이를 위해 일할 수 있을 것인가? 연구자는 한국에 있는 C국의 유학생들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 엘라의 대학에서 만남을 주선했다. 연구자의 후원으로 공부하는 유학생들은 모두 학업에 몰두하며, 고국으로 돌아가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강한 결의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엘라는 그들과는 사뭇 다른 태도였다.

모임에 나온 키가 큰 엘라는 빨간 미니스커트에 롱 굽 구두를 신고, 빨간 귀걸이와 립스틱, 긴 손톱에 빨간 매니큐어까지 한 채, 한 손엔 빨간 가방, 또 한 손엔 스타벅스 커피잔을 들고 있었다. 마치 국제 패션쇼 무대에 선 모델처럼 방긋 웃으며 걸어왔다. 같은 나라 출신의 20대 청년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엘라는 철저한 선발 과정을 거쳐 한국에 온 유학생이 아니었으며, 아직도 오늘의 삶을 신기하게 받아들이는 철없는 젊은이처럼 보였다.

스무 살이 갓 넘은 엘라는 문명화된 사회에서 꿈 같은 대학 생활을 누리고 있었다 . “너는 C국의 젊은이로서 한국에 빚을 졌으며, 너의 나라를 위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일깨웠다.학기가 지나 연구자는 엘라에게 진지하게 질문했다. *“엘라, 졸업후 네나라로 돌아가면 무엇을 할 것이며, 여성리더십을 어떻게 활용 할 것인가? 어떤 여성이 되고 싶은가?”*

엘라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그는 문명 사회에서의 즐거움과 편안함이 자신의 전부가 될 수 없음을 깨닫고 있었다. 내전 속에서 성장하며 트라우마에 시달

렸던 그는 안정적인 가정과 따뜻한 가족이 필요했다. 연구자와 후원자들은 엘라가 명절이나 생일을 함께 하며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왔다. 엘라는 점점 정서적으로 안정되었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믿음과 신뢰를 갖게 되었다.

졸업을 앞둔 어느 날, 엘라는 연구자에게 물었다. "마마, 제가 어떤 여성지도자가 되어 조국과 민족을 위해 기여하면 좋을까요?"

C국은 연구자가 방문할 때마다 더욱 악화되고 있었다. 내전과 자연재해, 극심한 빈곤 속에서 가장 큰 희생자는 여성과 어린이들이었다. 연구자는 답했다.

"네가 불어권 국가에서 더 공부하여 UN에 들어가, 너의 나라 여성과 어린이들의 현실을 세계에 알리면 좋겠다. 그리고 아프리카 전체의 여성과 어린이들을 위해 일해라."졸업 후, 엘라는 유럽의 불어권 선진국으로 장학금을 받아 유학을 떠났다. 수년 후, 박사 과정을 마친 엘라는 연구자에게 연락을 해 왔다.

"마마, 저 엘라예요. 저는 아프리카 여성지도자로 국제포럼에서 연설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일을 하려고 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엘라는 자신의 자리에서 아프리카를 사랑하는 여성 지도자로 성장했다.[57]

C. 교육계 및 공동농장 여성지도자 리더십연구 실천

1) 새마을 학교 여성 교장의 사례

57 [illegible]의

<새마을학교 여성교장H와 고아로 구성된 전통공연단>

U국의 연구자는 H에게 새마을운동 정신을 전수하며, 그녀를 지역 여성 지도자로 임명했다. 또한, 그녀가 새마을운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아기 돼지 두 마리를 선물했다. 돼지는 초식 동물보다 사육이 까다롭지만, H에게는 이 돼지 두 마리가 그녀의 꿈과 비전을 실현할 중요한 자원이 되었다.

H가 살고 있는 마을은 빈민가로, 고아가 많은 지역이다. 그녀의 미션과 비전은 고아, 결손가정 아이들, 그리고 극빈층을 위해 일하는 것이었다. 어려운 길이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돼지를 잘 키운 수익으로 몇몇 결손가정 아이들과 극빈 청소년, 그리고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비록 허름한 창고에서 시작한 학교였지만, H는 그곳에서 예배 교육과 성경공부를 진행하며, 근면 · 자조 · 협동의 새마을 정신을 가르쳤다. 또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가고시를 치를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했고, 학생들에게 1인 1악기를 가르쳤다. 문화 교실도 운영하여 북 제작, 캔들 공예, 유리병 공예 등을 통해 고아들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왔다.

한편, 연구자는 한국의 결손가정 청소년들로 구성된 40명의 브라스 밴드를 인솔해 동 · 중앙아프리카 4개국을 순회하며 문화 복음화 사역을 펼쳤다. 이때, H를 주정부 여성 지도자로 초청했고, 그녀가 운영하는 고아 공동체 전통예술단도 참가할 기회를 주었다. 이들은 H의 나라 지도자들 앞에서 공연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그 이후, H의 고아 공동체 전통예술단은 국가의 크고 작은 행사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고, 점차 국가적으로 인정받는 문화예술단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그녀가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들은 국가고시에서 당당히 1등을 차지하며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H의 여성 리더십은 두드러졌고, 그 영향력은 점점 커져갔다. 20년 동안 여성 교육자로 수많은 어려움을 겪은 그녀는 결국 학교를 설립하는 꿈을 이루게 되었다.

그녀는 돼지 사육을 통한 수익으로 '하버드 새마을 학교'를 건축했다. 나무로 지어진 작은 건물 두 개로 시작된 이 학교는 처음 53명의 학생을 모집하며 운영을 시작했다. 하루 운영비가 적지 않았지만, 학부모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며 관리와 책임을 맡았고, 소규모의 후원금도 모금했다. 학생 수는 날로 증가했다.

H의 미션은 도덕적 · 종교적 가치관을 갖춘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공동체와 이웃을 위해 근면 · 자립 · 협동의 정신을 실천하는 생산적인 시민을 길러내는 데 집중했다.

연구자는 매년 동 · 중앙아프리카 교육 지도자 컨퍼런스에서 H의 고아 공동체 자립 사례와 하버드 새마을 학교의 비전을 발표할 기회를 가졌다. H의 창의력과 추진력은 국가 여성 지도자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여성 리더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그녀의 리더십은 가난한 청소년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었다.

동 · 중앙아프리카의 인구 구성은 전체의 62%가 25세 미만의 청소년과 아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H가 운영하는 고아 공동체는 단순한 복지 기관이 아니라, 꿈과 비전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는 지상명령(선교)에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과도 연결되어 있다.

현재 H는 "나라의 힘은 아이들에게 있다"라는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하버드 초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 학교는 기존의 초등학교와 차별화된 커리큘럼을

운영하며, 10여 명의 분야별 교사들이 국정 교과목 9과목과 신앙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리더십을 심어주고 있다. 학생들은 몸과 마음으로 근면 · 자조 · 협동의 새마을 정신을 익히고 있다.

H는 매년 교육 지도자 컨퍼런스에 참석하며 새로운 교육 모델을 연구하고, 미래 교육을 창조해 나가고 있다. 그녀가 세운 학교는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좋은 사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그녀는 교장으로서 지역 사회에서 여성 리더십의 모범이 되고 있으며, 여성 지도자들의 정체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돕고 있다. 그녀의 리더십은 창조성과 영향력을 발휘하며, 지속적인 선교의 사명을 실천해 가고 있다.

하지만 H의 학교는 좁은 부지와 제한된 시설로 인해 학급을 증설할 수 없는 문제를 겪고 있다. 과밀 학급은 학업 성취도와 전반적인 교육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 정부에서는 학교 확장을 권장하고 있지만,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라 H는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 그녀는 더 나은 자원과 시설을 확보하여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할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에게 보다 편안하고 유익한 학습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확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H는 지역 사회 구성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지역 라디오 방송, 학교 배너 광고, 전단지 배포, 표지판 설치, 직통 전화 운영 등을 활용하여 학교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또한, 교육, 금융,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 교육위원회를 설립해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녀는 확장 프로젝트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예산을 수립하고 있으며, 우수한 교사 및 직원을 채용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학교 운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급여, 시설, 교재, 운영 비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H는 ‘하버드 커뮤니티 스쿨’이라는 더 큰 비전을 가지고, 마케팅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하여 학생 등록을 확대하고, 학업 성취도를 높이며,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학교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학교 부지가 좁아 컨테이너를 들여오거나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점, 지역 도로 인프라가 미비한 점, 대부분의 학부모가 미혼모이거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인 점 등이 문제로 남아 있다.

H는 연구자에게 “학교에 기술 교육을 위한 재봉틀 한 대조차 없으며, 데이터를 저장하고 학습을 진행할 컴퓨터도 없어 안타깝다”고 털어놓았다. 여전히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그녀는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

H는 지역 주민과 학부모들에게 자금을 요청해 영구적인 교실 건물을 마련하고, 보안 시설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또한,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식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예산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녀는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손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취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끊임없는 도전에 나서고 있다.

H의 여성리더십은 정부에서도 관심대상과 권장사례로 되고 있다.

<새마을 학교 축구부>

<새마을초등학교 전교생>

2) 동·중앙 아프리카 U국의 여성지도자 리즈의 사례

< 살렘크리스챤 스쿨 전경과 리즈 여성교장 >

동아프리카 U국의 여성 지도자 리즈는 2014년부터 370명의 크리스천 스쿨 교장과 교회 교육목사를 겸임하며 활동하고 있다. 초등학교 교장인 부모 슬하에서 성장한 리즈는 신앙심이 깊고,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났다.

그녀는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학습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매일 교육 회의를 열고, 지도력을 연구하며, 크고 작은 세미나와 심포지엄을 주최했다. 언제나 솔선수범하며 교사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리더로서, 그녀가 운영하는 학교는 U국에서 월등한 성과를 거두며 교육의 모델이 되었다.

U국에서는 초등과정을 마친 후 국가고시에 합격해야만 초등학교 졸업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리즈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신앙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세 가지 교육 철학을 실천하고 있다.

리즈는 신앙 교육의 일환으로 성경 암송 교육(쉐마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연구자가 매년 동·중앙아프리카 교육계 지도자들을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할 때, 리즈는 포괄적이고 정확한 학습 자료를 공유하고, 교육 지도자들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교육기관들과 협력하고 있다. 그녀의 리더십은 합리적이며 개방적이고, 함께 성장하는 교육을 지향한다.

리즈는 '사랑'의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스마일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웃는 얼굴을 유지하는 것이 주는 기쁨과 행복, 창조력과 잠재력의 발달, 그리고 정서적 안정과 평온함이 아이들의 자존감과 정체성 확립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며 부모 교육과 가정 통신문을 병행하고 있다.

그녀는 아이들의 정서적, 인지적, 신체적, 심미적 감각 발달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으며, 교사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동아프리카 U국에서는 부모가 아이들에게 미소를 잘 짓지 않고, 체벌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리즈는 부모와 자녀의 스트레스 관리를 돕기 위해 부모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부모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녀에게 미소를 짓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

도록 지도하고 있다.

리즈는 학부모들과 함께 *Mom's Prayer*라는 기도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부모들이 가족과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며, 학부모들이 윤번제로 기도 모임을 이끌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교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학부모들의 신앙적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리즈의 독창적인 학교 운영 방식은 기존의 세속적인 교육 시스템과는 차별화된다. 그녀는 가정과 학교, 부모와 자녀가 상호작용하며 연대하는 교육을 지향한다. 질문과 응답이 자유롭게 오가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며,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리즈의 리더십 아래, U국의 교육은 신앙과 사랑, 그리고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고 있다.

3) 동 아프리카 U국의 여성목회자 Mari의 사례

<마리목사의 교회와 '학교 보내기' 프로젝트인 염소뱅크 모습>

동아프리카 U국의 마리 목사는 무슬림 마을에서 사역하는 여성 목회자이다.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난 그녀는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남편과 이혼당했고, 10살 된 딸과 함께 여러 곳을 떠돌아야 했다. 당시 미국의 브렌치 신학교를 운영하던 연구자는 그녀에게 신학을 공부할 기회를 제공했다. 마리는 열심히 공부한 끝에 졸업 후 목사 안수를 받아 여성 목회자가 되었다.

10년 전, 연구자는 마리의 마을에 교회를 건축하고 그녀를 담임목사로 임명했다. 그러나 이 지역은 가부장적 문화가 강하고, 여성의 지위가 낮게 여겨지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여성 목회자의 권위는 남성 목회자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연구자는 여성 목회자의 역할과 권위가 존중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에 마리에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하여 실행하기로 했다.

마리 목사가 사역하는 마을은 수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지역이었다. 교육을 받지 못한 부모들은 생계가 막막하여 안정적인 직업도 없었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특히 이 지역은 무슬림 공동체가 형성된 곳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적 접근도 쉽지 않았다. 이에 교회를 중심으로 ‘학교 보내기 염소 뱅크’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했다.

마리 목사는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기에, 마을 공동체를 따뜻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품었다. 프로젝트를 통해 각 가정에 염소 한 마리씩을 분양했다. 염소는 초식동물로 푸른 초원에서 쉽게 기를 수 있었으며, 젖을 짜서 우유를 판매함으로써 가정의 소득을 창출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였다.

몇 개월 후, 연구자는 마리 목사의 마을을 방문했다. 그러나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분양된 집집마다 염소가 한 마리도 남아 있지 않았다. 극심한 가난 속에서 당장 먹을 것이 없었던 가정들은 염소를 모두 잡아먹은 것이다.

마리 목사는 깊은 죄책감을 느꼈고, 연구자에게 미안해했다. 이에 연구자는 분양을 받은 가정들을 모두 교회로 불러 모았다.

"여러분은 염소를 잡아먹은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꿈을 잡아먹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으로 인해 아이들에게 공부할 기회도, 내일을 향한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당혹스러워하며 몸 둘 바를 몰라 했다. 그러나 아프리카 사회는 토론 문화가 잘 형성되어 있다. 연구자는 주민들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열린 토론의 장을 열었다.

토론 끝에 마을 주민들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며,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연구자는 그들의 진정성을 믿고, 마리 목사와 깊이 논의한 끝에 두 번째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

이번에는 가정당 염소 두 마리씩을 분양하고, 새끼가 태어나면 두 마리를 반환하는 규정을 세웠다. 첫 번째 시도는 실수와 실패로 끝났지만, 마리 목사는 이를 교훈 삼아 더욱 적극적으로 마을을 방문하며 주민들과 소통했다. 그녀는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정마다 찾아가 사랑으로 격려하고,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책임감을 심어주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교복을 입고 삼삼오오 학교로 향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다. 마리 목사는 어느새 마을의 지도자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마리 목사가 담임하는 교회는 단순한 예배 장소를 넘어 마을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교회는 마을의 크고 작은 행사, 축제, 선교원 운영, 방과 후 성경 공부를 위해 문을 활짝 열었다. 학부모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짜파티(현지 음식)와 염소 우유로 아이들에게 간식을 제공했다.

교회를 중심으로 여성 모임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고, 아이들은 성장하며 마을의 기둥으로 자라났다. 지역 사회에서도 점차 여성 목사를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분위기가 사라지고, 오히려 그녀를 환영하고 존중하는 모습으로 변화했다.

이렇게 무슬림 마을에서 무슬림 출신으로 성장한 마리 목사는 여성 지도자로서의 영향력을 확고히 다져나가고 있었다.

마을에서는 날마다 기도 모임이 열리고, 성경 공부가 활성화되었다. 염소의 울음소리와 아이들의 노랫소리, 춤추는 모습이 어우러져 마을을 더욱 활기차게 만들었다.

과거, 무슬림 출신이라는 이유로 핍박 받고 떠돌이 생활을 해야 했던 마리 목사는 이제 한 마을을 변화시키는 지도자가 되었다. 그녀의 사랑과 헌신이 만들어낸 변화는 단순한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희망이 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한마리의 염소에서 시작되었다.

4) 중동부 R국의 기술학교 여성지도자 프라하의 사례

<쏘잉스쿨 교수인 프라하와 수업중인 쏘잉스쿨 1기생>

R국의 프라하는 홀로 네 명의 자녀를 키우는 과부이다. 연구자는 그녀의 신앙과 인성을 높이 평가해 기술학교 교장이자 지도 교수로 임명했다. 프라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의 전문적 재능을 기부하고자 하는 헌신적인 인물이다.

R국은 작은 나라로, 면적이 넓지 않아 생산 여건이 원활하지 않으며, 보유 자원이 부족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종족 간 전쟁으로 인해 최빈국에 속한다. R국의 국민들은 대체로 부지런하고 성실한 성향을 지니고 있다. 자원이 부족한 국가로서 기술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 정책적으로 매우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 간의 빈부 격차를 해소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10대와 20대 청년들에게 적합한 직업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자는 재봉 기술학교를 설립했다. 조혼(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문화)으로 인해 일찍 과부가 된 여성이나 소녀 가장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했다. 학생선발은 50: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많은 지원자가 몰렸다. 프라하의 지도력은 뛰어났다. 기술학교 학생들이 졸업 후 어디서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신앙을 기반으로 수준 높은 커리큘럼을 운영하며 학생들을 지도했다.

수업 과정은 총 3학기로, 1년 6개월 동안 진행된다. 학생들은 그룹 또는 개인별로 포트폴리오를 제작하고, 패션쇼를 졸업 요건으로 포함하여 디자인 실력을 검증받는다. 출석률과 학점을 충족하고 졸업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면 졸업이 가능하다. 졸업생에게는 재봉틀 1대가 선물로 증정된다.

기술학교 교장인 프라하는 학생들의 생활 지도뿐만 아니라 디자인 교육과 함께 불어, 영어, 스와힐리어, 스페인어 등 다양한 언어를 가르친다. 또한, 학생들의 인격 성장을 돕기 위해 지역 장애인을 돕는 봉사 활동을 필수로 했다. 장애인 병원에서의 봉사는 일주일에 최소 두 번 이상 진행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참여할 수

있다.

식사는 학교 마당에서 직접 재배한 농산물로 해결하며, 아침과 저녁에는 학생들이 윤번제로 채플을 담당한다. 단계별 디자인 수업의 결과물로 에코백과 교복을 제작하여 판매하며, 그 수익금은 어려운 아이들이나 고아를 돕는 데 사용된다.

동·중앙아프리카에서는 교복을 입어야만 등교할 수 있다. 쏘잉 기술학교의 이러한 교육 모델이 널리 알려지면서, 선교적 기술 교육이 탄탄한 구조와 명성을 갖추게 되었다. 졸업생들은 디자이너나 패션 연구원으로 채용되거나, 함께 패션 마켓을 운영하기도 한다. 또한, 여러 명이 모여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며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R국의 여성 지도자인 프라하는 청년들의 롤모델이 되고 있으며, 그녀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기술학교는 7회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팬데믹으로 인해 4년간 휴강한 후 2024년에 재 개강했다. 졸업생의 사례와 비전을 소개한다.

졸업생 사례 1: N의 이야기

수도에서 8시간 떨어진 시골에 사는 N은 지역의 전통에 따라 어린 나이에 결혼했다. 10대 남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그녀와 두 자녀는 매일 끼니를 걱정해야 했다. 결국 아이들을 부모님께 맡기고, 1년 6개월간 진행되는 ‘쏘잉스쿨’에 도전했다.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후,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밤낮으로 기술 교육에 매진했다.

프라하는 단순한 기술 교육뿐만 아니라, 언어 교육, 인성 교육, 신앙과 영성을 위한 성경 교육, 재정 교육까지 지도했다. N은 열심히 공부했고, 졸업장과 함께

재봉틀 1대를 선물로 받아 고향으로 돌아갔다.

“지금 저는 고향에서 작은 디자인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훌쩍 자랐고, 큰아이는 학교에 보내고 작은아이는 유치원에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생계를 걱정하느라 아이들의 교육을 고려할 수조차 없었지만, 기술을 배우고 나니 삶이 변화했습니다. 교복을 직접 만들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되었고, 가게 운영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여성들이 마을에 많습니다. 교회 마당을 빌려 1주일에 한 번씩 희망을 나누고, 한 달 생계비를 제외한 수익은 저축하여 재봉틀을 구입하고 기술 교육을 위한 학교를 열 계획입니다. 저는 우리 마을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을 더욱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공동 도서관과 공동 작업장을 마련하기 위해 주 정부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졸업생 사례 2: A의 이야기

A는 약간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가족은 생계를 꾸리느라 바빴고, 그녀에게 신경 써줄 여유가 없었다. 늘 우울했고, 희망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 T국과의 국경 근처에 살던 A는 지역 교회 담임 목사님의 추천으로 특별 입학하게 되었다.

입학 후 첫 주 동안은 배우려는 의욕도 없이 멍하니 시간을 보내기만 했다. 연구자와 프라하는 그녀를 기다려주기로 했다. 동료들도 친절하게 그녀를 도와주었다. 중도 포기할 것만 같던 A는 결국 1년 6개월의 과정을 완주하며 졸업했다.

졸업 후 그녀는 선물로 받은 재봉틀을 꼭 안고 가족에게 이 소식을 전하려 시골행 버스에 몸을 실었다. 얼마 후, 그녀에게서 손 편지가 도착했다.

“기다려 주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졸업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졸업식 날, 가족들이 함께 기뻐하며 울었습니다. 존재감이 없었던 제가 이제는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내 기술은 재봉틀 위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가족의 옷을 만들어 주고, 옷을 판매해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몇몇 후원자들과 함께 생리대가 없는 소녀들을 위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을은 활기를 되찾았고, 유대감도 깊어 졌습니다. 저를 기술학교로 이끌어 주신 교회와 목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졸업생 사례 3: J의 이야기

J는 여전히 내전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서 살아가는 20대 후반의 여성으로, 어린 나이에 남편을 잃고 네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었다. 지역 사회는 과부들에게 차별적인 태도를 보였고, J는 생계를 위해 여러 일을 전전하며 버거운 삶을 살고 있었다.

우연히 재봉틀 기술학교의 학생 모집 공고를 접한 J는 힘든 과정을 거쳐 입학했다. 매일 왕복 8시간 동안 비좁은 버스를 타고 위험을 무릅쓰며 등하교를 했지만, 폭우 속에서도 단 한 번도 결석하지 않았다.

졸업을 앞두고 기술학교 위원회에서는 J를 프라하 교수의 조교로 임명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감격하며 말했다.

“이제 제꿈을 이곳에서 펼쳐가겠습니다. 기술을 배워 저와 같은 처지의 여성들을 위해 학교를 세울 것입니다.저는 나라와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쏘잉스쿨 수업과 졸업식 졸업작품전시회>

5) T국의 고아학교 교장인 쥴리엣의 사례

<연구자와 쥴리엣 교장의 고아학교 설립을 위한 계획과 임시학교 모습>

쥴리엣은 동·중앙아프리카 신앙이 깊은 여성 지도자이다. 연구자는 10년 전, 고아들로 구성된 한국의 브라스밴드 40명을 인솔하여 동·중앙아프리카 4개국(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르완다)을 순회하며 문화공연 사역을 진행했고, 그 과정

에서 T국을 방문했다. 당시 연구자는 ‘아프리카 지도자 양성’ 사역의 일환으로 쥴리엣의 동생이 한국의 K대에서 학·석·박사 과정을 이수하도록 지원하고 있었다.

우리 유학생의 누나인 쥴리엣의 집을 방문해 보니, 그녀는 7명의 고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그 중에는 무슬림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바다로 둘러싸인 T국은 전염병과 질병이 많아 사망률이 높고, 이로 인해 고아가 유독 많은 나라였다. 학교가 전무한 마을에서 쥴리엣은 돈이 생길 때마다 판자학교를 지어 고아들을 위한 배움터를 마련했다.

쥴리엣이 기독교 학교를 건축하자, 타 종교 단체에서도 바로 옆에, 불과 30㎝ 간격을 두고 사원과 학교를 짓기 시작했다. 당시 쥴리엣은 건축비 부족으로 인해 학교 건물을 완공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학교가 완성되지 않으면, 타종교 학교에 밀려 개교조차 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해 있었다.

쥴리엣은 고아들을 위한 학교의 필요성과 목적을 설명하며, 크리스천 스쿨을 설립하려는 자신의 비전을 밝혔다. 그녀의 강한 리더십이 돋보이는 순간이었다. 이에 학교가 잘 건립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문만 열면 마주 보이는 타종교 학교와의 관계는 매일 긴장과 부담을 안겨주었고, 고아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이러한 부담감을 더욱 가중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쥴리엣은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포기한 채, 오로지 고아들에게 사랑과 헌신을 쏟았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성경 암송 교육을 시키고, 쉐마학교를 운영하며 신앙 교육을 철저히 실천하고 있다. 또한, 연구자가 제공한 기독교 교육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국가 교육과정과 국정 과목을 병행하여 지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아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며, 건강한 신앙인을 양성하고 있다.

그녀의 영향력은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고아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

하고 있다. 남성중심의 우월의식이 강한 문화 속에서, 여성의 지위와 의견이 존중 받기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쥴리엣은 이에 안주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헌신하며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여성지도자로 자리매김 하고있다.

6) 지역 마을공동체 여성지도자 사례 (공동양계 농장과 식물농장)

U국의 마을 여성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농장 공동 운영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각 마을에서 참여하는 여성 리더의 수는 7명에서 12명 정도로 구성되었다. 연구자의 사역을 통해 각 마을마다 교회를 건축하였으며,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는 여성 문화교실, 선교원, 어린이 도서실, 방과 후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공동체를 형성하는 리더십의 일환으로, 지역 사회의 삶과 직결되는 다양한 농업 일자리 및 소득 창출을 위한 공동 농장 개발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젝트는 리더십이 현지에 정착되지 않으면 지속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이 프로젝트는 주로 여성 리더십을 세우는 데 초점을 맞추며, 가정과 지역 사회를 위한 구원 사역을 목표로 한다.

각 마을의 여러 가정이 연합하여 공동 식물 농장을 운영하며, 감자, 고구마, 카사바, 옥수수, 바나나, 파인애플을 재배하고, 주식 재료 공장인 빵 공장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또한, 염소 농장, 양계장, 양돈장, 양어장 등의 공동 동물 농장과 동물들의 영양 공급을 위한 제분소 및 사료 공장도 설립되었다. 가내공업으로는 비누, 양초, 북, 가방 제작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하나의 공동 농장에는 5~20가정이 연합하여 협력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식량 부족으로 인해 계란의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 노른자

가 하얀 경우가 많다. 이는 닭의 사료가 영양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연구 끝에 공동 양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료 공장을 설립하게 되었다. 양계 사료를 위해 빅토리아 호수 주변에서 얻은 민물 조개껍질과 기름을 짜고 남은 깻묵을 섞어 만든 사료를 각 마을 농장에 보급했다.

공동 양계장을 운영하는 여성 지도자 사라는 리더십을 발휘하여 연합과 협력을 이끌어냈다. 그녀는 멘토-멘티 시스템을 도입하여 자발적인 사례 연구를 통해 양계 농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확장해 나갔다. 공동 양계 연합 농장의 여성 지도자인 사라는 헌신적이고 부지런했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뛰어났다. 15가정이 연합하여 생산한 계란은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여 높은 가격에 판매되었고, 마을의 효자상품으로 자리 잡으며 수익 창출과 희망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이에 따라 닭을 수용할 양계장을 확장하고 병아리 부화기를 구입하게 되었다. 사라의 마을 농장은 부화된 병아리를 거의 실패 없이 잘 키웠고, 이는 다른 마을에 좋은 사례가 되었다. 공동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도자들을 선발하여 한국의 농업 지도자 연수 프로젝트에 연수생으로 추천하였다. 자원이 부족하지만 수십 년간 개발과 선진 농업 기술을 발전시킨 한국의 다양한 농업 기법을 배우는 기회가 주어졌다.

사라는 공동 농장의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자국의 지도자들과 공유하며 연구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갔다.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연수 지도자들에게도 권장 사례로 발표했다. 그러나 그녀의 리더십은 양계에서 멈추지 않았다. 연수 과정에서 새로운 작물 재배 가능성을 연구하던 사라는, U국의 기후 조건에 맞는 지역을 찾았다. 우기와 건기만 존재하는 U국에서, 한국의 제주도와 비슷한 기후를 가진 지역을 찾아 땅을 임대하고 귤나무와 배추를 비롯한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

기 시작했다.

퇴비를 이용한 유기농 비료 연구도 진행하며, 부지런히 농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놀랍게도 U국에서 귤이 열리기 시작했고, 배추는 한국의 2~3배 크기로 자라났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었다.

사라는 연구자의 손을 잡고 농장 구석구석을 안내하며, 직접 키운 배추를 선물로 건넸다. 그녀의 성공 사례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영향력 있는 모델이 되었고, 아프리카 여성들에게 좋은 롤모델이 되었다.

아프리카 여성들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며, 창의력 또한 뛰어나다. 사라의 사례는 가난한 나라에서 자녀의 미래를 책임지는 어머니로서, 공동체의 교사로서, 지역사회를 연대해 나가는 여성으로서 밝고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 가는 뛰어난 영향력과 잠재력을 보여준다.

<양계농장을 영양연구와 확장을 위해 리더쉽을 발휘하는 여성지도자 사라>

D. 마사이 여성 리더십 영성 형성

여러 부족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어 생활하는 마사이족[58]은 동아프리카의 그레이트 리프트 밸리 지역에서 가축과 자연과 함께 단순하게 살아가는 유목민 공동체이다. 주로 소를 키우며 살아가는 마사이족은 1년 내내 초지를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집을 크고 튼튼하게 짓지 않고, 잠시 머무는 의미로 작게 짓는다. 보통 4~5채의 집을 둥글게 배치하고, 가시나무로 낮은 울타리를 설치한다. 집을 짓는 재료로는 바람과 비에 잘 견디는 쇠똥과 진흙을 섞어 사용하며, 이 재료는 연료로도 활용된다.

아프리카에서는 우기에 폭포수처럼 많은 비가 내리기 때문에, 마사이족은 비에 의해 진흙이 쓸려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붕에 동물 가죽을 덮어 씌운다. 마사이족의 사회 구조는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결혼 제도는 일부다처제이다. 씨족 내에서 남성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주권을 가지며, 전통적으로 '아내를 빌려주는' 외혼(外婚) 제도가 있다. 이는 같은 연령대의 남성 구성원들 사이에서 허용되는 관습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혼 제도는 고질적인 질병 문제를 야기하며, 특히 HIV/AIDS 확산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마사이족은 신체 조건이 크고 강인하여 과거 노예로 끌려가는 경우도 있었으나, 노예가 되는 것을 굴욕으로 여겨 침략자들이 공격해 오면 죽음을 각오하고 싸웠다. 이러한 강한 저항 정신 덕분에 마사이족은 역사적으로 노예가 된 적이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일부다처제와 외혼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마사이족은 여성의 평등을 주장하며 여성을 노예로 삼지는 않는다.

최근에는 정부의 권장에 따라 농경 생활을 일부 받아들이고 있으며, 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자녀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기도 한다. 농경은 주로 유목을 하던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대화가 진행되면서 마사이 남

[58] 유목민인 마사이족은 동아프리카 케냐와 탄자니아에 분포되어 대략 200만명이 살고 있다. 지역은 킬리만자로 세링게티와, 나일강의 원천인 빅토리아 호수 근처가 마사이인들의 주 주거지이다.

성들은 정치에 입문하거나 도시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점차 마사이 부족의 전통이 사라지는 추세다. 하지만 응고롱고로(Ngorongoro)와 같은 야생동물 보호구역에는 여전히 전통적인 마사이족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마사이 여성 리더십 컨퍼런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 28:20)

마사이족의 독특한 문화와 특성을 고려할 때, 여성의 역할과 리더십 형성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따라 마사이 여성 지도자들과 마을 공동체 교육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동·중앙아프리카 여성 리더십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연구자는 수년 전부터 학교 시설이 전무한 마사이 마을을 방문할 때마다, 어린이들을 위한 기독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세미나를 개최해 왔다. 전통을 지켜온 마사이족이지만, 다음 세대는 도심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연구자는 새벽부터 부지런히 움직이는 마사이 여성들의 근면성과, 유목민으로서의 용맹성이 강한 리더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라 판단했다.

이 사역은 마사이 문화를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리더십과 잠재력을 끌어내는 것이 목적이었다. 마사이 문화 속에는 어린 여성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며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할례 의식과 원시적인 주술 의식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연구자는 영성 훈련을 통한 마사이 여성 리더십 형성 사례를 연구하고, 공동체 여성들과 자녀 교육을 위한 쉐마신앙 교육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가정이라는 작은 공동체 단위에서도 교회력을 따라 예배를 실천하며, 1년

의 삶의 패턴을 신앙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도록 돕고자 했다. 마사이 공동체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방식의 예배를 접하며, 신앙 교육과 영성 훈련을 함께 실천하는 여성 리더십을 형성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마사이 공동체와 아이들의 미래를 밝히며,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도 함께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컨퍼런스 개요

- 장소: T국 아루샤(Arusha) M센터
- 구성: 마사이 10개 부락에서 여성 리더 6명씩을 초청 (총 60명)
- 내용:
- 오전: 교회력을 따라 가정과 부족 공동체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배와 신앙 교육 세미나
- 오후: 마사이 여성들의 교육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사 교육

1) 예배와 몸으로 드리는 기도

마사이 부족의 예배는 정형화된 형식이 없으며, 몸을 움직이며 드리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컨퍼런스에서는 마사이 여성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배에서 춤과 몸짓을 통한 기도를 경험하도록 하였다.

- 몸으로 드리는 기도의 단계

1. 몸과 마음의 긴장을 이완하고 내 신체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다.
2. 몸의 감정과 반응을 인식하며, 신체가 보내는 신호를 듣는다.
3. 호흡과 간단한 퍼포먼스를 통해 몸의 느낌을 깨닫는다.
4. 몸의 감각을 깨우고,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는 경험을 한다.

예배에서 춤과 몸짓은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신앙을 깊이 체험하고 공동체 결속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마사이 여성들은 자신들의 전통적인 노래와 춤을 예배의 몸짓으로 승화하며, 신앙을 더욱 깊이 받아들이는 경험을 하였다.

2) 기도와 성경 통독을 통한 리더십 지도

마사이 여성들의 영성 형성을 위해 렉시오 디비나(Lectio Divina) 방식의 성경 통독을 적용하고, 쉐마 교육을 바탕으로 신앙 훈련을 진행하였다.

- 기도 훈련의 핵심 요소

1.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님께로 돌아가는 기도를 올린다.

2. 기도는 훈련이며,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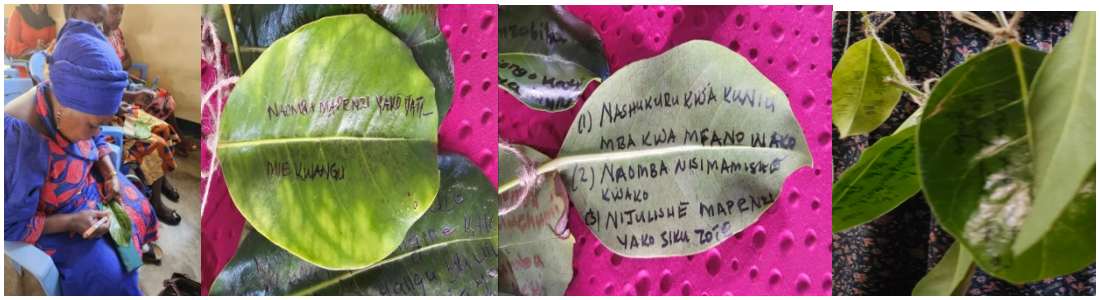
3.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얻는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마사이 여성들은 스와힐리어로 기도문을 작성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졌다.

마사이 여성들은 전통적인 부족 사회에서 약자의 위치에 놓여 있었지만,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새로운 신앙과 리더십을 배우고, 가정과 공동체를 변화시킬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진정한 공동체[59]란 서로의 약함을 보듬어 주는 곳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누구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품어주는 사랑의 공동체이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마사이 여성들은 자신의 신앙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더 나아가 마사이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59]참고, Henri Nouwen 『헨리나우웬의공동체』윤종석 (서울 : 두란노 2022).



<마사이 여성 지도자들이 탄자니아 언어 스와힐리어로 기도와 소원을 적어본다>

E. 피그미 공동체 여성리더십형성

1) 중앙아프리카의 피그미 (Central African Pygmies)의 사례

동·중앙아프리카 국경 지역에 분포하는 원주민 피그미족(Pygmy) 은 독특한 문화적 방식을 유지하며 살아간다. 이들은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된 전통적인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 속에서 여성 리더십을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여러 해 동안 진행되었다. 선교는 해당 문화에 대한 깊은 이

해를 바탕으로 토착화되어야 하므로, 피그미족의 문화적 특성을 존중하며 접근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연구자는 피그미족의 삶의 형태, 문화, 그리고 신앙적 패턴을 설명함으로써 보다 깊은 이해를 돕고자 한다.

피그미족(Pygmy peoples) 은 인류학적으로 평균 키가 150cm 이하인 민족들을 총칭하는 용어로, 고대 토착 혈통을 유지하며 다양성이 높은 공동체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다른 인류 집단과는 매우 다른 생활방식을 유지하며 살아간다. 연구자가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중앙아프리카 여러 지역에는 약 10개 이상의 피그미 부족이 존재하며[60], 주로 분지와 삼림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다. 현재 이들의 인구는 대략 25만~60만 명으로 추정된다. 연구자는 20년 전 R국과 C국의 국경 지역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피그미족을 처음 만나면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연대하고 있다.

중앙아프리카 C국은 국토의 절반 이상이 열대 우림으로 덮여 있으며, 이 지역에 거주하는 피그미족을 음부티족(Mbuti) 또는 반부티족(Bambuti) 이라고 부른다. 이들 중 가장 오래 거주한 부족은 이투리(Ituri) 피그미족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자가 20여 년 전 이투리족을 처음 방문했을 때, 그들은 산 꼭대기에서 단순한 움막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투리족은 현대 문명과는 달리, 숲에서 태어나 숲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것을 취하여 생활하며, 숲에서 죽어 다시 숲에 묻히는 삶을 살아간다.

피그미족에게 숲은 단순한 환경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이며 어머니 같은 존재이다. 숲은 그들의 삶의 터전이자 안식처이므로, 이를 훼손하거나 거스르지 않고 자

---

[60] 동·중앙아프리카(Uganda,Rwanda,Brundi,Tanzania,D·R Congo)동부에 거주하며 빅토리아호를 비롯하여 호수들이 있는 곳에도 집중적으로 거주한다. 동·중앙아프리카로의 피그미족 확산은 아마 13만년 전, 늦어도 6만년 전에는 확실히 일어났을 것으로 기원을 보고 있다. 본래 중앙 아프리카 열대 우림의 후기 석기 시대 수렵 채집 민족의 직계 후손이었으나 나중에 이주해 온 농업 민족에 부분적으로 흡수되거나 대체되었다. [namu wiki].

연의 일부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철학이다.

19세기 말까지 피그미족은 “전설 속의 존재”로만 여겨졌으며, 문명 사회로부터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은 단순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강한 공동체 의식을 유지하며,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그들은 숲에서 협력하며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며, 마을 내 자원은 공동으로 사용하지만, 다른 마을과는 명확한 경계를 유지한다. 그러나 기쁨과 슬픔, 고난과 축제는 이웃 마을과 함께 나누는 문화를 갖고 있다.

대부분의 피그미 부족은 수렵 채집 생활을 하지만, 모든 생필품을 자연에서 구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트와족(Great Lakes Twa) [61]은 도자기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생계를 이어간다.

<사례 1: 피그미 결혼 문화를 통해 본 10대 여성의 삶>

피그미족은 정부로부터 소외된 부족으로, 일부 공동체는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밀려 들어가거나, 호수 주변으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살아간다.

사냥을 기반으로 하는 유랑 생활을 포기하고 정착한 일부 부족에서는 여성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도자기를 제작해 시장에 내다 팔거나, 이웃 주민들과 농·어업 생산품을 교환하며 생활한다. 그러나 마을에 학교가 없어 교육을 받지 못한 여성과 아이들은 부족 언어 외에 다른 언어를 사용할 줄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가난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피그미족에서는 조혼 문화가 일반적이며, 여성들은 초경이 시작되는 10대에

[61]프랑스어: Twa de la region des Grands Lacs.

결혼을 한다. 피그미족 여성들이 좋은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신혼 집 움막을 잘 지을 수 있는 기술
2. 생계를 위한 식량을 채집할 수 있는 능력
3. 다산(多産)의 체질

이는 아프리카 여성들이 전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피그미 여성들의 삶이 결혼 초기부터 고된 여정이 될 것을 의미한다.

피그미 여성들은 보통 한 가정에서 15~20명의 자녀를 출산하지만, 높은 질병률로 인해 살아남는 자녀의 수는 많지 않다. C국이 속한 중앙아프리카 적도 지역은 고온다습한 기후로 인해 급격한 날씨 변화와 많은 강수량을 보인다. 따라서, 신혼 움막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비를 피할 수 있는 안정된 주거 공간이 되어야 한다.

신부가 움막을 완성하면 결혼식이 진행되며, 신랑과 신부는 결혼식이 시작되기 전까지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없다. 결혼식에서 배우자의 얼굴을 처음 본 후, 서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결혼을 거절할 수 있다. 만약 결혼을 원할 경우, 신랑과 신부는 서로에게 고기 한 점씩을 먹여주는 의식을 치르며 결혼이 성사된다. 이후, 신혼 움막에서 24시간 동안 머무르면 결혼이 정식으로 인정된다.

피그미 여성들은 전통적으로 사회적 역할이 제한되어 있었으나, 공동체 내에서 경제적·교육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여성 리더십이 필요하다. 연구자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리더십 형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1. 도자기 물레학교 운영

- 수동 물레를 이용해 도자기 제작 기술을 보급
- 여성들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공동체 내 협동조합 조직

2. 재봉교실 운영

- 아이들에게 옷을 만들어 입힐 수 있도록 재봉 기술 교육
- 재봉 기술을 활용한 소득 창출 및 교육 기회 확대

3. 비누 · 초 공예교실 운영

- 위생 상태를 개선하고, 질병 예방을 위한 비누 제작 교육
- 전기가 없는 마을에서 사용할 촛불 제작 기술 전수

4. 쉐마학교 운영

-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성경 이야기와 신앙 교육을 위한 그림책 제작
- 공동체 내에서 자연스럽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체계 확립

5. 정기 성경학교 운영

- 아프리카 신학생들이 피그미 마을을 방문하여 성경 이야기를 연극 · 뮤지컬 형식으로 교육
- 부족어로 통역하여 문화적 공감을 높이고 참여를 유도

연구자는 피그미 여성들의 교육과 리더십이 공동체 발전의 핵심 요소임을 강

조하며, 이를 통해 피그미족이 단순한 생존을 넘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트와족] : 피그미 마을을 방문할 때 반드시 소금과 비누와 설탕을 준비

F. 동 · 중앙 아프리카 3개국 여성목회자 교육지도자 컨퍼런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의 경험을 더욱 깊게 만드는 과정이다. 영성은 단순한 종교적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훈련이며, 이를 위해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과 영성만이 온전한 리더십으로 연결될 수 있다.

연구자는 해마다 동 · 중앙아프리카 여성 지도자 리더십 영성 형성 연구 컨퍼런스를 전문 교수진과 함께 개최하고 있다. 이번 연구의 대상은 연구자가 선교하고 있는 동 · 중앙아프리카 3개국의 기독교 여성 지도자들이다.

컨퍼런스에서는 여성 리더십과 영성 형성을 위한 신학 교육이 이루어졌다.

신학 교육의 주요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 조직신학과 실천신학, 교회행정
- 예배학과 교회력, 몸으로 드리는 예배(예전), 거룩한 독서(렉시오 디비나)
- 구약과 신약의 성경 테마를 바탕으로 한 연출 및 극화 활동 (바이블 액티비티, 무언극, 나라별 언어로 진행된 성경 연극)

또한, 교육계 여성 지도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신명기적 사관을 기반으로 한 쉐마 교육 과정을 운영하였다.

- 하부르타 방식(능동적 탐구 학습법)
- 성경 통독을 위한 전이도(全移圖) 방식 적용 (66권 10분 성경 스토리)
- 부모와 교사의 역할 및 태도 교육
- 어머니와 교사의 기도를 통한 교육 방법론

국경 근처에서 참석한 여성 지도자들은 내전으로 인한 열악한 환경에서 수십 년을 살아왔으며, 삶의 질이 개선되지 않은 현실을 경험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은 용서와 화해의 문제로 깊은 심리적·정서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언급조차 어려워하는 상황이다.

컨퍼런스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내전으로 인해 난민이 발생하고, 종족 학살이

이어지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특히 R국에서는 원수지간인 H족과 T족이 마을과 교회에서 서로 부딪쳐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번 컨퍼런스에 참석한 여성들은 대부분 40~50대의 지도자로, 과거 1020대 시절 부모와 형제를 내전으로 잃고 거리와 난민촌으로 내몰렸던 세대이다. 그들이 겪었던 공포와 두려움은 여성들의 웃음을 앗아갔으며, 이러한 감정은 고스란히 다음 세대의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전이되고 있다.

일부 여성들은 트라우마로 인해 사회와 가정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은둔자가 되기도 하며, 이는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민족 간 화합과 평화를 위해 다양한 변화와 발전적인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용서와 화해는 해결되지 않은 가장 큰 과제로 남아 있다.

R국의 경우, 내전으로 인해 많은 남성들이 희생되었고, 현재 전체 인구의 70%가 여성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적극 권장하여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이 40%를 넘는 등 주변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발언권이 세계적으로 강한 국가로 평가 받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아프리카의 남성 중심 사회 구조는 여성들의 의사를 관철시키기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목회자 역할에서도 남성과 여성 간의 차별이 존재한다. 전통적으로, 여성은 남성을 내조하고 보좌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하며,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여성이 남성 앞에 무릎을 꿇고 절대 복종하는 인사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문화적 장벽 속에서도, 이번 컨퍼런스에는 수백 명의 여성 목회자와 지역 사회 기독교 여성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그러나 분위기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참석자들의 얼굴은 어둡고 무거웠다.

따라서 이번 3개국 여성 지도자 리더십 영성 형성 연구 컨퍼런스에서는 전례

를 통한 몸과 마음의 치유, 회복, 용서와 화해, 소망을 중심으로 한 영성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진행하였다.

본 컨퍼런스의 주요 커리큘럼은 영성을 기반으로 한 리더십 세미나로 구성되었다.

- 예전 영성: 몸으로 드리는 예배[62]
- 교회력 영성:
-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강림절을 순환하며 삶과 공동체, 교회 및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

- 바이블 액티비티 예배(BAW: Bible Activities Worship)
- 여성 교육 지도자를 위한 쉐마 교육
- “긍정적인 다음 세대 키우기”
- “왕 된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
- 어머니 기도 프로그램(MLP: Mother’s Love Prayer)

컨퍼런스 강의에서는 목적과 취지, 활동 연구 지침을 나누고, 분과별 그룹 토의와 나눔 발표, 지속적인 후속 프로그램 계획을 논의하였다.

컨퍼런스의 열정을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과 창의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

[62]Kayiteshonga, Y., Sezibera, V., Mugabo, L. et al., “Prevalence of Mental Disorders, associated Co-Morbidities, Health Care Knowledge and Service Utilization in Rwanda - towards a Blueprint for Promoting Mental Health Care Services in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BMC Public Health* 22, 1858 (2022). https://doi.org/10.1186/s12889-022-14165-x [2024. 11. 15 최종접속].

1. 음악과 미술 활동

2. 스킷 드라마와 퍼포먼스 예전(몸으로 드리는 예배와 춤)

3. 게임 활동과 시각적 자료(사진 게재 포함)

4. 나라별 요리 콘테스트

그러나 시간 부족으로 인해 일부 프로그램은 실행되지 못했고, 참가자들은 과제로 남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열의를 보였다.

각 공동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컨퍼런스에서 연구한 커리큘럼과 실천 액티비티 자료를 나누어 보급하였다.

이번 컨퍼런스는 단순한 신앙 교육을 넘어, 내전과 분쟁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여성 지도자들에게 실질적인 치유와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특히, 용서와 화해라는 어려운 주제를 다루며, 영성을 통한 치유와 공동체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참가자들은 각자의 공동체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배운 내용을 실천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변화를 이루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연구와 컨퍼런스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동·중앙 아프리카의 여성지도자들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U국 컨퍼런스 단체사진>

1) 예전을 통한 몸 영성예배

예전의 기본 언어는 '몸'이다. 예전은 주로 행위이기 때문에 몸의 움직임이다. 예전의 특권은 서술적인 언어가 아니라 관계 맺기를 위한 메타포이다.

<우리의 숨쉬는 호흡도 기도여야 한다>

몸으로 드리는 기도: 4가지 퍼포먼스[63] [1]

첫 번째: 호흡하기(Breathing)

호흡은 우리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을 신체적으로 기억하게 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숨쉬는 자체가 기도의 한 형태가 되어야 한다. 호흡은 몸으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신체적 기능 중 하나이며, 이는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중요한 과정이기도 하다.

예배는 우리의 몸 전체, 이성, 감각을 통해 드려지는 것이다. 아프리카의 전통 예배에서는 서너 시간 동안 춤추고, 노래하며, 울고 웃으며 하나님의 임재와 긍휼, 자비를 구한다. 형식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예배자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역동적인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는 하나님의 신비가 언어와 이성으로 완전히 표현될 수 없으며, 예배는 언어화되지 않은(non-verbal) 차원에 더욱 개방적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영과 육과 혼을 포함하는 통전적(wholistic) 형태로 이루어질 때, 진정한 의미에서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다.[64] [2]

---

[63] Kayiteshonga, Y., Sezibera, V., Mugabo, L. et al. (2022). *Prevalence of mental disorders, associated co-morbidities, health care knowledge and service utilization in Rwanda – towards a blueprint for promoting mental health care services in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BMC Public Health 22, 1858.https://doi.org/10.1186/s12889-022-14165-x [최종 접속: 2024.11.15].

[64] Rieder, H., & Elbert, T. (2013). *Rwanda-lasting imprints of a genocide: trauma, mental health and psychosocial conditions in survivors, former prisoners and their children.* Conflict and Health, 7, 1-13.

① 몸으로 호흡하며 기도하기

• 스카프를 활용한 호흡 기도

1. 가벼운 스카프를 양손으로 잡고 숨을 깊이 들이마신 후 내쉬면서 호흡을 조절한다.

2. 숨을 두 번 들이마시고, 두 번 내쉰다.

3. 자신의 몸을 인식하고, 호흡을 통한 기도의식을 행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호흡을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며, 깊은 호흡을 하는 것도 쉽지 않다. 하지만 긴장되거나 걱정이 많을 때, 우울하거나 불안할 때, 또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멈추거나 몰아 쉬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호흡 기도는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스카프를 내려놓고 자유롭게 호흡하기

1. 스카프를 무릎 위에 내려놓고, 다시 한 번 깊이 호흡한다.

2. 눈을 감고 자연스럽게 호흡에 집중하며, 자신의 몸과 마음을 듣는다.

3. 깊은 호흡을 할 때, 산소가 온몸의 세포와 기관에 새로운 생명력을 공급하고 있음을 인식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며, 하나님께 사랑 받기에 합당한 존재이다. 우리는 기적과 같은 확률 속에서 태어났으며,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할 필요가 없다.

A. 내 몸과 호흡하기: 몸의 예배

몸으로 드리는 예배는 나의 존재 자체에 감사하는 기도의식이다.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physicality)은 곧 하나님의 선물이다.”

신체에 대한 감사와 소중함을 깨닫는 것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향한 사랑과 화합, 용서, 치유, 격려로 이어진다.

예배는 단순히 정신적이고 영적인 행위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감각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기도 하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신체를 소중히 다루며, 타인을 존중하고 돌보는 태도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우리는 바쁜 삶 속에서 자신의 몸을 혹사하고 무관심하게 다룰 때가 많다. 하지만 몸의 신호 체계에 귀를 기울이고, 몸을 회복시키는 것은 영적 성장에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몸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인식하고, 그 가치를 깨닫는 것-이것이야말로 몸을 통한 예배의 본질이다.

이 순간, 나의 몸을 혹사하고 돌보지 못했던 것에 대해 반성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미 있는 예배로 나아가는 시간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감각을 통해 예배 받기를 원하신다.

<스카프를 던져 머리부터 신체로 받아내며 하나님의 형상인 내 몸에 감사한다>

몸을 통한 기도와 치유의 예배

1. 몸과의 소통을 통한 기도 예전

▶ 스카프로 얼굴을 가리고 천천히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며 호흡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영이시며, 그의 숨결이 나에게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기도적 행위이

다.

▶ 스카프를 던져 신체의 각 부위를 차례로 감싸며 느껴본다.

머리 → 어깨 → 얼굴 → 목 → 팔 → 가슴 → 배 → 옆구리 → 등 → 엉덩이 → 다리 → 발.

내 몸이 존재해준 것에 대해 “고맙다!”, **“감사하다!”**라고 말해준다.

▶ 내 몸을 돌아보며 사랑과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 신체의 각 부분이 담당했던 기능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 함부로 사용했던 것, 혹사했던 것들을 돌아본다.
- 아프거나 약했던 신체 부위를 원망했던 태도를 회개하고, 내 몸과 화해한다.
- 신체가 존재하기에 오늘 내가 존재함을 감사하며, 몸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 스카프를 손에 쥐고 신체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감사와 사랑을 표현한다.

- 경직된 목덜미, 피곤한 등, 굳어진 몸통, 수고한 손과 발을 하나하나 쓰다듬으며 “고맙다”, “사랑한다”라고 말한다.
- 보이지 않는 장기, 오장육부, 이목구비를 따라 30분간 눈을 감고 천천히 쓰다듬으며 기도한다.

▶ 신체와 소통하는 기도를 통해 깨닫는 점:

- 우리는 신체를 스스로 다스리고 명령하는 존재처럼 여겼으나, 그것이 아니라 신체를 존중하고 돌봐야 함을 깨닫는다.
- 가족, 공동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도 몸의 예전을 실천할 수 있다.

- 몸이 불편한 부분에 손을 얹고 사랑으로 어루만진다.
- 혹사했던 몸에게 용서를 구하고, 몸과 화해한다.
- 신체가 해온 모든 봉사에 대해 **“사랑해”, “축복해”**라고 감사의 말을 전한다.

2. 참가자들의 몸의 예전 경험 나눔

- “나를 사랑하는 예배가 매우 인상적이고 신비로운 경험이었다.”
-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내가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성전인 내 몸을 사랑하겠다.”
- “나 자신에게 먼저 사랑을 풍족히 줘야 한다는 존중감이 생겼다.”
- “내 가족과 타인을 더욱 귀하게 여기게 되었다.”
- “몸을 함부로 다뤘던 나 자신을 회개하게 되었다.”
- “어렵고 힘들었던 용서와 화해를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
- “소중한 나의 몸에 감사하며 감격의 눈물이 흘렀다.”
- “무거웠던 신체가 웃게 되었다. 몸이 치유되고 한결 가벼워졌다.”
- “자존감이 높아지고, 열등감을 내려놓게 되었다.”
- “분위기가 밝아지고, 자연스럽게 웃음과 친화력이 생겼다.”
- “비교의식에서 벗어나 자유로움을 경험했다.”
- “나 자신을 향한 폭력적인 태도를 멈추고, ‘내 인격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선언할 수 있게 되었다.”
-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호흡하고, 기도하며, 용서하고 사랑하는 예배를 실천해야겠다는 다짐이 생겼다.”

3. 간증 나눔

간증 1: R국 여성 지도자 S의 간증

"나는 남편의 잦은 폭력으로 인해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고, 항상 온몸이 아팠습니다.진료를 받을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면서, 우울과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남편을 증오했고, 용서할 수 없다는 분노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몸의 예전을 통해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닫게 되었고, 치유를 경험했습니다.이제 나는 폭력에 맞서 외칠 것입니다. "멈춰라!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남편을 용서하며, 몸의 예전 영성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고 치유해줄 것입니다.그가 폭력을 멈출 것이라 믿습니다. 그는 약한 자이며,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입니다.이제 나는 내 몸을 "고맙다, 감사하다, 사랑한다" 라고 날마다 축복할 것입니다.이것이 나의 예배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몸을 함부로 다뤘던 태도를 회개합니다."

간증 2: U국 여성 목회자 J의 간증

"나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여러 자녀를 양육하며 생계와 목회로 인해

내 몸을 혹사시켰습니다. 몸의 예배를 처음 경험하며, 내 몸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분주함 속에서 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자녀와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도 많이 놓쳤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험을 통해 목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내가 변화하고, 새로운 목회 방향으로 나아가야겠다는 다짐이 생겼습니다. 내 몸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타인의 몸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곧 예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 진정한 예배란, 내 몸을 먼저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몸의 예배를 통해, 내 몸과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해방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증 3: T국 여성 지도자 M의 간증

"5년 전, 나는 뇌졸중으로 쓰러져 왼쪽 몸이 마비되었습니다. 치료를 위해 여러 나라를 다녀봤지만 완전히 회복될 수 없었습니다.말이 어눌해졌고, 지팡이를 짚고 절뚝거리며 다녀야 했습니다.일상이 무너졌고, 지역 사회 지도자로서의 역할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로 인해 극심한 불안과 우울, 절망이 나를 덮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나를 피하는 듯 느껴졌고, 위로 조차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컨퍼런스에 참여하며, 처음으로 몸의 예배를 경험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는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며,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나는 내 몸과 화해하고, 용서하는 진정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순간, 내 몸과 마음에 회복과 새 힘이 찾아왔습니다. 몸의 예배를 체험하며, 과거의 뜨거웠던 영성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애가 있는 몸이지만, 나는 다시 복음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밥상 공동체를 실천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치유, 선포의 사역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나의 몸을 향해, “고맙다! 감사하다!” 라고 날마다 말할 것입니다. 나는 내게 남아 있는 건강한 신체로, 작은 것부터 실천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도와 주실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몸의 예전과 예배를 통해, 여성지도자들은 자신의 몸을 존중하고, 회복을 경험하며, 더 나아가 공동체를 위한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다.

2. 타인과 나의 몸을 소통하며 호흡하기

▶ 이웃과 화합하는 예전

• 나를 중심으로 앞, 뒤, 옆에 있는 상대의 몸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기도와 성경 말씀, 권면과 위로, 사랑과 축복의 말을 전한다.

• 이는 타인을 사랑하고 돌보는 예배 의식으로,
이웃이 있기에 내가 존재함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 우리는 타인의 존재 덕분에 함께 살아가며,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 상대방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드럽게 보듬으며 격려한다.

• 이는 사회, 종교, 가족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로서, 서로를 존귀하고 귀중히 여기며 감사하는 예배 의식이다.

▶ 2명씩 짝을 지어 창문을 바라보고 앉는다.

• 서로의 몸을 쓰다듬으며, 손이 닿기 어려운 등부터 부드럽게 어루만진다.

- 이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레 19:18) 말씀을 묵상한다.
- 진심을 다해 이웃을 사랑하며, 자신의 몸처럼 소중히 여기고 돌보아 준다.
-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인 사랑의 실천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녀로서 서로를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 받아들이는 행동이다.

▶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 다른 사람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를 배려하고 협력할 의무가 있다.

-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준 것에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이며,

화합의 예전이다.

< 타인의 몸을 보듬어 주며, 사랑한다. 축복한 다를 들려준다 >

3. 영혼을 다해 드리는 예전 무용예배

이 예배는 온몸과 영혼을 다해 집중하여 드리는 기도이다.예전 무용 예배의 영성은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고 공동체와 함께 참여하는 예배 의식으로,절기 공동체 예배 중 성금요일 예전에 해당한다.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을 기억하며,우리의 몸이 집중하여 드리는 예배이다.이 예배는 “영혼을 담은 몸의 예배(Bodily Soul Worship)” 를 경험하는 시간이자,몸과 영혼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예전이다.[65]

우리가 생을 마칠 때,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이름을 기억하시고,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베푸셨음을 묵상하며,이 춤은 십자가의 사랑을 표현하는 경건한 동작이자, 조용한 묵상의 춤이 된다.

동시에, 자신의 삶을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며 회개하는 시간이다. 겸허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음악에 맞춰 묵상과 고백을 담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간다.성전 홀을 천천히 돌며, 몸으로 드리는 기도를 완성해 간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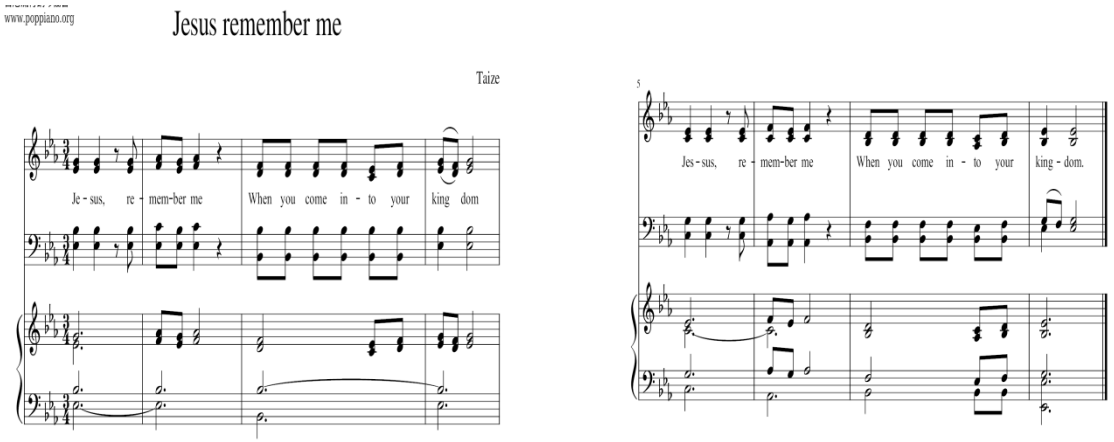
[65] 박종환(2010). 이머징워십의실제. 목회사회학연구소 ‘이머징 컬처 & 이머징 워십’ 세미나. 교회와신앙 (2010.05.07. 기사)https://www.am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27 (최종접속: 2024.11.15).

<영성 음악 ‘나를 기억하소서’에 맞춰 드리는 몸의 예배>

1. 오른손을 높이 들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본다.
2. 두 팔을 벌려 십자가 형태로 기도하며 나아간다.
3. 두 팔로 몸을 감싸며, 고개를 가슴에 묻고 나아간다.
4. 음악에 맞춰 이 동작을 반복하며 기도한다.

이 예배는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몸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거룩한 예전이다.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Luke 23:42)



<Jesus remembers me>[66]

영성 형성을 위한 몸으로 드리는 예전은 동·중앙아프리카 3개국 여성 지도자들(여성 목회자, 사모, 각 분야 여성 지도자, 마을 공동체 리더)을 위한 예배 리더십 강화 훈련이자 탁월한 영성 예배였다.

컨퍼런스가 끝나갈 무렵, 참석자들은 헤어지기를 아쉬워하며, 몸의 예배에 대한 깊은 감동을 나누었다. “매우 좋은 예배였다” 는 피드백이 이어졌고, 여성 지도자들은 쉽게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룹별로 모임을 갖고, 이 예전을 실내와 마당, 잔디밭에서 반복하며 다시 경험하였다.

특히, 3개국 중 R국에서 온 여성 지도자들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R국은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수천 개의 교회가 폐쇄되었으며,이로 인해 컨퍼런스가 시작될 때만 해도,이 나라의 여성 지도자들은 희망과 의욕을 잃은 상태였다.그러나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새로운 행보를 시작합니다” 라는 컨퍼런스의 캐치프레이즈가 그들의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들은 나눔의 시간 동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곧 예배당이다” 라는 신념을 새기며,리더로서 다시 서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이머징 예배는 크리스천 공동체, 대·소그룹 예배에서 영성 있는 예배 방식으로 매우 적합하다. 하나님과 나 자신의 화해는 이웃을 소중히 여기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데서 출발한다.

예전 의식이 끝난 후, 여성 지도자들은 그룹별로 모여 나일강 원천지로 흘러가는 연수원 호숫가 잔디에 앉아 토론과 나눔을 가졌다.그 자리에는 희망이 가득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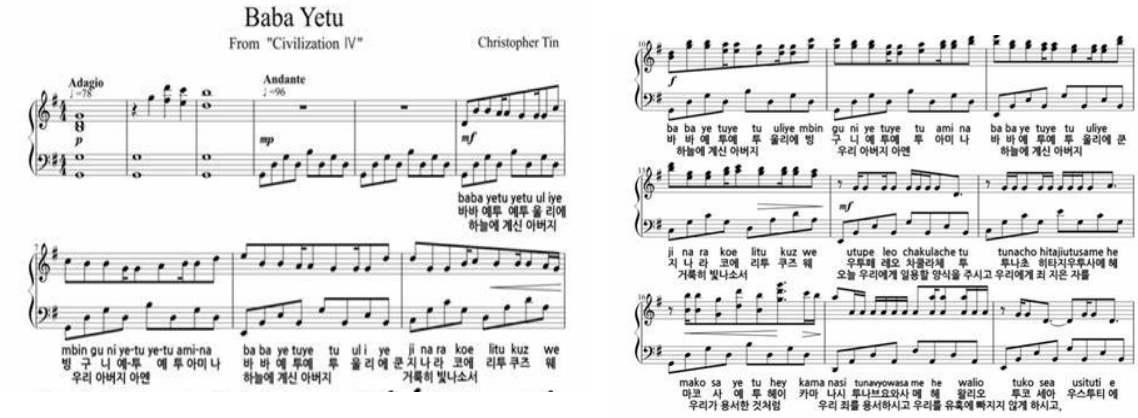
[66] https://www.bing.com/search?q [2024. 12. 20 최종접속].

고, 깊은 은혜와 감동이 넘쳤다.

동·중앙아프리카 여성 지도자 리더십 영성 형성 연구 컨퍼런스에서 진행된 몸의 예전 퍼포먼스는, R국 여성들에게 새로운 사명과 리더십을 다지는 뜻깊은 경험이 되었다.수천 개의 예배처소가 사라진 상황에서도,R국 여성 리더들은 “예배는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결단을 내렸다.그들은 정부의 규제로 인해 최대 7명까지 모일 수 있는 가정집을 오픈하여,새 하늘과 새 땅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로 다짐했다.그들에게는 매일이 승리의 날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모든 여성 리더들은,동·중앙아프리카 땅에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며,아프리카어로 주기도문 찬양인 “Baba YetuYetuYetu”를 부르며, 몸의 예배를 마무리하였다.이 찬양과 함께,여성 리더십 형성 연구 컨퍼런스도 성령의 감동 속에서 마무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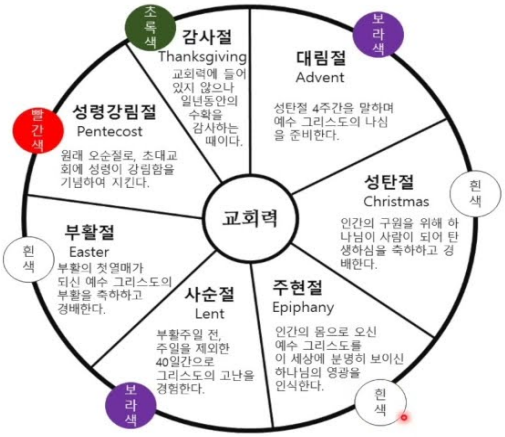
이 예배는 단순한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이땅의 여성지도자들이 새로운 신앙적 여정을 시작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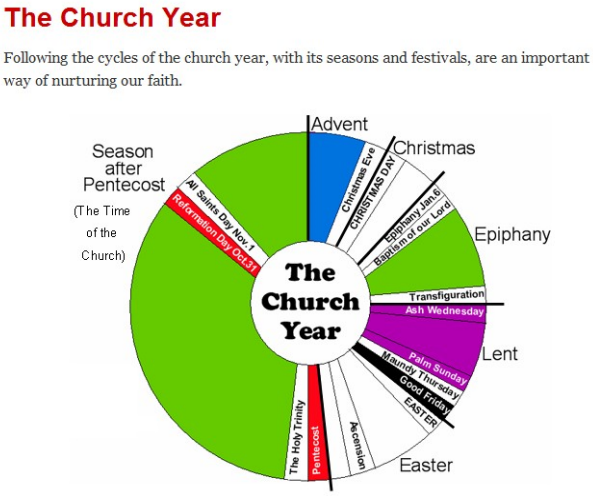


<아프리카어 주기도문 “바바예투 예투 예투” >[67]

<R국은 컨퍼런스에 동·중앙아프리카 여성리더십과 함께 해야 할 비숍들이 참석하여 격려하였다>

[67] https://www.bing.com/search?q=_lcrp [2024. 12. 29 최종접속].





<교회력 패턴과 색>[68]

2) 교회력: 영적인 삶의 패턴

교회력의 영성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구원 역사의 계시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되었다. 2000년 동안 교회의 역사 속에서 형성된 교회력은 신앙의 흐름을 안내하는 귀중한 방편이며,반복적으로 되풀이 되는 지속적인 절기 체계로 자리 잡았다.

교회력의 영성은 공동체, 교회, 그리고 가정의 1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안에서 살아가야 함을 보여준다. 그리스도의 신비는 단순한 가르침을 넘어, 은혜와 능력, 그리고 격려가 우리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이웃에게도 흘러가도록 이끈다.

[68] https://www.bing.com/search?q [2025. 1. 12 최종접속].

동·중앙아프리카 3개국 여성 지도자 리더십 영성 형성 연구 컨퍼런스는 교회 역사 속에서 이어져 내려온 교회력을 기반으로 진행되었다.이는 단순한 역사적 연속성을 넘어서,그리스도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함께 이해하고, 그 신비를 실천하는 패턴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아드리안 노슨트(Adrian Nocent)는 교회력의 영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교회력의 고귀한 가치를 강조하는 이유는, 교회력이 그리스도와 함께 기념되는 것이기 때문이다.교회력의 특별한 가치는 예수그리스도께서 직접 교회력에 따른 예배를 주관하시며,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와 함께 그의 신비를 찬양하신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69]

즉, 교회력의 영성은 말씀을 듣고, 성찬에 참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 부활의 영광을 기억하는 예배를 통해 구현된다.이 예배는 노동으로부터 해방되어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안식의 날이자, 교회력의 핵심이 되는 순간이다.

동·중앙아프리카의 여성들은 토착 문화적인 예배와 부족의 절기를 지켜왔다.그리고 대체로 성탄절과 부활절, 1년 중 가장 큰 절기만을 지켜왔을 가능성이 높다.그러나 연구자는 그리스도인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그리스도에 의해 빚어진 교회력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이는 구속사의 계시를 따라 영성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며,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안에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본질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소망해야 한다.교회력의 본질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

---

[69]로버트 E. 웨버, 『교회력에따른예배와설교』이승진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6), 17.

성육신, 고난, 죽음과 부활, 승천, 재림을 중심으로 한다.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죽음뿐만 아니라, 지옥의 권세를 이기셨다.이것이 교회력의 중심이기에,교회력을 통해 우리는 구원의 감사를 경험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렇기에 교회력의 중요성은 영성 형성에 있어서 반드시 강조되어야 한다.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신부로서, 구속의 사건을 구체적으로 강조하며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야 한다.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에 집중할 때 가능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단체에서도, 교회력에 따른 예배가 실천되어야 하며,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를 기억하고, 우리의 삶과 내면에 주님과 밀착된 영성이 형성되어야 한다.즉, 교회력의 영성은 단순한 과거의 반복이 아니라,그리스도의 신성한 기억을 현재 속에서 실천하는 예배의 본질이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기억하며, 그 소망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한다. 그러나 교회력은 단순히 과거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다.따라서 교회력의 영성은 현재와 미래에도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준다.

연구자는 여성 지도자의 정체성과 잠재력에 따른 영성 형성을 통해,그들이 어떻게 영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지,그리고 청중의 영성을 어떻게 구현해 낼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교회력의 영성 안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동·중앙아프리카는 가톨릭을 비롯하여 기독교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며, 교단 구성은 성공회, 순복음, 감리교, 장로교, 그리고 아프리카 독립교단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교단적 다양성을 초월하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구원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하나님의 선택 받은 자로서 살아가

야 한다.즉, 작은 공동체든, 큰 교회든 여성 지도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그들이 교회력 영성을 통해 최고의 영성을 실천해야 한다.

교회력의 영성은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오순절의 절기 주기에 따라,절기의 본질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야 한다.1년 동안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여성 지도자들은 교회력의 주기 패턴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 각자의 에코백에 교회력 패턴을 그려 넣어, 일상 속에서 교회력을 기억하며 실천
- 도화지에 교회력 패턴을 그려 가정과 공동체 벽에 붙여, 가족과 함께 교회력의 영성을 나눔
- 자녀들과 함께 교회력 패턴을 그리며, 1년 365일 동안 교회력 영성을 실천하는 과정에 참여

이러한 실천적 활동을 통해,교회력은 단순한 연중 행사나 형식적인 절기가 아니라,그리스도인의 삶을 형성하는 중심이자,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와 연결된 살아있는 신앙의 흐름이 된다.

<교회력-그리스도를 통한 그의 죽음과 부활 승천의 구원행위에 관한 복음선포>

① 대림절(Adv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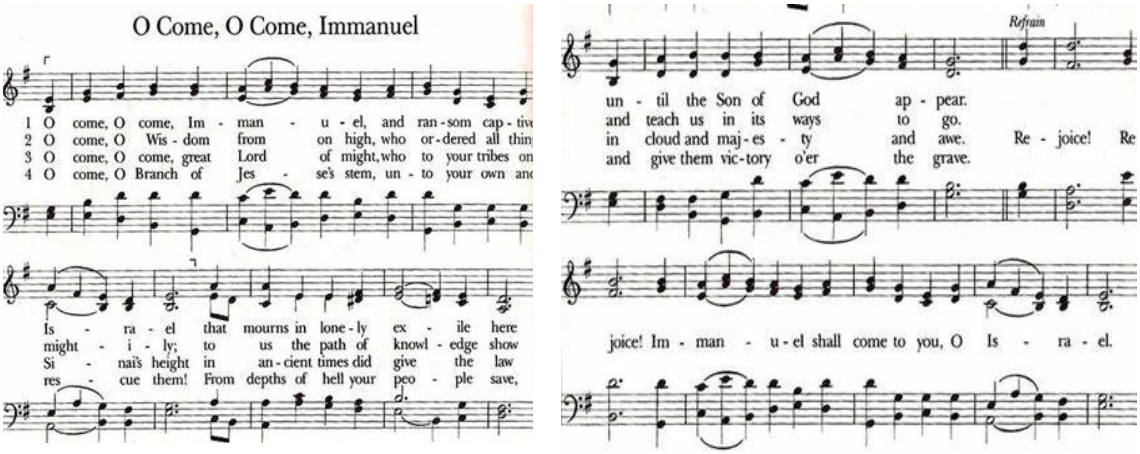
대림절의 영성은 우리에게 새롭게 임하실 하나님의 영을 기다리며,메시아를 향한 열망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절기이다.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것이다.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회개하며, 우리의 심령 안에 새롭게 태어나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해야 한다.이 열망은 온 교회와 공동체, 가정과 일터에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컨퍼런스에 모인 여성 지도자들은 대림절의 영성을 상징하는 촛불을 밝힌다. 이는 성탄의 구주이자 사랑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간절한 소망을 나누는 예전이다.

각자가 촛불을 붙이며, 옆 사람에게 “온 세상을 비추시고 밝히시는 구세주의 성취된 예언”을 전한다. 그 후, 모두 함께 대림절 찬양 “곧 오소서 임마누엘(O

Come, O Come Emmanuel)" [70]을 부른다. "곧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이 찬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으며,그 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대림절의 영성을 깊이 경험하게 된다.

<대림절의 초를 켜고 4주간 대림의 영성을 위한 나눔>



찬양을 부르며, 팀별로 모여 대림절의 영성을 나눈다.대림절 1주~4주 동안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에 대해 토의한 후, 팀별로 내용을 발표한다.

[70] "곧 오소서 임마누엘(O Come, O Come Emmanuel)" 가사 및 관련 정보https://www.bing.com/images/search?q [최종접속: 2025.1.13].

발표 주제

1.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는 과연 주님께 신뢰와 소망을 두고 있는가?

2.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의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가?

3.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내 나라, 가족, 삶과 일터 속에서 주님의 형상을 새겨갈 수 있는가?

4. 4주 동안 대림절의 주요 성구를 묵상하며,죄인인 선지자 이사야를 찾아오셔서 그의 삶에 개입하신 것처럼,나의 삶 속에서도 거룩하신 메시아의 도래와 종말론적 통치를 준비할 수 있는가?

- 골로새서 1:18
- 누가복음 1:67~80 (사가랴의 노래)
- 누가복음 1:46~56 (마리아의 노래)
- 마태복음 1:23
- 로마서 15:12
- 이사야서 (대림절의 리듬)

대림절 영성과 세례 요한 & 마리아의 본보기

대림절의 영성에서 세례 요한의 삶은 남을 위해 사랑을 내어주는 인생의 모범이다. 그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메시아로 소개하는 것이었다.반면,

마리아의 영성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눅 1:38)라는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과 순종의 모범을 보여준다.

동·중앙아프리카 여성 리더십 형성의 온전한 영성은 대림절의 영성에서 시작된다.세례요한과 마리아의 모범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과 공동체 안에 구속의 주로 임재 하시며,세상을 구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그분의 통치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룩한 영성이 되어야 한다.

그룹별 나눔 발표

A 그룹: 교회력을 실천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대림절의 실천 방법은?

- 교회력 자체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영성을 따르는 것이 핵심이다.
- 예수님의 삶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력 영성의 본질이며 중심이다.
-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실천 사례

- 올해 대림절 4주 동안 가정별·그룹별로 모여 성경을 묵상하고 복음을 선포하기로 한다.
- 그룹별 여성 리더들이 실천 사례를 나누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연구해 나간다.

B 그룹: 우리에게 대림절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 바르게 살아가는 삶이 곧 참된 예배의 의미이다.
- 하나님을 찬양하고, 타인과 세상을 섬기는 것이 참된 예배이다.
- 무관심, 영적 권태, 무기력을 회개하고, 대림절을 통해 새로운 회복을 경험해야 한다.
- 이사야서를 묵상하며,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기대해야 한다.

핵심 메시지

- 보여지는 예배 형식을 넘어, 진정한 영성을 추구해야 한다.
- 이사야는 문제 해결의 돌파구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
- 십자가의 목적은 메시아의 도래이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다.
-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

C 그룹: 마리아의 영성과 우리의 삶

- 마리아는 대림절 기간 동안 가장 닮아야 할 여성의 본보기이다.
- 주님의 임재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맞이해야 할 것인가?
- 마리아의 삶을 통해 우리는 경건 훈련과 순종의 교훈을 배워야 한다.
-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으로 깊이 개입하신다면, 우리는 마리아처럼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행해야 한다.

아프리카와 마리아의 소망

-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소망했던 것처럼, 아프리카도 소망을 품고 있다.
-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신다.
- 그분은 가난한 자, 압제받는 자, 억눌린 자들과 함께하시며, 동시에 구원의 임박함을 알리고 계신다.
- 마리아의 위치는 구원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인간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만 성육신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 그러므로 오늘날의 여성들도 마리아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동참해야 한다.

대림절 순례 탐방

A - 결박당한 자들을 방문

- 슬픔과 아픔이 있는 곳을 찾아간다.
- 이사야의 소식을 전하고, 장차 회복될 소망과 재림을 선포한다.
- 온 인류의 구세주께서 오셔서 다스리시고 승리하심을 선언한다.

B - 영적·사회적 속박에 묶여 있는 자들을 방문

- 주술, 정신 질환, 알코올과 마약 중독, 실패와 실망 속에 사는 자들

에게 복음을 전한다.

- 경제적 억압에 갇힌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회복을 선포한다.
- “곧 오실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선포하며, 그들의 삶에 구원이 임하도록 기도한다.

C - 범죄자와 사회적 소외 계층을 방문

- 법을 위반한 자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한다.
-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삶을 변화시키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한다.
-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악의 권세가 최종적으로 심판 받고, 인간의 삶과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선포한다.
- 성경을 묵상하며, 구원의 주를 기다리는 소망을 나눈다.

대림절의 영성은 단순히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깊이 묵상하고, 삶으로 실천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세상의 어두운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시간인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천하는 행동의 시간이어야 한다.

② 성탄절 (Christmas)

성탄의 영성은 영성의 출발점인 성육신에서 비롯된다. 성육신의 핵심은 인간인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간과 연합하신 사건이다.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구주로 탄생하셨다는 메시지가 성탄의 주된 강조점이다. 대림절 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의 오심은 예언의 성취이며, 성탄절은 온 우주 만물이 회복되는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다. 또한, 피조세계를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시기 위해 악한 권세를 멸하고자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신비가 성탄의 영성의 중심을 이룬다.

어릴 적 성탄절 경험은 잊을 수 없는 기억이다. 성탄 전야에 촛불 등잔을 들고 밤새도록 눈길을 헤치며 산을 넘고 개울을 건너면서, 시린 손을 호호 불며 꽁꽁 언 얼굴과 입술로 목청껏 찬송을 불렀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노엘,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다~’와 같은 성탄 찬송을 부르며 집집마다 순회하고, 탄일종을 울리며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쳤다.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설레고 그리운 순간들이다. 발이 시려 동동거리면서도 추위를 행복하게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주는 소망과 기쁨의 영성 때문이었으리라.

한국에서는 성탄절 전야부터 노래하고 춤추며, 연극과 칸타타로 성탄을 축하하며 밤새 축제의 시간을 보낸다. 성탄절의 영성은 구원의 주 메시아를 맞이하는 기쁨 속에서, 아기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설렘과 행복을 느끼며 빛과 희망을

맞이하는 것이다. 이 날은 한 번도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도 희망과 설렘으로 들뜨는 날이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설렘과 기대와 희망을 안겨 주시는 분이다.

아프리카에서도 성탄절은 기쁨과 축제의 날이다. 성탄절에는 축하의 선물을 나누고, 예배당에서 어른과 아이 할 것 없이 하루 종일 뛰고 춤추며 기쁨을 나눈다. 바나나로 만든 마또케와 주식인 **우갈리(뽀쇼)**를 요리해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는다. 낮부터 밤까지 거리에는 어린아이들까지 나와 성탄의 설렘과 기쁨을 함께한다. 또한, 가난하고 아픈 이들을 찾아가 나눔을 실천하며, 교회에 모여 춤을 추고 성탄의 행복을 나눈다. 하지만 성탄절이 되면 청소년들이 세상적으로 유혹받아 1년 중 가장 도둑이 성행하는 시기가 되기도 하는데, 이는 성탄절이 가지는 긍정적인 의미와 함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픈 현실이기도 하다.

우리 안에 새롭게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영성을 받아들이며, 12월 25일부터 열흘간 성탄절 축제를 지키자. 성탄의 크고 작은 축제가 여성 지도자들의 리더십을 통해 교회 공동체와 부족 공동체, 그리고 자녀들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동방박사의 역할을 실천해 보자.

성탄절 기쁨 나눔 실천 사례

- 성탄절에는 직접 재배한 농산물이나 과일을 바구니에 담아 이웃을 찾아가 메시아의 오심을 전하자.
- 각 부족의 고유한 춤사위를 통해 메시아의 탄생을 기쁘게 축하하자.
- 교회에서는 코이노니아(Koinonia) 친교와 함께 축제 음식을 나누고, 팀별로 요리 축제를 개최하자.

- 고난을 겪고 있는 자, 장애를 가진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웃을 교회로 초청하자.
- 메시아의 영성은 병든 자, 가난한 자, 슬픔에 빠진 자와 함께 한다.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함께하자.
- 구속 주 메시아는 온 인류의 메시아이시다. 리본과 편지를 만들어 메시아를 선포하자.
- 세속화 되어 가는 성탄의 영성을 회복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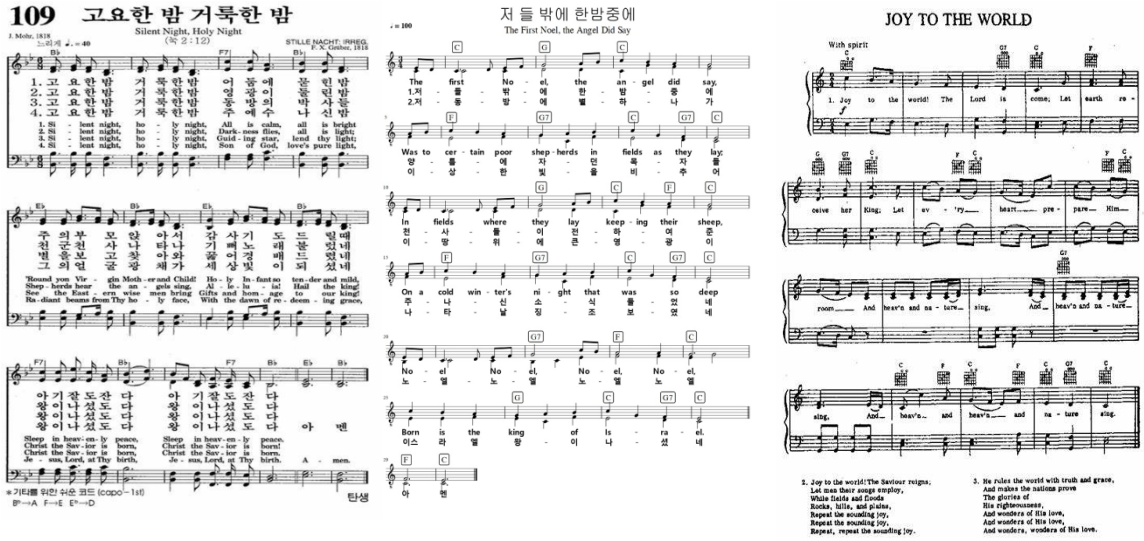
성탄절 예배와 선포

성탄 예배에서는 원형으로 모여 앉아 성탄의 경험을 나누며, 내가 속한 공동체에 메시아의 영성 메시지를 어떻게 선포할 것인지, 그리고 성탄의 기쁜 축제를 어떻게 준비하여 영향력을 미칠 것인지 토론한 후 발표한다.

찬양 3곡을 선정하여 돌림노래 형식으로 영어와 스와힐리어로 함께 부른다.[71]

1. ‘고요한 밤, 거룩한 밤’
2. ‘이스라엘 왕이 나셨다’
3. ‘기쁘다 구주 오셨네’

[71] https://www.bing.com/images/search?q [2025. 1. 15 최종접속].



이어서 성경 말씀을 희망차고 환한 목소리로 강렬하게 선포한다.

성경 말씀 선포:

"우리가 우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취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린도후서 4:5-6)

이외에도 다음 성구들을 윤독한 후 묵상한다.

- 이사야 40:1~11

- 히브리서 1:1~12
- 요한복음 1:1~18

마지막으로, 여성 지도자중 한명이 성탄절과 관련된 성구를 찾아 회중에게 낭독한다.

<성탄절 음식 만들기>

성찬이 확장된 자리에서 식탁은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음식이라는 꽃이 즐거움을 장식하고 행복 과 기쁨을 전한다. 가족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 중심에는 항상

< 우간다 >　　< 탄자니아>　　< 르완다 >

‘음식’ 이 자리한다. 연구자의 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사람을 만날 때 “밥 먹었느냐?” 라는 인사가 첫인사로 사용된다. 이는 단순한 식사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안부와 삶을 공유하는 문화적 표현이다.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음식은 인생의 요리 여정 속에서 할머니와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품게 한다. 음식은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수단을 넘어, 각 나라의 역사, 전통, 문화, 예술을 담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의례, 철학, 종교까지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음식 문화는 그 나라의

사회적 DNA를 담고 있는 독특한 문화로서, 사람들 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 음식은 열정적이고 관계적인 스토리텔러이며,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동·중앙 아프리카의 음식 문화는 수 세대에 걸친 이주와 식민주의의 영향으로 다양한 문명과 문화가 융합된 결과물이다. 이 지역은 유럽인, 아시아인, 아랍인, 아프리카인 그리고 수백 개의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약 2억 명 규모의 다문화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 결과, 동·중앙 아프리카의 대표 언어인 스와힐리어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공용어로, 약 2억 명이 사용하고 있다.

이 지역의 문화는 언어뿐만 아니라 요리, 건축, 예술 전반에 걸쳐 다국적 정체성과 공동체 문화를 반영한다. 동·중앙 아프리카의 음식은 아프리카 요리 중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각 나라별로 요리법은 비슷하지만 각기 고유한 전통과 다양한 조리 방식을 지닌다.

아프리카 요리는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는 자연적인 조리 방식을 통해 치유력이 뛰어난 것으로도 유명하다. 특히 손으로 떼어 먹는 동아프리카 주식인 **우갈리(Ugali, 뽀쇼(Posho))**는 카사바, 옥수수, 고구마 가루를 주 원료로 하며,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채소와 함께 먹을 때 최고의 영양소를 제공한다.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을 넘어 건강과 행동 양식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음식과 공동체: 우분투(Ubuntu)와 우자마(Ujamaa) 정신

주한 탄자니아 대사관 대사 부인이자 요리 연구가인 차바 루완야 마부라(Chaba Rhuwanya Mavury)는 그의 저서 *A Taste of East Africa*에서 다음과 같이 설

명한다.

>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문화이자 정치, 경제이며, 음식을 준비하고 나누는 과정은 공동체의 역사와 관습,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제공한다. 음식은 곧 우리 자신이다.[72]

오늘날 우리는 요리를 통해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자 한다. 아프리카의 열악한 주거 환경과 부엌 여건은 요리하는 과정 자체를 쉽지 않게 만든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문화에서는 손님을 위해 먼저 음식을 준비하고 초대하는 전통이 깊이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우정과 사랑, 배려와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우분투 정신은 전통적인 윤리관과 평화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중시하고 헌신을 강조하는 철학이다. 이는 타인과의 유대감, 용서와 화해, 자비와 사랑을 바탕으로 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용의 정신을 의미한다.

우자마 정신은 공동체적 유대감을 중시하며, 음식을 풍족하게 준비하여 함께 나누는 것이 곧 공동체를 강화하는 길이라는 철학을 담고 있다.

아프리카의 전통 음식 나눔 문화는 단순한 환대의 개념을 넘어, 먹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책임감을 의미하기도 한다. 동·중앙 아프리카의 다양한 음식 문화는 아프리카의 중심을 탐험하는 즐거운 여정이며,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문화적 매개체이다.

음식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고, 타인의 삶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며, 문화를 공유하는 공동체적 의미가 있다. 이번 성탄절에는 요리를 통한 나눔을 실천하며, '예수 이야기'를 레시피처럼 구전하여 전해 보자.

---

[72] Mavury, *A Taste of East Africa*, 9.

성탄의 영성 토의

1. 성탄의 의미 실천

-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육신의 영성을 가정, 공동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
- 성부, 성자, 성령의 연합을 상징하는 성탄의 의미를 어떤 이미지와 상징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2. 성육신의 영성과 리더십

- 성육신의 영성을 실천하는 삶은 자기를 비우는 삶이어야 한다.
- 지도자로서, 때로는 고난과 굴욕, 인정받지 못하는 수고, 손해를 감수하는 삶이 따라올 수도 있다. 이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
- 그리스도인은 온유와 겸손으로 다가가야 한다.

3. 성탄의 현재적 의미

- 성탄절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적인 참여를 요구한다.
- 나를 통해 구속사의 연속성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성탄의 영성을 어떻게 실체화할 것인가?

4. 공동체 속 성탄의 창조적 실천

- 내가 속한 가정, 공동체, 교회, 사회에서 성탄의 영성을 어떻게 창조적으로 구현할 것인가?
- 성탄의 기쁨과 나눔을 확장하기 위해 요리를 통한 나눔 실천을 어디까지 확대할 수 있을까?

성탄절의 영성은 단순히 기념하는 것이아니라, 현재의 삶속에서 실천하고

나누는 것에 있다. 아프리카의 ‘우분투’와 ‘우자마’ 정신처럼, 함께 나누는 성탄의 기쁨이 개인을 넘어 공동체 전체로 확장될 때, 그 의미는 더욱 깊어진다. 이번 성탄절에는 음식을 통한 나눔과 사랑의 실천을 통해, 성육신의 영성을 더욱 풍성하게 경험해보자.

③ 주현절 (Epiphany) 1월 6일 ~ 사순절까지

주현절의 영성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세주로서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때이다.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顯現, Epiphany)을 경축하는 것이다.

주현절의 영성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영성이 실천되고 펼쳐지는 지속적인 절기이기도 하다.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의 왕으로 오셨고, 우리는 그분을 마주하며 온 인류에 영광이 성취되는 절기를 맞이한다. 이는 단순히 구약의 예언 성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전환점을 의미한다.

주현절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인류 모두에게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절기이며,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 와서 경배했던 것처럼 온 세상이 왕이신 예수님을 직접 마주하고 경배하는 시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은 유대 민족을 넘어 온 인류를 위한 사건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 하시어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대속주로서의 기름부음을 받으신 후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또한,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러므로 예배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다.

아프리카에서의 주현절 영성 실천

아프리카에서는 성경을 소유한 여성이 많지 않다. 컨퍼런스에서는 주현절의 영성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 PPT와 인쇄물을 활용하여 마태복음 2:1-12절과 이사야서 60:1-9절을 읽는다.
- 예배와 기도를 통해 ** “주님의 영광만을 직시하고 마주하게 하소서” **라는 기도를 함께 드린다.
- 이를 통해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넘어 온 인류와 아프리카로 뻗어감을 인식한다.

주현절은 모든 사람에게 영적인 체험이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아프리카는 부족 중심의 문화 구조로 인해, 말씀이 부족한 신비적 · 주술적 문화가 성행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의료 시스템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샤머니즘을 통해 치유와 위안을 얻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주현절의 참된 의미는 신비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실체적인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다. 주현절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개인과 가정, 공동체를 넘어 아프리카 전역으로 확장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아프리카의 여성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에 의지하여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주현절 영성이 강조하는 목적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삶에 찾아오셨듯이, 동 · 중앙 아프리카의 여성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되도록 해야 한다. 예수님의 삶을 중심에 두고, 그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도자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리더십이다.

컨퍼런스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새기며, 그리스도의 삶을 증거하는 방법에 대해 그룹 토의를 진행한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을 고민하며, 교회력 패턴을 활용한 활동을 진행한다.

주현절 활동과 나눔 + 게임

준비물

- 물감, 붓, 색 매직, 천(에코백), 도화지

활동 내용

1. 팀별로 교회력을 제작
   - 물감과 색 매직을 이용해 에코백, 천, 도화지(4절)에 교회력을 그려본다.
   - 각자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하심을 경험했던 순간을 공유한다.
2. 공동체 적용
   - 내가 속한 공동체, 사회, 가족 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하셨던 방식을 적용해 본다.
3. 교회력 서클 그리기

- 교회력 패턴을 원형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영성을 닮아가는 여정을 1년 동안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계획한다.
- 그룹 내에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교회력을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고민한다.

4. 교회력 패턴을 통한 나눔

- 교회력을 그리면서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이야기를 나눈다.

5. 교회력 절기 외우기 게임

- 원형으로 앉아 풍선을 음악에 맞춰 전달하며, 교회력 절기를 외운다. *(대림절 - 성탄절 - 주현절 - 사순절 - 부활절 - 성령강림절 - 감사절)*
- 진행자가 휘슬을 불면, 풍선을 들고 있는 사람이 즉시 일어나 절기를 외운다.
- 승리팀에게는 성탄 트리 열쇠고리 선물을 제공한다.
- 패배한 팀에서는 대표 1명이 나와 해당 절기의 영성이나 실천 사례, 아이디어 한 가지를 발표한다. *(선물로 비 누제공)*

활동 나눔과 기도

- 동 · 중앙 아프리카의 여성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 주현절의 영성을 통해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기를 기도한다.

-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을 삶 속에서 증거하는 산 증인이 되도록 다짐하며 마무리한다.

컨퍼런스 이후 실천 과제

1. 교회력 패턴의 색상이 들어간 옷, 가방, 머플러를 착용하고 오기

- 다음 모임에서는 교회력의 의미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교회력 색상을 활용한 아이템을 착용하도록 한다.

2. 주현절 영성이 내게 주는 통찰은 무엇인가?

- 나는 소명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 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며, 그리스도를 드러낼 것인가?

주현절의 영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절기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영광이 실현되는 시기이다. 단순히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하고 나누는 것이 주현절의 핵심이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어떻게 주현절의 영성을 실천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적용해보자.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도록 기꺼이 순종하고 나아가길 소망한다.

<교회력 그리기><절기 별 드레스 코드>

절 기	색 깔
대림절	자주색
성탄절	흰 색
주현절	초록색
사순절	자주색
부활절	흰색/황금색
오순절	빨간색

④ 사순절 (Lent): 드라마 성구- 마태복음 23장 29~30

사순절은 부활절 전까지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의 기간을 의미하며, ‘재의 수요일’ 부터 시작하여 부활절 전 토요일까지 이어진다. 이 40일 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을 기억하며, 고난과 시련, 인내의 상징을 되새긴다. 이 기간 동안 그리스도인은 참회, 금식, 자선 활동을 실천하며, 내면을 정결하게 가꾸는 시간을 갖는다.

사순절의 영성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생명의 주기이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승리로 이끄신 부활의 영성이다. 또한, 이는 빛의 주기에서 생명의 주기로 이어지는 교회력의 중심부와 같은 역할을 한다.

따라서, 사순절은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기독교 교회력의 심장부로서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할 영성의 리듬이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실제로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은 채 살아간다. 우리는 사순절을 통해 우리 안에 자리한 욕망과 세속적인 야망을 회개하고, 사순절의 영성을 우리의 영적 실체로 받아들이는 절기로 삼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처형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하는 새로운 삶을 허락받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순절의 영성, 즉 죽음과 부활의 영성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선물하는 핵심적인 신앙의 기둥이다.

사순절의 영성을 온전히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단순히 의식적으로 금식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의 변화가 근본적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 성탄절에만 의미 있는 카드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사순절을 죽음

과 부활을 경축하는 절기로 삼아야 한다.

- 사순절을 무겁고 어두운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을 준비하는 신앙의 과정으로 바라봐야 한다.
- 특별히, 비아 돌로로사(Via Dolorosa,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으셨던 고난의 길)를 연출하여 순례하며, 각 지점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헌신과 경건의 의미를 새겨야 한다.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 지도자들과 함께하는 사순절 영성 실천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 지도자들에게 사순절의 영성을 더욱 깊이 체험하도록 돕기 위해, 재의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영적 순례 여정을 실천하도록 하였다.아프리카 예배는 일반적으로 활달하고 기쁨이 넘치는 찬양과 춤이 중심이 된다. 그러나 재의 수요일의 영성은 성탄절의 기쁨과는 다르다. 참회와 경건의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내면의 성찰과 훈련이 필요하다.

재의 수요일: 사순절의 시작

1. 예배의 분위기 조성

- 예배당을 조용한 분위기로 유지하며, 희미한 불빛을 사용한다.
- 서로 침묵으로 목례하며 인사한다.
- 리더가 기도를 올린다.

2. 기도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주님께서는 친히 창조하신 그 어느 것도 미워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묵상하게 하소서.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온전한 사죄와 용서를 구합니다.이제부터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3. 성경 본문 낭독 (하나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

- 신약: 마태복음 6:1621 / 고린도후서 5:206:10
- 구약: 요엘 2:12, 1217 / 시편 103:2

4. 성회 의식 (재를 뿌리는 예식)

- 재를 이마에 바르며, 하나님과의 화해를 상징하는 의식을 진행한다.
- 이 의식은 기독교인으로서의 거짓된 행위를 회개하고, 우리가 참된 교회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을 포함한다.
- 세상과의 막힌 담을 허물고, 나의 고집, 욕심, 편견, 무관심, 경멸, 교회로서의 책임 회피 등을 회개하는 시간이다.
-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도받는 회개의 영성을 되새긴다.
- 재는 인생의 유한함을 상기시키며, 회개의 상징이자 부활을 선포하는 평화의 표시이다.

5. 시편 51편 묵상 및 그룹 나눔 활동

- 시편 51편을 묵상한 후, 자신의 회개와 사순절의 의미를 기도문으로 작성한다.
- 개인적으로 다짐할 사순절 실천 목표를 공유한다.

사순절 순례: 영적인 의미를 새기는 여정

사순절의 영성은 고난, 죽음, 부활을 의미하며, 우리는 이를 통해 우리 안에 숨겨진 영적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다.

사순절 순례지 예시

1. 잔지바르(T국)의 노예 매매 시장 순례

- 아프리카 노예 무역의 역사를 돌아보며, 억압받고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을 묵상한다.

2. R국(르완다)의 종족 전쟁 기념관 (제노사이드 메모리얼)

- 1994년 종족 학살로 100만 명이 희생된 역사적 장소를 방문하여,
- 고난과 희생 속에서도 회복과 화해의 메시지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 기도한다.

사순절은 단순한 금식과 절제가 아니라, 참된 회개와 내면의 변화를 위한 기간이다.이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 재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우리의 삶이 진정한 회개의 여정이 되도록 하자.
- 사순절은 고난을 통해 부활을 준비하는 시간이며, 새로운 생명을 받아들이는 시간이다.
- 나에게 주어진 사순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어떤 결단을 할 것인가?

사순절의 영성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부활의 기쁨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길이 되기를 소망한다.

<T국 잔지바르 노예매매시장>

<R국의 제노사이드 메모리얼 센터>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 지도자 컨퍼런스 성경공부 모습>

⑤ 고난주간: 마태복음 26장 30~55절

고난주간의 목적과 취지: 십자가 만들기와 성삼일 체험 퍼포먼스

1. 고난주간과 성삼일의 의미

사순절의 가장 중요한 절정은 **성삼일(聖三日, Holy Triduum)**이다. 성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직접 체험하는 극적인 구속 사건이며, 신비로운 구원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고난의 영성이 집약된 시기이다.

성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죽음, 그리고 장사 지낸 후 부활로 이어지는 과정을 기념하는 시간으로, 1년 중 가장 엄숙하고 장엄하며 거룩한 날이다.

고난주간의 핵심 영성은 십자가이다.

-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자 의미를 담고 있으며,

-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통을 감내하신 사랑의 절정을 의미한다.

2. 동•중앙 아프리카에서의 사역 경험: 십자가와 여성의 삶

10년 전, 연구자가 여성 사역을 위해 동 · 중앙 아프리카의 R국과 C국 국경을 넘었을 때, 내전으로 인해 여성들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

- 전쟁과 가난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로 내몰린 여성들은 에이즈 환자가 많았으며,
-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어 흑단과 비즈로 만든 작은 십자가를 1달러에 판매하고 있었다.
- 이 십자가를 팔아야만 치료비를 마련할 수 있었지만, 1달러조차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현실에 처해 있었다.

연구자는 당시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사용해 가능한 많은 십자가를 구입한 후, 주변 지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 십자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생존과 희망, 그리고 믿음의 증거물이었다.

3. 고난주간 컨퍼런스: 남성과 함께하는 십자가 퍼포먼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3개국에서 모인 지역사회 남성 비숍들을 초대하여, 고난주간의 영성을 공동으로 실천하는 활동을 계획하였다.

- 여성의 문제는 남성과 함께 해결해야 한다.
- 여성들이 겪는 사회적 문제는 남성과의 협력 없이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 교회와 지역사회 리더들이 함께 참여해야 변화가 가능하다.

따라서, 고난주간의 십자가 신학을 연출하는 퍼포먼스를 기획하였다.

- 빨간색 리본 끈을 사용하여 모든 참가자들이 하나로 연결된 십자가 형상을 만들었다.
- 빨간색은 예수님의 보혈과 희생의 사랑을 상징한다.
- 하나로 연결된 십자가는 공동체가 함께 짊어지는 고난과 연합된 신앙을 의미한다.
- 마을 근처에서 가느다란 나뭇가지를 수집하여, 참가자들이 직접 손으로 십자가를 제작하였다.
- 십자가를 만드는 과정은 고난과 희생의 의미를 되새기는 신앙적 행위가 되었다.
- 각자가 만든 십자가를 들고 함께 예배하며,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4. 십자가의 영성: 희생과 연합

십자가는 단순한 형상이 아니라, 고난주간을 통해 우리가 경험해야 할 영적 체험이다.

-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를 지셨듯이,
- 우리도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희생과 나눔을 실천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 활동을 통해,

- 참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공동체 속에서 실천할 것을 다짐하였다.
- 남성과 여성 지도자들이 함께하는 십자가 퍼포먼스를 통해,
- 고난을 짊어지는 공동체적 연대의 중요성을 깨닫고,
-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함께하는 신앙적 책임을 더욱 깊이 인식하였다.

고난주간은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이다.

-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연약한 이웃을 위한 희생과 나눔을 요청한다.
-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십자가의 의미를 더욱 깊이 새기고, 공동체가 함께 짊어지는 책임을 실천할 것을 다짐하였다. 고난주간을 지나며, 우리는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부활의 소망을 준비하는 영적 여정을 지속해야 한다.

<십자가로 하나되는 교회력의 고난주간 체험활동>

성삼일, 비아 돌로로사 스킷 드라마 / 십자가 경배 예배 (가상 칠언)

1. 성삼일의 의미와 스킷 드라마 예배

고난주간의 영성을 깊이 체험하기 위해 여성 지도자들이 분과별로 고난의 스킷 드라마 예배를 연출하였다.

성삼일(聖三日, Holy Triduum)은 기독교 전통에서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 부활로 이어지는 가장 거룩한 시간을 의미한다.

- 성 목요일(Maundy Thursday)
- 예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사랑의 새 계명을 선포하신 날이다.

- 이후 체포되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며, 이를 **‘세족 목요일 예배’**로 진행하였다.
- 성 금요일(Good Friday) - 십자가의 죽음
-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기념하는 가장 엄숙한 날이다.
- 이를 재현하기 위해, 3가지 유형의 예배를 드렸다.

2. 십자가의 길 (비아돌로로사) 재현

예수님의 고난을 더욱 깊이 묵상하기 위해, 비아돌로로사(Via Dolorosa, 십자가의 길) 예배를 진행하였다.

1. 여성 지도자들이 그룹별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 14개 지점에서 멈추어 묵상

2. 초청된 비숍들이 십자가를 지고 이어서 행진하며, 빨간 리본 끈으로 십자가의 길을 연결

- 빨간 리본 끈은 예수님의 보혈과 고난을 상징하며,
-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는 행위는 공동체적 연대와 신앙의 결속을 의미한다.

3. 성 금요일 예배: 십자가 경배와 가상 칠언

1) 세 시간의 헌신 예배 (The Three Hours Devotion)

-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신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헌신의

시간을 가짐

- 침묵과 묵상, 찬양을 통해 예수님의 고통을 묵상

2) 가상 칠언(The Seven Last Words) 퍼포먼스

-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남기신 7가지 말씀을 중심으로 한 스킷 드라마 공연
- 각 그룹이 예수님의 가상 칠언을 연기하며, 십자가 위에서의 사랑과 용서를 나눔

3) 십자가 경배 예배 (The Veneration of the Cross)

- 십자가 앞에서 예배를 드리며,
- 십자가에 입을 맞추거나 손을 얹으며 경배와 감사의 마음을 표현
- 십자가는 공동체의 중심에 세우고, 모든 참석자가 원형으로 서서 “감사하세”, “경배하세” 찬양을 부르며 하나됨을 나타냄

4. 성경 말씀과 중보 기도

- 성경 본문 낭독: 이사야서, 시편, 히브리서, 요한복음에서 수난 기사 및 고난 찬송
- 침묵 기도: 바닥에 엎드리거나 머리를 숙이며 회개와 묵상의 시간을 가짐
- 아프리카 여성 목회자가 짧은 말씀을 선포한 후 중보 기도를 인도함

중보 기도 주제

1.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위해

2. 나라와 민족을 위해

3. 전쟁과 박해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4. 난민과 고난받는 이들을 위해

5.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을 위해

- 이 기도는 슬픔과 환란 속에서도 희망을 선포하며,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주는 기도이다.

5. 성 토요일과 부활절 준비

성공회 교단이 주를 이루는 동·중앙 아프리카에서는 십자가를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예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신앙의 중심으로 여긴다.

- 성 삼일의 마지막 날인 **성 토요일(Holy Saturday)**에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 부활절의 위대한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 침묵 속에서 금식하며 지낸다.
- 철야 기도를 드리며, 예수님의 무덤에서 부활을 기다리는 시간을 가짐
- 동·중앙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특히 성 금요일 밤을 철야 기도로 보내는 전통이 있다.

- 연구자의 청소년 시절에도 밤을 새워 금요 철야 기도를 드렸던 경험이 있다.
- 이러한 모든 예배와 퍼포먼스는 예수님의 삶,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룩한 과정이다.

고난주간과 성삼일의 예배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더욱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다.

- 십자가를 단순한 고난의 상징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실천하는 삶으로 이어가야 한다.
- 고난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붙잡으며, 공동체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고난주간을 통해 우리의 삶속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맞이하는 준비를 하자.

성만찬과 식탁

성만찬은 언약의 식사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으로 삼는 감사의 신성한 가족 식사이기도 하다. 레너드 스윗은 성만찬을 '죄'와 '사망'이라는 패배와 죽음의 최악, 그리고 '은혜'와 '생명'이라는 축하 잔치의 최선을 하나로 이어주는 잔치로 표현했다.[73] 교회력에서 사순절 영성의 중심인 주님의 만찬을 살펴보는 것은 여성 리더십 컨퍼런스의 핵심이다. 세계가 지구촌이 된 오늘날, 예전(禮典)은 어떤 형태로, 어떻게 시행되어야 할까? 아프리카는 여전히 굶주리고, 헐벗고, 목마르며, 억압받고 있으며, 끊임없는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예배학자 네이선 미첼은 '예배의 목표는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해하는 것'이며, '예전은 행함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행위로서 상호 의존적인 예전이 만나는 지점에서 삼위일체적 세 가지 예전을 소개했다. 즉, "세상의 예전", "교회의 예전", "이웃의 예전"에서

[73]레너드 스윗, 『관계의영성』 윤종석 역 (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2007), 174.

예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74]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 지도자들의 리더십 영성 형성을 위한 성찬의식은 교회의 예전으로서 성만찬과, 이웃의 예전으로 확장된 공동체가 함께하는 '주님의 식탁'으로 구성된다.

아프리카의 다양한 기독교 문화적 특성상, 성찬의식에는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한다. 하나는 공동체가 둥글게 모여 서로 떡을 나눈 후, 포도주에 적신 떡을 주님의 살과 피로 선언하고 먹여주는 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떡과 포도주를 집례자를 통해 받는 방식이다. 여성 지도자들의 컨퍼런스 성만찬에서는 성찬 찬양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를 부르며 한 줄로 나와 집례자로부터 성찬을 받는 예식을 진행했다.

컨퍼런스에서 성찬이 갖는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 지도자들이 단 한 번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켜야 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기념식이라는 데 있다. 이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까지 반복해서 전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재림을 포함하는 신앙의 핵심이다. 성경통독 전문가 조병호는 성찬식이 이러한 모든 요소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제는 다섯 가지 제사,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의 기념식'인 성찬식은 주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구속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75]

사도행전 2장 42절의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를 주제로 삼아, 하나됨의 의미 속에서 주님의 부활과 임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주님의 만찬을 삶으로 실천하는 자들이 따라야 할 성경 말씀인 사도행전 2장 44~47절[76]을 중심으로, 교회력 영성에 따라 사는 우리가 사순절 이후 성령강림절

---

[74] Nathan D. Mitchell, 『예배, 신비를만나다』 안선희 역 (서울: 바이북스, 2014), 7.
[75] 조병호, 『통通하는마지막유월절첫번째성찬식』 (서울: 통독원, 2018), 210.
[76]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로 이어지는 유월절 영성을 확장된 메시지로 설정하고, 오늘 성찬의 주제로 삼았다.

동아프리카 R국의 기독교 비율(가톨릭과 개신교 포함)은 60~70%에 이른다. 그러나 올해 정부는 교회가 법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천 개의 교회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2018년 우기(雨期) 중 한 시골 마을에서 발생한 낙뢰로 인해 예배 중이던 성도들이 전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는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행정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교회 건물은 생철(生鐵) 지붕이 아닌 벽돌로 건축해야 하며, 화재 안전 및 보건·위생 기준을 충족하고 수세식 공동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조건이 마련되었으며, 이를 충족할 수 있도록 5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R국의 여성 지도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이러한 위기 상황으로 인해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하신 만찬처럼 “날마다 집에 모이기를 힘쓰며 떡을 떼며” 가정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위한 성찬 예배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은 많은 무리가 모일 때든, 소수의 사람들이 모일 때든, 어느 장소에서든 열려 있는 식탁이었으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만찬이었다.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 지도자들에게 예배로서의 식탁과 만찬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천해야 할 복음 선포와 영혼 구원에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했다. 특히 R국에서는 성찬 의식을 교회 안에서만 시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컨퍼런스가 개최된 성공회 연수원에서는 성찬식을 진행할 수 없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한 끝에, 컨퍼런스에 참석한 400여 명의 성도들을 위해 연수원 마당에서 ‘주님의 식탁’이라는 열린 식탁을 마련했다.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 사도행전 *2*장 *44~47*절

마치 디베랴 바닷가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연수원 담장 너머 오가는 행인들과 한 끼 식사로 배를 채우는 허기진 학교 아이들까지 초청하여 함께하는 마당 식탁을 열었다. 이는 성찬을 교회 내에서만이 아니라, 경계선 없는 '주님의 식탁'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3개국이 함께한 컨퍼런스의 만찬 중에서도 가장 의미 있고 확장된 성찬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주님의 식탁이 열리기 전, 성공회 비숍은 모든 비숍과 목회자들을 남녀 구분 없이 불러 모았다. 연구자는 앞서 '여성신학의 이해'에서 "진정한 여성신학은 남성과 함께할 때 동등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여성 지도자 리더십 컨퍼런스는 남성에게까지 확장되었고, 한 공간 안에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식탁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주님의 식탁'을 마친 후, 여성 지도자들은 열띤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R국에서는 정부 지침에 따라 "가정에서 7명까지 모일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예수님 시대나 바울 시대에도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곧 교회였다. 즉, 나의 집이 교회가 될 수 있으며, 나의 식탁이 주님의 만찬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R국의 교회 폐쇄 정책에 대응하여 예배 장소와 성찬 의식의 공간을 가정교회로 전환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으로 떠올랐다. 이 과정에서 여성 지도자들의 리더십이 진정으로 발휘되었으며, 뜨거운 영적 나눔이 이루어졌다.

누가복음 24장과 요한복음 21장은 성찬의 관례 중 두 가지 전례를 소개한다. 하나는 '떡'과 '잔'이라는 표적을 통한 종교 의식으로서의 '성찬'이며, 다른 하나는 주님의 식탁으로서의 '전례'이다. 주님의 식탁은 예배가 포함된 성찬이다. 성경은 예배 장소에 대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77]고 말씀한다. 따라서 정부의 교회 폐쇄 정책으로 인해 수천 개의 교회가 사라진다 해도, 가정에서 모이거나,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뜰과 마당에서 함께 주님의 식탁을 나누면 된다.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고, 성례가 있으며, 구속사를 이루는 복음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동·중앙 아프리카의 종교는 다양하며, 의례도 각기 다르다. 정교회는 성찬대를 희생의 ‘제의’로 이해하며, 영국국교회인 성공회와 가톨릭은 성찬의 식탁을 ‘제대’라고 부른다. 이는 곧 제사의 단상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을 따를 때, 성찬대는 단순히 ‘식탁’이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신 자리는 성찬의 개념을 확장하여, 누구나 와서 함께 먹을 수 있는 ‘열린 식탁’이었다.

신약학자 할 타우직은 그의 책 “기독교는 식사에서 시작되었다”[78]에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식사를 통해 사회적 전망을 모색했으며, 이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하늘의 궁정 또는 하늘의 도성”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기독교가 식사에서 비롯되었으며, 따라서 주님의 식탁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체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성찬은 실제적인 삶에서 경계 없이 이루어져야 할 ‘참여’이다.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주님의 식탁을 나누어야 한다. 그러나 가부장적 문화가 강한 아프리카에서는 식탁 문화에서도 성차별이 존재한다. 즉, 사회적 서열이 식사 자리에까지 반영되는 것이다. 하지만 식사는 사회적 지위에 따라 서열화되는 것이 아니라, 평등 속에서 우정과 기쁨을 나누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 동·중앙 아프리카의 윤리적 규범 안에 만연한 서열화된

---

[77]마태복음 18장 20절.
[78]할타우직, 『기독교는식사에서시작되었다』, 조익표외 3인역 (서울: 동연, 2018), 133.

식사 문화는 주님의 식탁 정신과는 거리가 멀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음식이 깨끗한 것처럼, 우리는 종이든 자유인이든, 나그네든 주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장애인이든 어린이든 음식 앞에서 차별이 없어야 한다.

레너드 스윗은 “예수 그리스도는 열린 식탁의 메시아로 오셨다”고 말했다. 예수님께서 식사에 초대하신 사람들은 특정한 계층에 국한되지 않았다. 그분은 눈먼 자, 다리를 저는 자, 세리와 이방인, 여성들, 굶주리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식사하셨다. 마태복음 2장 15절은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비난했다. 또한 누가복음 14장 12~14절에는 “잔치를 베풀 때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 다리를 저는 자들과 눈먼 자를 청하라”고 기록되어 있다.

특히,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식사 자리에는 여성들이 참여했다. 그러나 당시 사회에서는 이를 탐탁지 않게 여겼으며, 예수님이 창녀들과 식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다. 이는 여성을 하위적으로 대하는 당시의 문화적 시각을 반영한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모임이 유익하지 않거나, 해를 끼치거나, 분쟁과 파당을 조성하거나, 옳지 못한 행동을 하는 자들은 ‘떡을 뗄 수 없다’고 경고했다.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16~17절에서 축복의 잔과 떼는 떡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하며, 성찬에 참여하는 공동체의 의미를 강조했다. 즉, *코이노니아(Koinonia)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십자가에 뿌리를 둔 ‘떡’과 ‘잔’의 성찬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식사이다.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 지도자들에게 성찬은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니라, 사회와 문화 속에서 저항의 몸짓이자, 여성의 참여와 지도력을 논의하는 담론이 되기도 한다. 여성은 자신의 정체성을 넘어 사회적 삶까지 변화시키는 존재이다. 이는

여성의 영성이 단순한 신앙적 차원을 넘어, 해방적이고 공동체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사역을 경험하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성찬의 영성은 여성의 존재를 긍정하는 신학적 선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존재감을 인정받지 못한 아프리카 여성들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상처를 싸매며, 필요를 채우고, 복음을 확장하는 용기와 능력, 담대함을 부여하는 사건이다.

또한, 아프리카 부족 사회의 문화적 특성 가운데 하나는 음식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음식의 귀천을 가리는 문화 의식이다. 이러한 문화적 태도는 성찬의 영성 속에서 반드시 깨어져야 한다. 성찬의 영성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로로 삼아,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타인을 위해 살아야 할 사명을 더욱 굳건하게 한다.

따라서 성찬의 영성은 영혼과 육체, 정신을 치유하며, 그리스도와의 연합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연합을 이루는 과정이다. 성찬을 통해 우리는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철저히 변화되어야 한다. 즉, 나의 생각, 배경, 감정, 지위, 편견에 따라 식탁에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정신으로 타인을 대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식사는 곧 십자가의 담론으로 이어져야 한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주님의 식탁은 곧 우리의 식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임재와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 속에서 떡을 떼어야 하며, 죽음을 기념하는 주님의 만찬과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성찬식은 찬양과 감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

또한, 성찬은 제사의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가 주님의 식탁에 둘러서게 될 때, 우리의 생각과 감정까지도 예배에 포함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함께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성만찬은 곧 열린 식탁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 지도자 3개국에서 행한 성만찬의 영성은 우정과 기쁨, 즐거움의 식사 축제였으며, 영혼을 풍성하게 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는 영적 순례이자, 여성들의 영성 형성을 위한 신학적 담론이 되었다. 성만찬의 영성은 그리스도를 신비롭게 기억하게 하며, 개인에서 가정과 가족, 공동체, 사회, 민족으로 확장되는 실천적 예배이자 교회였다.

연구자는 여성 지도자들과의 식탁에서 고난주간 성삼일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간증하였다. 2년 전,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 영성 형성을 위한 리더십 컨퍼런스를 12년간 함께 동역해 온 한 여교수가 암 투병 중이었다. 연구자는 그녀의 병상을 일주일간 지키게 되었고, 그 시기가 마침 고난주간이었다. 환자는 중증이었지만 의식이 또렷했기에, 고난주간 성삼일 병상 의식을 행하기로 했다. 연구자는 병상에서 성찬례와 세족식을 집전하며, 절기에 따른 성경을 읽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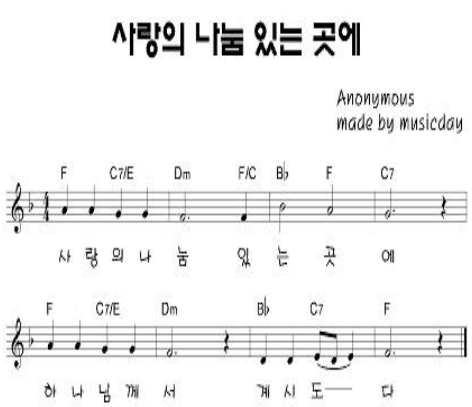
세족식은 대야에 물을 담아 침대에서 그녀의 발을 씻겨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환자는 흐느껴 울었다. 마치 주님의 고난과 하나 되는 순간처럼 느껴졌다. 연구자가 다 씻긴 발을 들어 올려 입을 맞추자, 요한복음 13장 1~5절을 낭독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 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선포하였다. 그리고 세족식의 의미가 그녀의 마음 깊이 새겨지도록, 침묵 속에서 기다려 주었다.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제정하신 성 목요일의 병상 세족식 동안, 환자는 끊임없이 울고 또 울었다. 성찬의 잔은 눈물로 범벅이 되었다. 주님의 살과 피

를 먹고 마시는 순간, 그녀는 온몸의 남은 수분을 다 쏟아내듯 밤새 울었다. 떡과 잔, 몸과 십자가가 하나 되는 경험이었다. 빵과 포도주는 예수의 죽음과의 깊은 연관성을 상기시켜 주었고, 환자는 피를 토하는 고통 속에서도 고난주간 성삼일을 온몸으로 체험했다.

성 금요일 밤, 그녀는 고통 속에서 몸부림쳤다. 그러나 그녀는 연구자에게 "평안하다" 는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마치 그 밤, 무덤에 계신 주님과 하나 된 듯, 조용히 어둠을 맞이했다. 그리고 부활주일 새벽, 그녀는 소천하였다.그녀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죽음은 주님께서 유일하게 초대한 산 소망의 부활 자리였다. 또한, 그녀가 마지막으로 경험한 성찬은 예배가 있는 교회였다.

사순절의 중심이자 꽃인 성만찬의 영성, 떡과 잔은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어디에서든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차별 없는 식사이다. 날마다 떡을 떼며 먹고 마시는 주님의 식탁은 열린 초대이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주님의 식탁’으로의 초대>

초대장	오늘 당신은 예수님과 단둘이서 마주 앉아 식사를 하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나누시겠습니까?
나사렛 예수와 함께 하는 만찬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컨퍼런스 마당 잔디밭 컨퍼런스 마지막날 정오12시	만찬메뉴: 짜파티, 마또께, 염소고기, 닭슈트, 토마토슈프, 콩슈프, 빵, 구운바나나, 삶은고구마, 튀긴감자, 콩밥, 샐러드, 아보카도, 패션플룻, 파파야, 망고, 밥, 나물, 그린 티, 커피, 음료

‘가리부 차쿨라(Karibu Chakula)’ ‘진수성찬의 음식세계에 오신 여러분을환영합니다.’

⑥ 부활절: 마태복음 28장 1~10절

교회력의 영적인 원천인 부활절은 교회력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이다. 이는 단 하루의 기념일이 아니라, 성령강림절까지 7주간 이어지는 기쁨과 환희의 축제 절기이기도 하다. 부활절은 1년 전체 교회력의 중심 사건이자 핵심 영성이다. 특히,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부활의 종교이다.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다시 부활하신다는 선포이며, 동시에 개인의 신앙적 체험을 통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사건이기도 하다. 내 안에 주님의 부활이 있어야만, 기다림의 절기인 대림절, 그리고 온전한 기쁨의 성탄절을 깊이 경험할 수 있다. 또한, 부활의 영성은 주현절의 기쁨과 연결되며, 오순절까지 이어지는 50일간의 은혜로운 여정이 된다. 그러므로 부활절의 영성은 교회력의 원동력이며, 신앙의 핵심이 자리하는 중심축이다.

동·중앙 아프리카에서는 빛의 절기인 성탄절과 함께 가장 큰 기쁨의 축제가 바로 부활절이다.

예배학 연구자 그렉 와일드(Greg Wilde)는 “부활은 나를 위한 것이지만 결코 자아 중심적인 사건이 아니다. 부활의 선포와 내적인 부활 체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부활절 영성의 핵심이다”[79]라고 설명한다. 이처럼, 1년의 교회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와 사건들은 부활절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부활절이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사건이며,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구현되어야 할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

[79] Robert E. Webber, 『교회력에따른예배와설교』 이승진 역(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6), 202.

그렇다면, 실제로 부활하신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한, 부활의 영성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과 3절[80]에서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신약성서의 4복음서는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하나님을 선포하며, 새로운 창조의 세계에서 정의와 자유의 실현을 기쁜 승리의 소식으로 전한다. 이는 곧 죄의 속박에서의 승리, 죽음에서의 승리, 가난과 억압과 소외에서의 승리, 그리고 자유와 해방의 승리를 의미한다.

부활이 강조하는 핵심 진리는 사탄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를 이루신 것이다. 따라서 부활의 본질은 피조세계를 파괴하고, 타락시키며, 허무하게 만들고, 부패하게 하며,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온 피조계와 천지만물이 새롭게 되었다는 사실에 있다.

부활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확인하는 날이다. 이것이 부활의 메시지이다.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피조물을 썩어짐과 종살이의 상태에서 해방시키셨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셨다고 강조하고 있다.

동 · 중앙 아프리카 여성 지도자의 리더십과 영성 형성을 위한 연구 컨퍼런스가 진행된 시기가 부활절기는 아니었지만, 교회력 세미나가 열렸기에 부활의 성경적 은유인 세례 의식을 진행하였다.세례 대상자는 지역사회 여성 교육 및 사회 지도자들이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영적으로 경험하고 부활의 새 생명을 얻어사는 삶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지역 교회를 담당하는 여성 목회자들이 세례 문답을

---

[80]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도다…..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 골로새서 3장 1절, 3절**

진행한 후, 세례 의식을 집전하였다.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은유적 표현이며, 동시에 우리가 죄에 대해 죽어야 한다는 신앙적 결단이다. 세례를 받은 여성들에게는 세례 증서와 성경이 선물로 주어졌다.

<부활절 세례 후 성경증정식><부활절 계란나누기>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서 매일 살아가야 할 핵심 메시지는 부활의 영성과 주님의 몸과 연합된 세례의 상관관계이다. 로마서 6장 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부활은 기쁨과 생명력이 넘치는 영성의 절기이다. 돌이 굴려진 무덤에서 생명의 부활로 이어지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는 영광의 찬양이 온 세상을 덮는다. 이처럼 부활절은 메시아의 환희가 가득한 축제의 날이다.이 절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신비의 삶을 확신하는 시간이며, 새로운 삶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시간

이다.

아프리카는 종려나무 가지가 풍부한 지역이다. 종려주일부터 시작된 퍼포먼스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를 외치는 행사가 열린다. 이러한 환희의 표현은 부활절 퍼레이드로 이어진다. 여성 지도자들은 컨퍼런스 현장을 중심으로 주변 골목을 누비며 부활절의 기쁨을 전하고, 계란을 나누었다.

부활은 곧 공동체적인 경험이며, 공동체의 갱신이다. 이는 부활절로부터 성령강림절까지 이어지는 건강하고 활기찬 출발점이 된다. 계란을 나누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선포하면, 받는 사람들은 “네, 그분은 매 순간 부활하십니다!”라고 화답한다.

연구자는 매년 부활절마다 계란 바구니를 준비하여, 부활의 기쁜 소식을 담은 카드를 함께 병원 병실이나 고아원으로 찾아가 나누었다. 계란을 전달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막대사탕에 리본을 묶어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메시지를 전하거나, 바이올렛 화분을 선물하며 부활의 영성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생명의 신비를 전했다.

이러한 경험은 1년 내내 부활을 기대하며, 다시 올 부활을 소망하는 기쁨이 영혼을 감싸는 시간이었다. 때로는 고난과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부활의 신비로운 영성을 의지하며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다.

부활의 영성은 단순한 공동체적 축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강렬한 예배의 신비적 체험과 기적의 경험을 포함한다. 또한, 친절과 배려가 넘치는 공동체적 교제 속에서, 생명력 있는 예수 이야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영적 공간을 형성한다.실제 삶 속에서 부활 공동체가 형성될 때, 부활의 영성은 더욱 깊고 풍성해진다.

부활절 7주간의 영성 프로그램

부활절은 교회력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이며, 신앙의 핵심이자 교회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시간이다. 이에 따라, 부활절 7주간을 영성 프로그램으로 제안한다.

부활의 사실은 깊이 있고 구체적이어야 한다.동·중앙 아프리카 여성 지도자들은 공동체 의식과 성서적 결속력을 기반으로, 부활 영성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야 한다.

<부활 영성 7주의 활동 패턴>

- 부활 영성의 7주 활동 패턴은 7개의 그룹이 순환하며 7주 동안 경험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 각 그룹에 전문 리더가 배정되어 활동을 인도하며, 소요 시간은 7주간, 매주 1시간씩 총 7시간이다.
- 제시된 성경 본문을 기반으로 극화, 액티비티, 토론 및 실천 방안을 모색한다.
- 부활 영성이 7주간 진행되며, 성령강림절의 영성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한다.

◆ 부활 후 - 1주 <빈 무덤의 첫 목격자 여인들: 마가복음 16장 1-20>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세 여인은 안식 후

첫날 새벽,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무덤을 찾았다. 세 여인은 돌무덤을 굴리려 했지만, 이미 무덤문은 열려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진 상태였다.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은 이 상황을 목격하고 두려움에 떨었다. 세 여인 또한 크게 놀라며,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그 순간, 한 천사가 나타나 그들에게 말했다. “놀라지 말라.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시고 살아나셨다.” 천사는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지시했다. “가서 전하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무서움과 기쁨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세 여인은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무덤을 떠나 급히 달려갔다.

당시 사회에서는 여성의 증언이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적 배경이 있었기에, 이 소식은 더욱 믿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부활의 소식은 여성들의 관점과 정체성을 바꾸어 놓았다.이후,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다.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의 빈 무덤 부활 사건은 단순한 과거의 일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사건이다.부활은 기쁨과 환희, 소망이 가득한 위대한 사건이다.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반드시 이 소식을 세상에 증언해야 한다.

<빈 무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 부활의 첫 목격자는 여인들이었다.

* 죽음과 무관한 자리에서 나아가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 우리는 죽은 시신을 붙잡고 슬픔에 젖어 향유를 바르며 위로받는 자가 아니다.

* 죽음의 권세에 눌려 실의와 좌절, 패배감 속에 머무는 자가 아니다.

*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여인들은 부활의 복음을 통해 생명과 용기, 희망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 관점을 바꾸어야 한다. 공동체의 아픔과 즐거움은 곧 나의 아픔이자 즐거움이다.

부활의 소식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이며, 세상을 향한 선포가 되어야 한다.

◆ 부활 후 - 2주 <천로역정(Pilgrim's Progress): 영성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부활 후 2주 영성>

기독교의 고전이라 할 수 있는 존 번연의 『천로역정』은 성령의 역사와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작품이다. 시대와 종교, 국경을 초월한 불멸의 걸작인 이 책은 천국으로 가는 여정, 즉 순례자의 길을 다루고 있다.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 지도자 리더십 영성 형성 프로그램의 부활 후 2주차 영성 활동은 천로역정을 기반으로 구성되었다.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겪는 고난과 시련을 '멸망의 도시'를 떠나 '시온성'에 이르는 순례 여정에 비유하며, 신앙적 성장을 경험하도록 돕는다.이 순례 여정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온갖 어려움을 겪으며, 세상의 욕망과 허영, 유혹을 극복해야 한다. 끝까지 견디고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이들은 마침내 천국에 도착하여 임금의 환대를 받는다.천로역정이 담고 있는 영적 진리는 여성 지도자들이 자신의 삶과 사명에 비추어 적용해 볼 수 있는 귀중한 교훈이 된다.

천로역정을 통한 신앙 성장과 적용

연구자는 수십 년 동안 교회와 기독교 학교에서 천로역정을 활용한 영성 훈련을 진행해 왔다. 부모, 자녀, 학생, 교사들이 함께 참여하여 신앙 성장을 경험하는 여정이었다.그 형식은 도전 골든벨, 창작 뮤지컬, 인형극, 그림자극, 다양한 액티비티 및 그룹 나눔 등으로 구성되었다.이 프로그램은 지도자뿐만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 교회가 함께 신앙의 깊은 고민을 나누는 대화의 장이 되었으며, 틀에 박힌 신앙생활을 깨고 영적 성장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

도마의 신앙과 천로역정의 연관성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의심이 많고, 직접적인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이었다.요한복음 14장 5-6절에서 도마는 예수님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묻는다.이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대답하셨다.회의적이고 현실적인 성향으로 인해 신앙의 여정에서 종종 의문을 품는 자로 묘사되는 도마는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의 승천 후, 인도로 가서 교회를 세우고 충성과 열정을 다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였다.도마의 이야기는 천로역정의 신앙 여정과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

천로역정 코너 활동

천로역정의 여정은 죽음의 강, 절망(낙담)의 숲, 죽음의 계곡, 허영의 도시를 지나 ‘하늘의 도시’ 인 천성에 도달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겪게 되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 진정한 깨달음을 얻게 된다.천로역정이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 지도자들의 영성 리더십에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가정과 다음 세대가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이다.

부활 후 2주차 천로역정 영성 체험 방법

1. 요약된 주니어 교재를 그룹 리더에게 제공

2. 하루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후, 4개의 테마로 순례 여정을 그림 그리기, 연결 기도문, 여정의 느낌 나누기로 진행

3. 소요 시간: 각 테마당 1시간, 총 4시간

4. 전체 본문(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읽고 기도하며 마무리

천로역정 4가지 테마

1) 신앙과 영적 여정

- 그리스도인의 신앙 여정의 중심으로, 지옥의 파멸의 길을 피하고 천국으로 향하는 순례 여정을 떠난다.
- 영적 구원과 희망을 상징하며, 신앙과 영성을 향한 성장의 과정을 경험한다.

2) 유혹과 시련

- 헛된 시장에서의 유혹과 시련을 통해 신앙과 영성의 인내심을 강화하는 영적 전투 과정이다.

3) 영적 전투

- 천로역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다.
- 마지막 공격을 퍼붓는 믿음의 강도들, 절망의 거인들, 의심의 성을 지나며 신앙과 유혹 사이에서 영적 성취와 승리를 경험한다.

3) 구원과 희망

- 마침내 천국에 도달한다.
- 천국을 향한 여정이 곧 구원과 희망을 상징한다.
- (요한계시록 21:3-6)에서 하나님께서 천성(천국)이 어떤 곳인지 말씀하신다.
- 다시는 사망이 없는 곳, 애통함이나 고통이 없는 곳, 찬란한 새벽의 영광이 빛나는 곳이다.

천로역정을 통한 영성 체험은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 지도자들에게 생소한 경험이었다.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하며,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들의 삶과 순례 여정을 비교해 보며 깊이 공감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특히, 외적인 증거를 중시했던 도마의 신앙을 떠올리며, 자신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도마와 같았다는 고백을 나누었다.어쩌면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멸망의

도시는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의 장애물이자 허구일 수 있다.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흔들리고 빼앗길 때, 고난과 유혹은 불완전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 늘 곁에 존재한다.허영과 나태함은 우리가 통과해야 할 좁은 문이다.우리는 부활의 실체를 선포하고 증언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우리는 부활의 영성을 나타내는 생명력 있는 부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이다.

◆ 부활 후 - 3주 <누가복음 24:13-27> 주님이 참여한 예배 '엠마오로 가는 길'

부활의 영성은 기독교 공동체가 건강하게 회복되고 거듭나야 하는 과정이다.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 지도자들에게 부활은 억압에서 자유와 해방으로 나아가는 은유이며, 낮은 자존감과 무력감에서 벗어나 새롭게 복원되는 과정이다.이 시기는 다양한 계층의 여성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힘을 내고, 사회와 기독교 공동체에 부활의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불어넣어야 하는 중요한 때이다.오늘날의 예배는 영성의 리듬도, 영성 형성의 유형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예배의 영성을 리더들로부터 회복해야 한다.신앙의 영성은 때때로 강해질 수도 있지만, 때로는 바닥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그러나 부활의 영성은 고난과 더불어 부활의 신비와 환희를 경험하는 것이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대하는 영성이다.

부활절의 영성 주제 안에서, 부활 후 2주의 영성 회복 활동으로 엠마오의 패턴을 따라가 보자.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하루아침에 실망과 낙담 속에서 엠마오로 내려갈 수 있다.그리고 다락방에서 절망 속에 갇혀 있던 제자들처럼,

현실의 어려움에 갇혀 헤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 지도자들이 공동체의 공적 활동(예배 포함)에서 부활의 영성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공동체의 영적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또한 내면의 영성 리듬이 지속적으로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이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찾아보자.

엠마오 스토리는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사중 구조로 구성된다.

* 성경 본문: 누가복음 24:13-27

* 구조적 흐름:

1. 제1패턴: 글로바와 친구가 길을 가는 동안,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며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신다.

2. 제2패턴: 식탁에 앉아 빵을 나누던 순간,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깨닫게 된다.

3. 제3패턴: 예수님을 알아본 제자들은 즉시 예루살렘 다락방의 친구들에게 소식을 전하러 간다.

4. 제4패턴: 소식을 전하는 과정에서, 제자들은 이미 변화된 모습을 갖게 된다.

엠마오로 가는 길은 '좌절의 길' 이었다.그러나 하나님(예수님)은 엠마오의 길을 걷고 있는 글로바와 그의 친구의 길동무가 되어, 낯선 나그네로 동행하셨다.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둘러앉아 빵을 쪼개어 나누셨고, 그 순간 제자들은 눈이 열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게 되었다.부활하신 예수를 알아본 제자들은 뜨거운 가슴을 안고, 실망 속에 갇혀 있던 다락방의 친구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갔다.그 길을 가면서, 그들의 마음은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 뜨겁게 회복되었다.마태복음 28장 5절에서는 무덤을 찾은 세 여인이 빈 무덤을 보고 두려워하던 순간,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 말씀하셨다. “평안하뇨, 무서워 말라.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예수님은 곧 부활이시다.부활은 사탄의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승리이며, 하나님의 승리의 완성이자 교회의 핵심이다.부활의 영성은 부활의 신비를 통해, 우리가 구속사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았음을 의미한다.동 · 중앙 아프리카 여성 지도자들은 각자의 문화, 종교적 전통, 삶의 차이를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와 신성한 동행을 할 수 있다.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비이며, 세상의 성례전이다.기독교는 곧 부활이다.부활은 곧 예배의 축제이다.부활의 축제는 무덤에서 돌아온 예수님의 승리를 기념하는 예배이다.예배는 하나님의 일이자, 예수님께서 직접 참여하여 일하시는 공간이다.예배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은 뜨겁게 변화된다.변화된 우리는 구속사의 증거자로, 부활의 기쁨과 산 소망을 전해야 한다.주님께서는 그 어느 것도 직접 참여하지 않으신 것이 없다.예수님의 사역은 곧 부활의 영성이며, 부활이 주는 기쁨과 행복이다.부활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는,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다.

부활 후 4주 패턴의 엠마오의 길은 무언극을 통해 부활의 신비를 경험하고, 신앙적 동반자로 협력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 무언극 활동:

- 그룹별로 엠마오로 가는 길의 4가지 패턴을 무언극으로 재현한다.
- 등장인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 다락방의 제자들.
- 본문을 숙지한 후, 실제 무언극을 실행한다.

* 성찰 질문:

-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던 나의 영적 어두움은 무엇인가?
- 나의 좌절의 자리는 어디였으며, 언제 회복되었는가?
-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달았을 때, 나의 마음과 인생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다락방의 친구들에게 달려갔을 때, 내 마음은 어땠는가?
- 예수님께서 모든 것에 적극적으로 동행하셨듯이, 나의 리더십도 적극적인가?
-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뜨거운 순간은 언제였는가?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그분은 우리에게 재림의 소망을 주시는 샬롬의 통치자이시다.예배와 삶 속에서, 주님은 언제나 헌신과 희생, 그리고 적극적인 동행으로 우리와 함께하신다.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구속사의 파트너로 부름받았다.동·중앙 아프리카 여성 지도자들의 사역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것이어야 한다.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활의 사명이며, 신앙의 본질이다.

◆ 부활 후 - 4주 <요한복음 10:1-21> 선한 목자 영성의 리더십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시며, 목자의 역할이 단순한 돌봄이 아니라 생명을 내어주는 헌신적 사랑임을 강조하셨다.본장에서 말하는 '선한 목자 리더십'은 사회적 책임과 리더십의 본질을 담고 있으며, 무엇보다 책임이 중요함을 강조한다.선한 목자 리더십은 곧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이다.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이란, 단 한 마리의 양이라도 끝까지 인도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의미한다.베드로전서 5:3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예수님은 친히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며, 우리에게도 그러한 본보기가 되어 주셨다.

리더는 단순히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의 안위와 유익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며, 책임을 감수하는 존재여야 한다.리더가 사라지면, 그 시대에는 어둠이 찾아온다.성경은 목자의 역할에 대해 수많은 구절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마가복음 6:34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이는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해 헌신하며, 사람들을 살리는 의의 길로 인도해야 함을 보여준다. 예수님의 선한 목자 리더십은,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 지도자들이 영성을 형성하는 연구의 핵심 목적과 취지가 된다.선한 목자는 피부색, 인종, 삶의 조건, 사회·문화

적 관습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과 억압을 함께 안아야 한다.이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신학적 · 목회적 필수 요소이다.

선한 목자의 길은 고난과 헌신이 따른다.리더는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표징이며, 반드시 선한 목자의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

삯꾼 목자 vs. 선한 목자: 리더십 비교 토론

동 · 중앙 아프리카 여성 지도자들은 삯꾼 목자와 선한 목자의 차이를 비교하며, 리더십에 적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토론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선한 목자는 공동체를 이끌고 행동하는 자이며, 공동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준다.
* 선한 목자는 위기와 위험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 선한 목자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자이다.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 선한 목자는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한다.
* 선한 목자는 절망과 고통, 가난과 질병이 닥쳐도 부활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한다.

아프리카 문화 속에서의 리더십 토론

아프리카의 토론 문화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진지하게 마음에 담는 특징이 있다.이러한 문화적 배경 덕분에, 선한 목자 리더십 패턴은 여성 지도자들에게 가장 좋은 모델이 되었지만, 동시에 깊은 고민과 무거운 토론을 유발하기도 했다.마치 서로 다른 나무들이 모여 하나의 숲을 이루듯, 다양한 성향의 여성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그녀들은 '나는 지도자이다' 라는 정체성을 갖고, '선한 목자' 라는 부담스럽고도 설레는 자리에 앉았다.평소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한 목자' 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오늘은 스스로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하는 순간을 맞았다.어떤 그룹에서는 흐느낌이 터져 나왔다.어떤 그룹에서는 마음과 마음이 깊이 연결되었다.어떤 그룹에서는 침묵이 감돌았다.그러나 한 가지 공통된 깨달음이 있었다. "선한 목자는 내가 따라가야 할 분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동행해 주셔야 한다." 그들은 겸허하면서도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로, 예수님께 자신들의 리더십을 맡기고자 했다. "주님, 저를 선한 목자로 만들어 주세요." 이것이 그들의 기도였다.

부활의 영성은 우리를 선한 목자로 부르신 예수님의 초대이다.예수님은 자신의 양들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다.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리더십이란 우리가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따르는가에 달려 있다.오늘,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한 목자임을 깨달았다.그들이 맡은 양들은 단순한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생명들이다.우리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리더십을 따라가는 자들이다.선한 목자는 자신의 힘으로 양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이제, 그들은 새로운 다짐을 하며, 부활의 기

쁨과 소망을 품고 선한 목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그 길 끝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실 것이다.

◆ 부활 후 - 5주 <사도행전 1:1-3>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부활 후 5주의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다.예수님의 승천은 구속사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사건으로, 사도행전 1장 6~11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성경적이며 역사적인 사건이다.마가복음 16장 1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예언하신 대로 성취된 사건이며, 부활 후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승천은 그분의 재림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린도전서 15:25-26에 따르면, 예수님의 재림 목적은 인류의 가장 큰 원수인 사망 권세를 멸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며(살전 4:16-17), 그들을 영광스럽게 변화시키고(빌 3:20-21), 성도들에게 상급을 주시는 것이다(마 24:30-31).반면, 불신자들에게는 형벌로 심판하시기 위해 오신다고 말씀하셨다(마 16:27).예수님의 승천 후, 그분은 자신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하시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다.에베소서 4장 8절은 예수님의 승천이 모든 악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셨음을 의미하며, 하늘의 영광 가운데 높여지신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또한, 에베소서 2:5-6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영적으로 하늘에서도 높임을 받게 됨을 보여준다.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 다스리신다.그분은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이 땅에서의 사역을 지속하고 계신다(히 7:25).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은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아버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선물로 보내시기 위한 과정이었다.

예수님의 사역과 우리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애 동안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며 다음의 사역을 감당하셨다.

1. 가르치시는 사역 (Teaching)
2.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 (Preaching, Proclaiming)
3. 병자와 악한 영에 시달리는 자들을 치유하시는 사역 (Healing)

마태복음 9:35-37은 이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실질적인 치유와 회복을 동반하는 것이었다.따라서,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 지도자들도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한다.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징조 (마태복음 24:3-24)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재림이 임박한 시기의 징조를 예언하고 있다.마태복음 24장 3-24절에서 제시하는 재림의 징조:

1.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여 사람들을 미혹한다.

2.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릴 것이다.

3. 전쟁과 기근, 지진이 여러 곳에서 발생할 것이다.

4.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세상은 점점 미움이 가득 차고, 사랑이 식어지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그러나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살전 4:16-17).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 남은 우리도 저희와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와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

승천의 의미와 우리의 삶

예수님의 승천은 단순한 하늘로의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 과정에서 필수적인 사건이다.그분의 승천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 과정이며,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세우기 위함이다.우리는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 이 땅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길임을 깨달아야 한다.그러므로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하는 부활 후 5주는,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서 더욱 충성스럽게 살아가야 하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19-20)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우리와 항상 함께하시며, 성령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신다.이제, 우리는 그분의

재림을 소망하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차례이다.우리는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하며, 그분의 사역을 이어가야 한다.동·중앙 아프리카 여성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을 소망하며, 주님의 사역을 힘써 감당해야 한다.이것이 부활 후 5주 차 영성이며,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다.

◆ 부활 후 - 6주 <마태복음 9:35-38> 예수님의 3대 사역

부활 후 6주 차 영성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깊이 살펴보는 시간이다.성령과 함께 연합한 자는 곧 예수님과 연합한 자이며, 이 시기는 부활 신학이 더욱 분명해지는 시기이다.앞서 5주 차에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사역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복음 전파 (Preaching the Gospel)
2. 치유 사역 (Healing Ministry)
3. 제자 양육 (Discipleship Training)

① 복음 증거 사역 (Preaching the Gospel)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다.이 복음에 대해,마태복음은 '천국 복음'(마 4:23)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막 1:14)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로마서 14장 1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즉,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은 부활과 승천 이후 성령 강림

을 통해 성취되었으며, 성령 강림으로 복음의 진리가 확증되었다.예수님께서는 12제자와 70인의 제자를 부르셔서, 함께 생활하며 삶 속에서 가르치시고, 이들을 복음 전파자로 세우셨다.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기신 명령 또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다(마 28:19-20).

② 치유 사역 (Healing Ministry) - 마태복음 4:23

예수님의 또 다른 중요한 사역은 치유 사역이었다.이는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고통을 회복하는 사역이었다.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치유 사역을 하셨다.

1. 문둥병자를 손으로 만지시며 치유하셨다.
2. 거라사 지방의 귀신들린 자를 말씀 한 마디로 고치셨다.
3.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자들에게 말씀과 손을 대심으로 치유하셨다.

마태복음 4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니,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예수께서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의 증거였다.이는 단순한 육체적 치유를 넘어서, 영혼의 회복과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었다.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치유 사역을 위임하시며,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막 16:17-18). 요한복음 20:30-31에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예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을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즉, 치유 사역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다. 천국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는 수단이자, 영혼 구원과 전인 구원의 핵심이었다.

③ 제자 양육 사역 (Discipleship Training)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제자를 양육하는 일이었다.예수님은 가르치는 사역과 기적 사역을 동일한 중요도로 감당하셨다.예수님은 먼저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가르치시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파송하셨다.부활 후,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셨다.마태복음 28장 18-20절은 이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 삼는 사역’을 강조하셨다. 즉,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또 다른 제자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다. 누가복음 24:49과 사도행전 1:4-8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다.이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1.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2. 우리는 육체적·영적 치유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3. 우리는 제자를 양육하며, 믿음의 세대를 세워야 한다.

부활의 영성은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삶의 방식이다.동·중앙 아프리카 여성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 복음 전파, 치유 사역, 제자 양육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웃의 아픔을 보듬고 기도해야 한다.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셨듯이,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헌신해야 한다.이것이 부활 후 6주 차의 핵심 영성이며,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명이다.

◆ 부활 후 - 7주 <예수의 중보기도> (요한복음 17장) '씨실과 날실의 베틀기도'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기록한 장이다.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전, 자신과 제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를 위해 간절히 중보기도하셨다.부활 후 7번째 주일은 성령 강림의 전 주일이다.동·중앙 아프리카 여성 지도자 컨퍼런스에서는 이 시기에 '베틀기도' 중보 영성을 체험하며,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를 기억하는 시간을 가진다.

① '베틀기도'란 무엇인가?

'베틀기도'는 씨실(가로)과 날실(세로)이 서로 교차하며 직조를 이루듯, 다양한 배경과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로 엮이는 중보기도 방식이다.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하나됨'을 실천하는 기도의 형태이다.

② '베틀기도'의 유래: 세계 여성 리더 컨퍼런스 경험

연구자는 34년 전, 감리교단에서 주최한 세계 기독교 여성 리더 컨퍼런스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주제로 기도의 띠를 엮는 퍼포먼스를 경험했다.몸은 떨어져 있어도 기도로 하나 되자는 의미에서, 전 세계에서 온 여성 지도자들이 함께 기도의 띠를 만들었다.이 퍼포먼스는 참가자들에게 강한 연대감과 사명의식을 심어주었다. 연구자는 이를 바탕으로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 지도자 컨퍼런스에서 ‘베틀기도’를 기도의 퍼포먼스로 진행하게 되었다.

③ ‘베틀기도’의 상징성과 의미

‘베틀기도’는 개인과 공동체의 어려움과 고통을 기도의 씨줄로 엮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날줄로 엮어 하나의 기도로 직조하는 것이다.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조화롭게 창조하셨듯, 우리의 기도도 씨실과 날실처럼 엮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부모와 자식, 형제와 친구, 교회와 공동체의 관계 또한 ‘하나님 사랑’이라는 씨실과 ‘이웃 사랑’이라는 날실로 직조된다. 즉, ‘베틀기도’는 우리의 사명과 공동체의 연합을 위해 기도하는 강력한 중보기도 방식이다.

④ ‘베틀기도’의 실천 방법

‘베틀기도’는 기도하는 사람들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기도할 대상을 고르거나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하는 중보기도이다.나와 다른 환경,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도 품고 기도하는 것이 핵심이다.이 기도는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강력한 중보기도가 되어야 한다.

⑤ ‘베틀기도’ 퍼포먼스 진행 방법

준비물:

- 직조판과 상하 나무기둥 2개

- 넓은 천 또는 색 테이프
- 펜

진행 방법:

1. 참가자들이 각자의 중보기도 제목을 색 테이프에 한 줄로 적는다.
2. 한 사람씩 앞으로 나와 기도 제목이 적힌 테이프를 씨실(가로)과 날실(세로)로 엮는다.
3. 직조가 완성될 때까지 모든 참가자가 참여한다.
4. 완성된 기도판 앞에서 모두가 일어나 손을 들고 기도한다.
5. 자신의 사명, 공동체와 가족, 나라와 민족, 세계를 위해 기도한다.
6. 실내외에서 동그랗게 원을 만들어 띠를 이루고, 중보기도를 지속할 것을 결단한다.
7. 각 나라의 대표들이 나와서 '베틀기도'에 대한 실천 방안과 느낀 점을 나눈다.

⑥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중보기도 내용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제자들을 위해, 그리고 모든 성도를 위해 중보기도하셨다.

1. 자신을 위한 기도:
   -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
   -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
2. 제자들을 위한 기도:
   -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

-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달라는 기도
-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

3. 모든 성도를 위한 기도:

-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
- 성도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는 기도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하나됨'을 이루는 기도의 본보기이다.우리는 '베틀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실천하며, 공동체와 세상의 변화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⑦ '베틀기도'의 평가와 나눔

참가자들의 피드백:

* 전체적으로 매우 만족스러운 기도 퍼포먼스였다.

* 서로 다른 환경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었다.

*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섬세하게 직조하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었다.

* 우리의 나라와 민족이 내전 없이 평화롭게 하나가 되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다.

* 앞으로도 나라와 민족,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지도자가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 우리의 기도대로, 예수님의 부활의 환희와 재림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베틀기도’는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다. 이는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실천하는 강력한 기도의 방식이다.부활의 기쁨과 환희를 나누며, 공동체와 세상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다.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사랑으로 기도의 씨실과 날실을 엮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강력한 중보기도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부활 후 7주 차의 핵심 영성이며,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명이다.

◆ 성령강림절(Whitsunday) (사도행전 2:1~21)

예수님의 부활 후 50일째, 승천하신 후 10일째 되는 날이 성령강림절이다.이날,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중 성령이 강림하셨다.성령강림절은 교회의 탄생일이며, 성탄절과 부활절과 함께 기독교의 3대 절기로 지켜진다.성경에서 50일의 오순절은 ‘완전한 자유의 날’과 ‘온전한 회복’을 의미하며, 이는 희년(禧年)과도 연결된다.즉,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택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통치 선언이다.

① 성령강림절의 의미: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이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과 동등한 권능과 영광을 가지신 분이다.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행 1:4)라고 명령하셨다.성령강림절은 이 약속이 성취된 날로, 이는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 지도자들에게도 리더십 영성 형성을 위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성령님께서 강한 바람과 불의 혀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자, 제자들은 알지 못하던 이방 나라의 말들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이것은 성령을 통한 복음 전파의 사명이 주어졌음을 의

미한다.

오늘날 동 · 중앙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은 다양한 부족어를 사용하며, T국의 경우 278개의 부족어가 존재한다. 최근에는 정부 정책에 따라 아프리카 공용어인 '스와힐리어' 로 통일하는 움직임이 있지만, 다양한 언어가 공존하는 상황이다.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한 방언은, 하나님께서 언어를 초월하여 복음을 전파하시려는 사명을 강조하신 것이다.이는 오늘날 아프리카 여성 지도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즉,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는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확장되는 것이다.이것은 사도행전이 증명하고 있는 진리이다.

② 사도행전 2장의 핵심 메시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선지자 요엘의 말씀을 인용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증언했다.그날 하루에만 3천 명이 회심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평범한 사람인 베드로의 단 한 번의 설교로 수천 명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보였다.그 이후, 제자들은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더욱 강력한 성령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성령께서는 절망의 자리에서 실패했던 제자들을 강하게 일으켜 세우시며, 완전한 자유함을 주셨다. 이것이 성령시대를 여는 사건이었다.

③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역사: 하나님의 나라 확장. 성령님께서는 동 · 중앙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 있는 모든 땅에서 완전한 자유를 선포하신다.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역에 온전히 참여하도록 인도하신다.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을 얻게 된다.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은 필연적인 사건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선포하시고 확정하신다.구속사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주로 시인하는 모든 자

들에게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은혜를 베푸신다.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따라서 성령강림절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 지도자들의 리더십 영성이 더욱 깊어지고 형성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이를 위해, 컨퍼런스에서는 성령강림절 특강으로 '전도폭발(Evangelism Explosion)'을 강의하고, 참가자들이 두 명씩 짝을 이루어 직접 전도를 실천하도록 한다.

④ 성령강림절의 실천: '전도폭발'과 복음 전파 훈련. 전도폭발(Evangelism Explosion)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훈련이다.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실질적인 전도의 기술을 배우고, 직접 실천하는 시간을 가진다.참가자들은 두 명씩 짝을 이루어 밖으로 나가 전도를 실천한다.이 경험을 통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체험하고,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게 된다.성령님께서 함께하실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생명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됨을 깨닫게 된다.

⑤ 결론: 성령강림절의 영성과 우리의 사명. 성령강림절은 단순한 교회의 기념일이 아니라,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와 사역이 시작되는 날이다.이날 성령께서는 언어를 초월하여 복음을 전할 능력을 주셨으며,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한 복음의 문을 여셨다.오늘날에도 성령님께서는 동일한 방식으로 역사하시며,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동·중앙 아프리카 여성 지도자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각 나라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한다.성령강림절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성령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이것이 성령강림절의 핵심 영성이며,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명이다.

◆ 교회력 평가

교회력의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분의 구원 역사를 통해 나타난 구속적 계시를 우리의 영성 형성의 길잡이로 삼는 것이다.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기억하고, 신앙의 흐름 속에서 지속적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법을 배운다.하지만 동·중앙 아프리카의 다양한 종교적 배경과 교단, 그리고 예배 문화의 차이로 인해 교회력 영성 컨퍼런스에 대한 반응은 각기 달랐다.

① 교회력에 대한 다양한 반응과 도전 과제

일부 국가에서는 교회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영적 리더십과 목회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갱신의 의지를 보였다.그러나 U국에서는 여성 목회자들과 지도자들 중 일부가 교회력을 중세 로마 가톨릭의 전통과 창작물로 인식하며, 이를 받아들이는 데 거부감을 나타냈다.그들은 교회력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된 신앙의 유산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이에 대한 설명을 위해, 우리는 교회력의 1년 영성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데 집중되어 있음을 강조했다.또한, 교회력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본질적인 신앙을 더욱 분명히 살아내는 것’이라는 점을 PPT 자료와 함께 강의하였다.특히, 성령강림절 강의에서 ‘전도폭발’(Evangelism Explosion)을 활용하여, 교회력의 핵심 취지와 구속사의 흐름을 실질적으로 설명하였다.반면, R국은 교회에서만 성찬식을 행해야 한다는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교회력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호응도가 높았

다.특히, R국은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교회의 존폐 위기를 겪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대안과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교회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이들은 교회가 폐쇄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가정과 커뮤니티 센터를 예배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며, 성경 공부와 중보기도실 운영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이러한 논의를 통해 교회력이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② 교회력 영성이 여성 지도자들에게 미친 영향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 지도자 리더십 영성 형성 연구에서, 교회력 영성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는 매우 높았다.여성 지도자들은 새로운 신앙 경험에 대한 호기심과 동시에, 이를 실천하는 데 대한 부담도 느꼈다.그러나 이들은 '신앙이 교회력 영성을 통해 뿌리를 내릴 때, 세상의 변화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이 형성된다' 는 점에 공감하였다.이러한 인식은 구속사의 진리와도 맞닿아 있다.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교회력 속에서 반복적으로 기억되고 기념되듯,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역시 교회력의 영성을 통해 신앙을 지켜 나가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결국, 교회력은 단순한 연간 행사 계획이 아니라, 신앙의 흐름을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깊이 새기고 실천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점에서 여성 지도자들에게 큰 의미를 남겼다.컨퍼런스의 마지막에는, 참석자 대부분이 '교회력의 영성을 기반으로 신앙을 지키고, 이를 통해 공동체의 리더십을 세워 나가야 한다' 는 결론에 동의하였다.이러한 논의와 나눔을 통해, 동·중앙 아프리카의 여성 지도자들은 교회력을 단순한 신학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 신앙과 사역에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영적 자산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③ 결론: 교회력 영성을 통한 지속적인 신앙 성장

이번 교회력 영성 컨퍼런스를 통해,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 지도자들은 신앙의 연속성을 이해하고, 교회력이 개인과 공동체의 신앙을 강화하는 중요한 도구임을 깨닫게 되었다.각국의 문화적 차이와 신학적 입장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력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중심으로 한 신앙의 흐름을 형성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신앙이 더욱 깊어질 수 있음을 공감하였다.특히, 교회력의 영성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전도, 예배, 성경 공부, 중보기도'가 신앙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결국, 교회력은 단순한 신앙의 형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따라가며 지속적인 신앙 성장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요소임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앞으로도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 지도자들이 교회력을 활용하여 더욱 성숙한 신앙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기대하며, 이번 컨퍼런스에서의 배움이 각국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과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이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력 영성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남기며, 깊은 성찰과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태복음 4:23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중의 모든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가복음 1:14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사도행전 2:16~18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 이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아들들과 딸들은 예언 할것이요, 너

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꾸리라’ ”

교회력 영성을 중심으로 한 신앙의 지속성과 실천적 의미를 강조했고, 각국의 다양한 반응을 고려하여 교회력의 유익성과 실제적 적용 방안을 논의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여성 지도자들이 교회력을 통해 공동체를 세우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도록 독려하였으며, 교회력이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기억하고 실천하는 중요한 신앙 여정임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로써,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 지도자들이 교회력의 영성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각국에서 이를 실천하는 데 있어 지속적인 변화를 이끌어가길 기대한다.

G. 몸으로 드리는 성경활동중심의 문화예배(Body-Centered Bible Activities culture worship)

Bible Activities Worship(이하 ‘BAW’)는 온몸을 활용한 활동 중심의 문화적 영성 예배로, 성경 66권의 내용을 신체 활동과 놀이, 게임을 통해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된 예배 형태이다. 이는 기존의 정적인 예배 형식을 넘어, 전신을 활용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성경을 더욱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는 인간이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 또한 창조되었음을 의미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예배는 '거룩함' 혹은 '경건함'을 강조하며 정적인 형태로 진행된다. 반면, 아프리카의 예배 문화는 온몸과 오감을 활용하는 동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긴 예배 시간(3~5시간)도 지루함 없이 지속될 정도로 활력이 넘친다. 이러한 아프리카 예배 문화는 신체가 예배의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성경 또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마태복음 22:37),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로마서 12:1)라고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BAW'는 신체를 활용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영적 예배의 본질을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또한 'BAW'는 특정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성경 내용과 예배 기획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

아프리카의 예배는 찬양과 워십 댄스를 포함하여 신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부족 중심의 지역 사회 행사, 체육대회 등에서는 스포츠 외에 체계적인 'BAW'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여성 지도자 컨퍼런스를 통해 다양한 신체 활동을 활용하여 성경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돕는 것이 'BAW' 도입의 주요 목적이다.

- 몸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로마서 12:1)

성경을 문자로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체 활동을 활용한다.

- 성경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쉽고 재미있게 배운다

성경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놀이와 신체 활동을 활용하여 성경의 의미와 사건들을 실질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한다.

- 공동체 구성원 간 교제와 친밀도를 증진한다

스킨십과 놀이를 통해 관계를 더욱 부드럽게 하고, 공동체 내에서 신뢰와 친교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 부족 간, 세대 간 통합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

부족 간 언어의 장벽과 세대 간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며, 서로 깊은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효과적인 방안이 된다.

-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정신을 배운다

'BAW'는 협동, 위로, 격려를 포함한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다.

'BAW' 프로그램 개발의 기본 원칙

1. 성경 본문에 충실할 것: 프로그램 개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성경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다.

2. 성경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찾을 것: 성경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도출하여, 활동의 목적과 방향을 명확히 한다.

3. 프로그램의 이름을 정할 것: 프로그램의 이름을 신중하게 선정하여, 참여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성경 본문과의 연관성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4. 성경적 의미와 기대 효과를 설정할 것: 단순한 놀이가 아닌, 신앙적 성장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성경적 의미와 기대 효과를 명확히 해야 한다.

5. 프로그램의 형식을 정할 것: 스토리텔링형, 본문형, 메시지형 등 다양한 형식 중에서 프로그램의 목표에 적합한 방식을 선택한다.

'BAW'의 적용 대상 및 유의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적용 대상: 'BAW'는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구성해야 한다. 지도자는 신체, 심리, 사회, 언어 등 발달적 요소를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한다.

2. 진행 시 유의 사항

- 성경의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

신체 활동이 주가 되지만, 활동을 통해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분명히 전달되도록 한다.

- 대상의 연령과 체력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

참여자의 연령과 신체 능력에 따라 프로그램을 조정하여,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안전 문제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활동 공간과 도구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

- 프로그램의 확장성을 고려해야 한다.

동일한 프로그램이라도 도구나 방식에 변화를 주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먼저 테스트한 후, 다른 연령층으로 확장할 것

초등학생이 재미있다고 느끼는 프로그램은 다른 연령층에서도 높은 참여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 노년층을 대상으로 할 경우, 안전을 더욱 신경 써야 한다.

신체적 부담이 적은 활동으로 구성하고, 공간 및 도구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 프로그램 개발에 제한을 두지 말 것

성경의 모든 본문, 다양한 도구, 장소, 대상에 맞추어 변형이 가능하도록 유연한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

그러면 이제 'BAW' 프로그램의 실제 예시를 살펴보자.

1. 아이스 브레이킹 - "함께 가요 천국~!!!" (가위, 바위, 보 활용)

- 준비물: 없음
- 활동 방법

1. 자유롭게 이동하며 다른 사람과 가위, 바위, 보를 한다.
2. 진 사람은 이긴 사람 뒤에 서서 함께 움직인다.
3. 뒤에 선 사람은 앞사람의 이름을 크게 외친다(예: '다니엘!', '나오미!', '스데반!').
4. 남은 두 팀이 최종 대결을 한다.
5. 최종 우승자는 가장 많은 승리를 거둔 사람이 아니라,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사람이 된다.
6. 모두 둥그렇게 원을 이루고, 협력과 연합의 의미를 되새긴다.

- 활동의 신앙적 메시지
- 신앙 공동체는 경쟁이 아니라 서로를 돕고 함께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다.
-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최후의 승리를 주신다.

- 협력과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한다.

Bible Activities Worship(‘BAW’)는 단순한 신체활동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를 강화하고, 성경을 보다 깊이 이해하며, 세대와 부족간 통합을 이루는 중요한 예배형태이다. 동·중앙아프리카 여성지도 자컨퍼런스를 통해 ‘ BAW’가 더욱 확산되고, 교회와 가정, 사회 공동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적용이 필요하다.

▶ 스토리텔링형 - 요나의 불순종 Jonah’s Disobey)

요나서 활동 프로그램

1) 구성 개요

요나서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을 중심으로 활동을 진행한다.

1장: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도망가는 요나’

2장: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요나’

3장: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는 요나’

4장: 또다시 ‘불평하는 요나’

2) 활동을 통한 성경적 의미 전달

모든 활동을 마친 후, 참가자들에게 요나서의 역사적 배경과 요나의 성품, 니느웨의 중요성, 욥바와 다시스로의 도피 시도, 그리고 요나서가 전해주는 교훈을 설명한다.

- 요나서의 역사적 배경
- 요나의 특징과 성품
- 니느웨의 역할과 회개의 중요성
- 욥바와 다시스의 지정학적 위치
- 요나서가 주는 신앙적 의미

4) 활동 방법

① 도망가는 요나

준비물: ‘욥바’ 및 ‘다시스’ 깃발 (팀별 숫자에 맞게 준비)

게임 방법:

1. 의자를 팀별 1열 종대로 배치하여, 모든 참가자가 의자에 앉는다.

2. 각 열의 중간 참가자는 ‘욥바’ 깃발을 들고, 맨 뒤의 참가자는 ‘다시스’ 깃발을 든다.

3. 신호가 울리면 맨 앞에 앉아 있던 사람이 일어나 지그재그로 중간 깃발을 향해 달려간다.

4. 중간에 도착하면 ‘욥바’ 깃발을 들고 “욥바!”라고 외친 후, 맨

끝을 향해 다시 달린다.

5. 맨 뒤에 도착하면 ‘다시스’ 깃발을 들고 “다시스!”라고 외친다.

6. 가장 빨리 ‘다시스!’를 외친 팀이 승리한다.

7. 첫 경기자는 ‘욥바’ 깃발을 중간 참가자에게 넘겨주고, ‘다시스’ 깃발을 들고 맨 뒤에 앉는다.

8. 나머지 참가자들은 한 칸씩 앞으로 이동하며, 게임은 계속 진행된다.

이 활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피하려는 요나의 태도와,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할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결과를 체험적으로 이해하고, ‘욥바’와 ‘다시스’의 의미를 몸으로 익히며, 요나가 도망가려 했던 상황을 실감할 수 있다.

② 기도하는 요나

준비물: 기도 쪽지용 종이, 펜, 박스

게임 방법:

1. 각 참가자는 기도 제목을 적은 쪽지를 작성한 후, 박스에 넣는다.

2. 휘슬이 울리면 각 팀의 맨 앞 참가자가 박스로 달려가 기도 쪽지 1장을 뽑아 온다.

3. 가져온 쪽지를 큰 소리로 읽는다.

4. 기도를 다 읽으면 팀원들이 함께 “아멘”을 외친다.

5. 동일한 방식으로 반복 진행하며, 가장 빨리 모든 기도 쪽지를 읽은 팀이 승리한다.

6. 또는 주어진 제한 시간 내에 가장 많은 기도 쪽지를 읽은 팀이 승리한다.

이 활동을 통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간절한 기도를 체험적으로 경험하며, 어려운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다. 또한 기도의 힘과 응답을 신앙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이 활동을 통해 참가자들은 요나서의 핵심 메시지를 몸으로 체험하며, 성경의 교훈을 보다 생생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다시 말해 요나의 불순종과 회개를 통해 배우는 신앙적 교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중요성, 회개와 기도를 통한 변화의 가능성,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며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는 메시지를 배울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요나서를 단순한 성경이야기로 읽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 성찰과 실제적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말씀을 선포하는 요나

준비물: 풍선, 메시지 풍선 막대기 (“40일 후 니느웨는 멸망한다”)

게임 방법:

1. 참가자들은 1열로 횡대로 나란히 선다.
2. 맨 앞사람은 ‘말씀이 적힌 풍선’ 을 들고 선다.
3. 시작 신호가 울리면 풍선을 옆으로 전달한다.

4. 마지막 참가자가 풍선을 받으면, 맨 앞으로 이동하여 다시 풍선을 전달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5. 풍선이 맨 앞사람에게 다시 돌아오면, '메시지 풍선 막대기'를 들어 올린다.

6. 가장 빠르게 메시지 전달을 완료한 팀이 승리한다.

이 활동을 통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며, 신속하고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몸으로 체험한다.

④ 불평하는 요나

준비물: 찢기 빙고용지 (각 참가자당 2장), 펜, 요나서 단어 제시 PPT, 다양한 물건

게임 방법:

1. 참가자들은 준비된 빙고용지와 펜을 받는다.

2. 1~8까지의 숫자를 마음대로 적어 넣는다.

3. 진행자가 랜덤으로 숫자를 부르면, 참가자들은 해당 숫자가 용지의 맨 끝에 있을 경우만 종이를 찢을 수 있다. (단, 숫자가 가운데에 있으면 찢을 수 없음)

4. 가장 먼저 모든 숫자를 찢어낸 사람이 승리한다.

5. 연습 게임 후, 본 게임에서는 요나서 퀴즈를 통해 진행한다.

6. 진행자가 요나서 관련 질문을 하면, 참가자들은 원하는 칸에 답을 적는다.

7. 퀴즈 내용 예시:

- Q1. 아밋대의 아들은 누구인가? → (요나)
- Q2.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라고 명령한 성은? → (니느웨)
- Q3.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 어느 항구로 갔는가? → (욥바)
- Q4. 바다에서 폭풍을 만났을 때, 누가 요나를 바다에 던졌는가? → (선원들)
- Q5. 요나를 삼킨 것은 무엇인가? → (물고기)
- Q6. 요나는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며칠 동안 선포했는가? → (하루)
- Q7. 며칠 후에 니느웨가 멸망한다고 선포했는가? → (40일)
- Q8. 하나님은 요나에게 무엇으로 그늘을 막아주셨는가? → (박넝쿨)

이 활동을 통해 요나가 불평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항상 옳음을 깨닫는 계기를 만든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긍휼을 신뢰하는 자세를 배운다.

성경 기반 활동 (BAW 프로그램 적용)

1. 성경 본문형 - 성령의 9가지 열매

준비물: 성령의 9가지 열매 카드 (3세트)

게임 방법:

1. 한 명을 ‘교회’로 지정한다.
2. ‘교회’는 모든 참가자에게 성령의 열매 카드를 1장씩 나누어 준다.

3. 남은 카드는 정해진 장소의 상자에 보관한다.

4. 시작 신호가 울리면 참가자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서로 가위바위보를 한다.

5. 이긴 사람은 상대방의 성령의 열매 카드를 받을 수 있다.

6. 카드를 빼앗긴 사람은 ‘교회’로 가서 새로운 카드를 받아간다.

7. 제한 시간 내에 가장 많은 카드를 소유한 사람이 승리자가 된다.

8. 단, 같은 열매 카드는 1장만 인정된다.

9. 승리자 또는 승리팀에게 적절한 상품을 제공한다.

10. 모든 참가자가 성령의 열매 9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 활동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몸으로 익히고 실천하는 중요성을 배우며, 신앙적 덕목을 게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다.

2. 메시지형 - 네버 엔딩 스토리 “평화”

준비물: 전지, 펜

게임 방법:

1. 진행자는 요한복음 14:27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를 첫 문장으로 제시한다.

2. 참가자들은 ‘시작’ 신호와 함께, 진행자의 제시문에 이어지는 문장을 한 줄씩 만들어간다.

3. 개인 또는 팀별로 진행할 수 있으며, 첫 번째 사람이 문장을 작성한

후 다음 사람에게 넘긴다.

4. 이어지는 사람은 앞 문장을 참고하여 스토리를 확장해 나간다.

5. 가장 아름다운 평화의 메시지를 완성한 팀이 승리한다.

이 활동을 통해 성경적 가치(평화)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신앙적 메시지를 내면화하고, 팀워크를 통해 협력과 조화의 중요성을 배운다.

BAW'를 평가해보면 다음과 같다.

1. 문화적 적합성

- 아이스브레이킹 활동이 동/중앙 아프리카의 문화와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 동/중앙 아프리카는 신체활동 중심의 예배 문화에 익숙하지만, 일부 게임 요소(예: 가위바위보)는 생소하여 적응이 필요했다.

2. 'BAW'의 잠재력

- 아프리카에서는 예배, 말씀, 교육, 친교, 봉사를 교회의 5대 핵심 요소로 삼고 있다.
- 'BAW'는 이를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성경의 메시지를 이해시키는 중요한 도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

3. 참가자들의 반응

-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점차 익숙해지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 성경의 이야기를 활동을 통해 배우면서 흥미를 느끼고, 신앙적으로도 큰 유익을 얻었다.

4. 향후 개선 방향

- 지역별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보완 필요.
- 참가자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명 방식 개선.
- 기존의 놀이와 결합하여 더 자연스러운 형태로 응용.

5. 결론

- 경험하지 못한 활동이라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를 통해 신앙적 성장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BAW’는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를 몸으로 체험하며 신앙을 깊이 내면화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 앞으로 더욱 다양한 활동을 개발하여, 예배와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BAW’는 아프리카 문화 속에서 예배와 신앙 교육을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와 개선을 통해 더욱 발전시킬 가치가 있다.

H.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 교육지도자 교육 컨퍼런스 (교사, 교장, 원장,

각 학부모회장)

과거에는 영성과 기독교 교육을 별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3:16~17은 성경적 가치관이 교육을 통해 심어져야 함을 강조하며, "모든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함이라."라고 기록하고 있다. 교육이 기도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진리와 자비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개인이 진정성과 자발성을 갖고 참된 진리와 자유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지도자가 성경적 세계관으로 올바르게 교육받아야 다음 세대를 바르게 지도할 수 있으며, 그들이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나아가 가정과 국가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온전한 지성적 영성이 형성되어야 한다.

동·중앙 아프리카에서는 20세 미만의 인구가 전체 국민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성장하는 세대별 교육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열악한 교육 환경으로 인해 어린이들의 발달에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교육만이 이러한 환경과 사고방식을 바꾸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연구자는 교육 사역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던 중, 팬데믹 이후 동·중앙 아프리카 3개국의 여성 교육 지도자 300명을 초청하여 교육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 컨퍼런스는 지도자의 리더십과 영성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참가한 여성 교육 지도자들은 'PT'(Parents & Teachers)로 구성되었으며, 교육 컨퍼런스는 신명기적 사관을 배경으로 진행되었다.

신명기는 구약의 중심이 되는 책으로 ‘언약의 갱신’을 주요 사상으로 삼고 있다. 특히, 다음 세대를 향한 모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으며, 자녀 교육을 강조하는 성경 중 하나이다. 신약에서도 신명기는 80회 이상 언급되며, 예수님과 사도들이 가장 많이 인용한 구약 성경이기도 하다.

이번 교육 컨퍼런스는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 교육 지도자들의 리더십과 영성 형성을 위한 목적을 갖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다음 세대를 지도하기 위해 먼저 교육자들이 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접근하였다.

1. 왜 교육해야 하는가? (신명기 6:1, 24)
2. 무엇을 교육해야 하는가? (신명기 6:3~5)
3.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신명기 6:6~9)

이는 ‘쉐마’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다.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부모는 가정의 책임자로서 자녀를 보호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어야 한다. 이는 동·중앙 아프리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그러나 아프리카의 사회·문화적 환경은 부모가 생계를 유지하고 자녀 교육을 위해 헌신하더라도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 소득 창출 인프라의 부족
- 내전으로 인한 불안과 염려
- 교육적 정서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

특히, 대부분의 가정이 다자녀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체벌과 폭력이 교육의 수단으로 일상화되어 있다. 학교에서도 전문적인 교육 지도자가 부족하여, 한 명의 교사가 다수의 학생을 담당해야 하는 환경이다. 이에 따라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체벌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

- 피교육자의 뇌 발달 저해
- 낮은 자존감으로 인한 좌절과 무기력
- 열등감 형성과 부정적 자아 개념 형성
- 분노감 증가로 인한 학습 효과 저하
- 장기적으로 교육자와 피교육자 간의 관계 악화
- 사회적 폭력의 악순환 지속

따라서, 교육자는 체벌을 통한 교육에서 벗어나 성경적 가치관을 중심으로 지도해야 한다.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 법도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청지기로 양육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교육 커리큘럼을 적용하였다.

1. 교육자의 정체성과 역할

- 패턴 1: 긍정적인 아이 키우기
- 자기 주도적이며 자존감이 높고, 정직하며, 사려 깊고 배려심이 있으며, 친구 같은 존재로 자랄 수 있도록 교육
- 패턴 2: 왕 된 제사장으로서의 나라 형성
- ‘쉐마’는 단순히 ‘들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뜻을 내포한다.
- 가정 · 학교 · 교회에서 교육자는 ** ‘하나님 나라의 왕 된 제사장’ ** 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패턴 3: 사랑의 기도 (Mom’s Love Prayer: MLP)
- 교육자는 부모와 교사로서 기도를 통해 교육 현장을 변화시키는 역할

을 해야 한다.

- 실제 사례와 인터뷰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공유.

2. 긍정적인 아이 키우기 프로젝트

모든 교육 지도자인 'PT'는 폭력 없이 아이들의 권리를 존중하며, 그들이 건강하고 강인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강의 제시문 1: 교육자가 피교육자에게 실천해야 할 교육자세 9가지

- 학생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한다.
- 어떤 상황에서도 학생이 존중받고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 대화할 때는 웃으며 눈을 맞추고 반응을 보여주는 제스처를 사용한다.
- 형제나 친구들과 비교하지 않는다.
- 학습 속도가 느리더라도 인내하며 기다려준다.
- 갈등을 '문제'가 아닌, '성장의 기회'로 바라보는 태도를 기른다.
- 학생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공감하고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한다.
- 행동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 학생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주고 기다려준다.

3. 실천 활동

활동 1:

- 강의 제시문 1을 바탕으로 교육자들이 서로 짝을 이루어 시뮬레이션을 진행한다.
- 실제 교육 상황을 가정하고, 바람직한 교육 방법을 연습한다.

활동 2:

- 교육자가 실천해야 할 9가지 태도를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매칭하여

발표한다.

- 성경적 가치를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논의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동·중앙 아프리카 교육 지도자들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다음 세대를 지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자는 폭력 없는 교육, 성경적 가치관 형성, 그리고 영성을 기반으로 한 교육 방법을 실천해야 한다.지속적인 연구와 실천을 통해, 교육이 단순한 학습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는 사명임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지도자들의 성령의 열매 9가지 만들기 활동과 발표>

<그룹 토의 나눔과 발표-R국><성령의 9가지 열매 활동- T국>

U국의 Z

컨퍼런스 기간 동안, 나는 마음이 불편하면서도 동시에 기쁨과 희망이 넘치는 경험을 하였다. 고아원과 학교를 운영하는 리더로서,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고

침착하게 하루를 시작하겠다고 기도하며 다짐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다. 과도한 업무, 아이들의 무질서한 행동,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음식, 그리고 부족한 재정 문제는 나를 끊임없이 스트레스와 불만 속으로 몰아넣었다. 나는 교육자로서 옳지 못한 태도와 이기적인 지도 방식을 보였고, 이를 알면서도 쉽게 변화하지 못했다.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나는 많은 교훈을 얻었으며, 나의 교육 철학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깊은 반성을 하게 되었다.나는 종종 도와주지 못하는 내 나라에 대한 원망과 현실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곤 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다가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야 하는 것이 교육자의 본분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나는 스스로의 역할을 잊고 있었던 것이다.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나를 되돌아보게 해 주신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이제는 문제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지도자가 될 것을 다짐한다. 이번 교육 과정을 통해 반성과 변화의 계기를 얻었으며, 앞으로는 내 학교와 고아원의 교육 커리큘럼을 전면적으로 갱신할 계획이다.오늘, 나는 진정으로 행복하다.

T국의 M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가 인간의 모든 인격적 덕목을 포함하고 있음을, 이번 활동을 통해 깊이 깨닫게 되었다.나는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인 지도자로서 본분을 다하고 있다고 여겼다. 하지만 이번 교육을 통해, 말씀이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나의 인격 속에 깊이 스며들어야 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구체적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중요한 부분을 잊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그동안 ‘최선을 다했다’는 마음으로 스스로 안주하며, 더 깊이 성장하려는 노력을 하지 못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그러한 시간들이 부끄럽게 느껴졌고,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실천하며 지도자로서 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나는 앞으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다가가며, 그들의 행동과 삶에 올바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지도자가 될 것이다. 또한, 이 배움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교육에 대한 나의 시각을 넓혀 갈 것이다.더 나아가, 이번 컨퍼런스에서 배운 커리큘럼을 책으로 정리하여 사회와 교회, 공동체, 지도자 및 교사들과 나누고 가르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이 교육의 가치를 깨닫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 이번 컨퍼런스는 나에게 희망이며, 기쁨이다.

3.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의 영성

출애굽기 19:5~6 말씀에 따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 말과 내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중에 내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소망은 모든 민족을 구속하시는 데 있으며, 이러한 구속의 사명이 ‘왕 된 제사장, 거룩한 나라’ 영성의 목적과 취지로 설정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을 권능의 손으로 출애굽 시키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힘과 용기를 주셨듯이, 동·중앙 아프리카의 여성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말씀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리하여 어둠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 이번 영성 훈련의 핵심 목표이다 (베드로전서 2:9).

1. 왕 된 제사장의 의미

로마서 5:17은 ‘왕 같은 제사장’의 개념을 설명하며, 그리스도를 통해 왕적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다.여기에서 ‘왕 노릇’이란 단순한 세속적 권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죽음과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것을 의미한다.성경을 통해 살펴보면,

- 창세기 1:28, 2:15 -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으며, 이를 통해 순결하고 경건한 신앙의 소유자로 살도록 계획하셨다.
- 마태복음 23:9~12 - 그리스도의 왕권은 성화된 인격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것을 의미한다.
- 예수 그리스도 -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으신 것은, 잃어버린 후사권(상속권)을 회복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영적 의미를 바탕으로, 컨퍼런스는 **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는 주제로, 영성 강의뿐만 아니라 활동과 그룹 토론, 실내·야외 퍼포먼스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영성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2. ‘왕 된 제사장, 거룩한 나라’ 영성 훈련의 핵심 메시지

이 영성 훈련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 최고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성원으로서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데 목적이 있다.즉, 왕 된 제사장의 영성은 단순히 개인의 정체성과 잠재력을 넘어, 하나님께 소유된 ‘보배로운 백성’으로서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 교육 지도자들의 영성 변화와 리더십을 형성하는 희망적인 과정이다.

3. 영성 활동

① 왕관과 규(홀, Scepter) 제작

참가한 여성 교육 지도자 전원이 ‘왕 된 제사장’의 왕관을 만들고, 임마누엘로 오실 바로 그분을 상징하는 ‘규(왕권의 막대기)’를 제작한다.

- ‘규(홀, Scepter)’의 의미
-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통해 세상의 악을 심판하고 구원을 이루신다는 의미를 가진다.
- 이사야 32~33장은 이 땅에서 불의와 억압과 악습이 사라지고 견고한 복음으로 평안과 안정을 이루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으며,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어진다.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막대기(규)**를 들고 세상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할 것을 다짐하는 것이 이 활동의 핵심이다.

② 토론과 나눔, 발표

각 조별로 제시된 성경 본문을 읽고 토론하며, 영적 교훈을 나눈 후 결과를 발표한다.

- 출애굽기 29:44~46 -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이해

- 역대하 15:1~17 -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의 태도 및 아사왕의 개혁
- 시편 110편 - 다윗의 시와 메시아의 왕권

특히 시편 110편은 신약성경과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마가복음 12:36, 누가복음 20:43, 히브리서 5:6),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분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지 못했던 점을 성찰하는 과정이 된다.이와 같은 토론을 통해, 현재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왕 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더욱 깊이 인식하는 시간을 갖는다.

③ '왕 된 제사장' 영성 퍼포먼스

토론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왕 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극화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 전체 활동:
- 그룹별로 '왕관'과 '규(왕권의 막대기)'를 만든다.
- 왕관을 쓰고 '규'를 든 채, '왕 된 제사장' 찬양을 부르며 마을과 운동장을 행진한다.

이 활동을 통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직접 체험하고, 이를 가정과 학교, 교회 및 사회에서 실천하는 리더십의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모색한다.

4. 그룹 발표 및 실천 계획 수립

각 그룹 또는 개인별로, 왕 된 제사장으로서 가정 · 학교 · 교회 · 사회에서 어떻게 리더십을 실천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발표한다.이 과정을 통해, 참가자들은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와 실행 계획을 세우며, 이를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기회를 갖는다.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 지도자들이 이 영성 훈련을 통해 깨달아야 할 핵심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 왕 된 제사장의 사명은 단순한 개인의 축복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며, 그분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 부름받았다.
- 성경을 통해 제사장 직분과 왕권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
-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세상에 선포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데 앞장서야 한다.우리의 삶 속에서 '왕 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가정과 사회 속에서 적극적인 변화와 리더십을 실천해야 한다.

이 훈련을 통해, 동·중앙아프리카 여성지도자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 중요한 도구로 쓰임 받을 것을 기대한다.

<1그룹 토론 발표>

우리 그룹은 역대하 15:1~7에 나타난 아사왕의 개혁과 우리의 개혁에 대해 깊이 논의하였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개혁이 필요한 부분은 어디이며, 우리는 무엇을 변화시켜야 하는가?이러한 질문을 중심으로 성찰하며,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예배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먼저, 우리는 의식주와 생존 본능에 지나치게 묶여 있어 영성 발전에 우선순위를 두지 못한 점을 회개하였다.우리 안에 자리 잡은 걱정과 근심, 세상의 염려와 마음속의 우상들을 개혁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인식하였다.이에 따라, 작은 것부터 실천할 개혁의 내용을 전지에 기록하며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웠다.

- 왕 된 제사장의 사명을 거스르는 내 안의 산당은 무엇인가?
- 내가 놓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을 중심으로 가정, 교회, 사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를 가르치고 실천해야 할 부분을 나누었다.그룹 토의를 통해, 우리는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신뢰를 쌓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논의의 공통된 결론은 신명기적 쉐마 교육이 각 공동체 속에서 살아나야 하며, 교육계 지도자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왕 된 제사장, 거룩한 나라' 운동을 실천하기 위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이에 따라, 우리 삶 속에 만연한 이단, 토테미즘, 샤머니즘, 우상의 자리를 개혁할 것을 결단하였다.우리는 개혁의 시작을 나 자신으로부터 이루어, 가정과 지역사회로 확산시키며, 다음 세대를 체계적으로 교육할 것을 다짐하였다.

다음 세대는 건강한 구속사를 이루어갈 세대이며,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자원이자 거룩한 백성이다.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신명기적 쉐마 교육을 통해 지속적인 개혁과 변혁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는 정기적인 회합을 통해 기도와 말씀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을 결의하였다.또한, '왕 된 제사장, 거룩한 나라' 운동을 교회와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 공동체(교회/사회), 국가 차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과정 속에서 방해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때때로 의지가 꺾이는 순간도 있겠지만, 우리는 아사왕의 개혁을 본받아, 단호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기로 다짐하였다.

아사왕이 비록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지만, 우상을 섬기던 어머니의 태후 자리를 과감히 폐위하고 거룩한 이스라엘을 위해 개혁을 단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단호하게 세상의 우상을 제거하며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 나갈 것이다.

<2그룹 토론 발표>

‘규(홀)’ : 거룩한 지팡이

우리는 교육계 여성 지도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이신 ‘규(홀)’를 따라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야 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논의하였다.우리는 종이로 만든 ‘규(홀)’을 형형색색의 색 테이프로 꾸며 거룩한 지팡이로 완성하였다.이 활동을 통해, 각자의 사명은 다를 수 있으나, 함께 엮이면 더욱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할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교육 지도자로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미담 사례를 공유하며 교육 현장에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데 목표를 두기로 하였다.비록 나라가 가난하더라도 하나님의 속성인 정의와 사랑이 있다면, 밝은 내일과 희망을 기대할 수 있다.우리의 본분은 다음 세대를 위해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공감하며, 기도로 함께하는 것이다.이를 통해 아이들이 바른 길을 걷도록 인도하며, 능력 있고 힘차게 성장할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세워 갈 거룩한 지팡이이다.우리는 그들이 바르게 교육받고, 지지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것을 다짐하였다.

그룹의 한 멤버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다. “나는 막대기를 ‘거룩한 홀(규)’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다만 학습 효과를 빨리 내기위해, 체벌과 훈육의 수단으로 사용했을 뿐이었다. 나는 지난 시간과 태도를 회개한다.” 이 고백을 듣는 순간, 우리 모두가 공감하며 나 자신의 회개 제목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우리는 솔직한 마음을 나누어 준 멤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물론, 막대기의 형상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규(홀)’가 되신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이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우리는 자신의 무지함을 철저히 회개하며, 앞으로의 교육 방식을 변화시키기로 다짐하였다.

‘왕 된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인 다음 세대가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물들지 않고, 지옥 권세와 어둠의 세력을 빛으로 승리하도록 이끄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이를 위해, 우리는 교육 지도자로서 희생과 헌신을 다하며,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군대로 세울 것이다.컨퍼런스 기간 동안, 우리는 매우 감동적이고 희망적이며,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이제, 우리는 창조적이고 자발적인 영성 교육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신명기적 쉐마 교육을 더욱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룹이 바라는 것은 이러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점이다.우리는 앞으로도 ‘왕 된 제사장, 거룩한 나라’ 운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동·중앙 아프리카의 교육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을 다짐한다.

- 아사왕의 개혁을 본받아, 내 삶 속에서 단호한 영적 개혁을 이루어 나가겠다.
- 나 자신부터 변화하여, 가정과 공동체, 교육 현장 속에서 거룩한 나라를 세워 나가겠다.
- 다음 세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며, 그들이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교육하겠다.
- ‘규(홀)’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지도자가 되겠다.
- ‘왕 된 제사장, 거룩한 나라’ 운동을 지속적으로 확산하여,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데 앞장서겠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를 세워 갈 하나님의 도구로 부름 받았으며,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 할 것이다.

<3그룹 발표> 퍼포먼스 (주제가: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주제 활동: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

먼저, 주제 찬양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을 아프리카어로 번역하여 반복적으로 익혔다.참가자들은 강의실을 여러 번 돌며 노래를 부르고 몸으로 익힌 후, 마을로 나가 마을 곳곳을 돌며 만나는 사람들과 아이들에게 선포하였다.특히 U국의 살렘 초등학교, T국의 마라나타 초등학교를 방문하여,아이들의 눈을 맞추며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손을 맞잡는 시간을 가졌다.이후, 참가자들은 1시간 동안 야외에서 다음 세대와 함께 퍼포먼스를 진행한 후,연수원 운동장을 서너 바퀴 돌며 잔디에 모여 왕이 되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왕의 길 운동’ (King’s Way Movement)

▶ 활동: 제시문을 읽고, 스무고개 형식으로 문장 이어가기

● 나는 요시아 왕이다.

요시아는 여호와 하나님과 가나안의 토착신, 이방신을 동시에 섬기던 남유다

에서 종교개혁을 단행하였다. 마찬가지로, 동·중앙 아프리카의 T국도 혼합주의 다신교 문화가 깊이 뿌리 박혀 있다. 요시아의 개혁이 율법책(신명기)으로부터 시작되었듯이, 우리 역시 삶에서 신명기적 말씀으로 돌아가는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후대에는 반드시 유일신 신앙의 개혁이 이루어질 것이다. 요시아처럼, 부익부 빈익빈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정의와 공의를 세우며, 약자를 보호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 나는 히스기야 왕이다.

히스기야는 아세라 목상을 찍어 버리고, 모든 우상을 깨트리는 개혁을 단행하였다.우리 역시 하나님보다 더 숭배하는 크고 작은 우상들을 신명기 쉐마 말씀으로 날마다 깨트려야 한다.히스기야처럼 오직 여호와께만 연합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 나는 다윗 왕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억눌리고 약탈당한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었다.또한, 예루살렘을 예배의 중심지인 거룩한 성으로 세웠으며, 그의 가문에서 기름부음 받은 메시아가 탄생하였다.우리 역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며, 교육 지도자로서 올바른 리더십을 실천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요셉 한 명의 노예 생활로 시작하여,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방 땅에서 민족을 이루고, 430년 만에 출애굽 하게 되었다.동·중앙 아프리카 역시 식민지와 내전의 역사를 겪으며 독립된 자아의식을 확립하지 못한 채 수백년을 살아왔다.이번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영성 훈련과 퍼포먼스를 통해 지도자들은 몸과 마음이 가벼워졌고, 눈빛이 반짝이며, 신나는 춤과 열띤 토론을 나누는 장이 되었다. 특히, 기존의 컨퍼런스에서는 후속 계획이 거의 없었던 것

과 달리,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신명기 사관의 쉐마 교육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회합과 후속 계획을 논의하고 발표하였다.지도자들은 '왕 된 제사장, 거룩한 나라'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실천이 구체화된 것에 감격하였다.연구자로서도 이러한 변화와 기대, 희망을 볼 수 있어 감사한 시간이었다.

4. 'MLP' (Mom's Love Prayer) 영성 훈련

'MLP'(어머니의 기도)는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딤후 1:5), 그리고 서원 기도로 아들 사무엘을 낳아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게 한 한나(삼상 1:11)의 기도 영성을 본받는 운동이다.

동·중앙 아프리카는 식민지 지배와 가부장적 문화로 인해, 여성들이 자녀의 미래에 영향력을 끼칠 기회가 극히 드물다.여전히 성차별이 심해, 가난한 가정에서는 딸들이 교육을 받기보다는 노동력으로 희생되는 현실이다.이러한 사회·문화적 한계를 기도로 돌파하고, 여성들이 '기도의 어머니'로서 해방과 자유의 영적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 MLP의 목적과 취지이다.

어머니의 기도는…

- 삶의 문제 앞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한다.
-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인류애를 실천하는 영향력을 갖게 한다.
- 어려움에 처할 때, 돌아올 자리(영적 피난처)가 된다.
- 신앙의 길잡이가 되며, 미래를 항해하는 나침반이 된다.
-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소망을 얻게 한다.
- 인생의 고난을 이겨낼 힘과 지혜를 준다.
-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한다.

<MLP 중보기도 모임: 지역별 정기 모임>

주 1~2회 정기 모임을 통해 기도 운동을 확산한다.

활동 및 분임 토의

▶ 활동 1: 나라별 여성 지도자들이 두루마리에 한 줄 기도를 써서 기도를 이어간다.

▶ 활동 2: 리본 테이프에 한 줄씩 기도를 적어 서로 묶는다.

▶ 활동 3: 매일 쉐마 활동과 5분 기도 노트를 만들어 영성 일기를 기록한다.

▶ 활동 4: QT와 기도 노트를 잠자기 전 읽고, 실천한 내용을 영성 일기에 기록한다.

▶ 활동 5: 자녀를 위한 매일 기도와 감사 기도를 바구니(또는 항아리)에 모아, 한 달 후 함께 나눈다.

▶ 활동 6: 완성된 두루마리 기도를 벽에 붙이고, 아프리카 전통 기도 방식으로 돌며 기도한다.

▶ 활동 7: ‘MLP 어머니 기도 운동’을 학교, 교회, 공동체로 확산시킨다.

<MLP 평가>

비록 언어가 다르지만, 여성 지도자들의 ‘두루마리 한 줄 기도’는 매우 강력한 기도의 울림을 주었다.나라별로 기도문을 읽으며, 모두가 ‘아미나(AMEN)’를 연발하였다.기도문을 리본에 적어 서로 연결하자, 끝없이 이어지는 기도 줄을 붙잡으며, 사명감을 새롭게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영성 일기를 만들며, 매일 나뭇잎,

천, 종이에 기도를 적어 엮고, 말씀을 나누며 가정과 공동체에서 실천하기로 하였다.아프리카 기도 방식은 억압을 표현할 때, 머리에 짐을 이고 마당을 돌며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면 '껑충껑충' 뛰며 손을 흔들어 기쁨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띠 기도'와 '두루마리 기도'는 사회적 이슈와 기도 제목에 따라, 벽을 돌며 저항적 기도를 담기도 한다.아프리카 여성지도자들은 'MLP' 기도 연합을 통해, 디모데와 사무엘 뿐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인류를 책임질 지도자들이 세워질것을 확신하였다.

5. 하부르타(Chavurah)식 성경통독

유대인의 전통적인 학습 방법인 **하브루타(Havruta)**는 짝을 이루어 대화와 질문을 통해 논쟁하는 방식이다.하브루타의 어원인 '하베르'(חֲבֵר)**는 '친구', '우정', '동반자 관계'**를 의미하며, 이를 바탕으로 신앙 생활, 기도, 성경 공부 등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경험을 공유하는 토론식 학습 모임을 뜻

한다. 하브루타에서는 ‘학습 파트너(Study Partner)’를 의미하는데, 보통 2~3명이 함께 학습하므로 소외되는 사람이 생기지 않으며, 학습 효과가 상승하고 사고의 발전을 촉진한다.이 방식은 단순한 강의식 교육이 아닌, 관계 중심의 학습법으로,통찰력을 기르고 상대를 존중하며 분석, 응답, 토론, 논쟁, 행동을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또한, 학습 파트너를 넘어 깊은 우정과 지속적인 친구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으며,지식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학습과 경험의 뛰어난 효율성을 갖춘다.

이번 동·중앙 아프리카 교육계 여성 지도자 컨퍼런스에서는 성경 통독 방법을 하브루타식 학습 방식에 접목하였다.비록 유대인의 방식처럼 논쟁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지는 않지만,짝을 이루어 성경을 일정 분량씩 나누어 읽고, 함께 나눈 후 외우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이러한 협동 방식은 통독자의 의욕을 끌어내며, 집중도를 높이고, 성경 읽기에 대한 즐거움을 더하여 내적 변화를 유도한다.특히, 주제별로 **성경 66권을 요약한 ‘성경 10분 스토리’**를 활용하여 2~3명이 짝을 이루어 함께 암송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이것은 성경을 통독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매우 효과적이며,각 학교와 단체, 교회에서 교육 지도자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야 할 ‘토라’(Torah)이며, ‘쉐마’(Shema) 교육의 한 형태이다.성경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으며,히브리서 4:12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나니.”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 따라서, 하브루타식 성경 통독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닌, 영적인 변화와 성장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과정이다.

‘통(通) 성경’ 의 10분 스토리

‘통(通) 성경’ 의 세계화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조병호 박사는지난 30년간 한국 교회에서 성경 통독을 학문화하고 보급해 온 성경 통독 전문가이다.그는 성경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암송할 수 있도록 ‘10분 스토리’ 를 개발하였으며, 이는 짧은 시간 안에 성경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돕는 혁신적인 성경교육방법이다.

<10분 스토리>

10 minutes MOVEMENT

THE WHOLE BIBLE STORY IN 10 MINUTES

By Dr. Byoungho Zoh
Founder of Bible Tongdokwon, Seoul, Korea
Tongdok Bible App

How happy will it make God our Creator when he hears that, like Stephen did in Acts chapter 7, we understood and spoke the whole Bible Story without getting it wrong, without turning from it to the right or to the left, without crossing the line, in front of a crowd, and within 10 minutes?

The 66 books of the Bible, from Genesis to Revelation, is One Story.

A pre-history from the native country of the universe -the heart of God- is the start of the Genesis story of God's creation, Adam's and Eve's fall, Noah's flood, and the dramatic divine self-identification as a multi-generational God, the "God of Abraham, Isaac and Jacob," the God of Sarah, Rebecca, Rachel and Leah. God called Abraham God's friend and tested his obedience in a burnt offering on Mount Moriah; Isaac reaped 100 times during famine; Jacob established the foundation for the twelve tribes through his sons; Joseph entered Egypt to birth a nation.

400 years later, the Hebrew people leave Egypt after the first Passover. The outward reason for Exodus was Egypt's persecution and enslavement. The real reason for Exodus was to form a Covenant between God and the Israelites to establish a Kingdom of Priests, a dream for all nations. Leviticus is a textbook for holy citizens in a Kingdom of Priests including how to prepare the five types of offerings. Numbers is the story of the Manna Generation who were educated over 40 years in the desert by Moses. Deuteronomy is the story of the Manna Generation's graduation in the desert. Joshua is the story of the founding of a Kingdom of Priests in Canaan with the 48 towns for the Levites at its center. Judges is the story of the 350 years under the Judges' rule when the first-step and second-step punishments of famine and plunder (as recorded in Leviticus) came upon Israel. Ruth is the success story of education in a Kingdom of Priests in the midst of the Judges' rule.

Samuel puts an end to the dark period of Judges through the birth of the Mizpah Generation that ignites the flames of a Kingdom of Priests. Saul becomes the first king of Israel, and the clash between Saul and Samuel was the first of many feuds between a prophet and a King. A shepherd, musician and giant-slayer named David is anointed with holy oil three times to become king, and he shows true loyalty to a Kingdom of Priests by preparing for the construction of the Jerusalem temple for which he is given the title 'God's servant'. Prayers and psalms by David are recorded that opened the gateway to heaven, as well as the story of Job of whom God boasted for his unyielding faith. Solomon completes the construction of the temple, and writes Proverbs, Song of Songs, and Ecclesiastes.

After Solomon's death, Israel's North and South kingdoms are forced to divide for 200 years. During that time, Elijah, Elisha, Amos, and Hosea cry out for the people to return to God while Jonah showcases God's heart towards all nations through the three-day miracle. North Israel is destroyed by Assyria's army in 8th century B.C. despite the many prophets who were sent to persuade Israel to return to God. At the same time, prophets Isaiah and Micah are sent by God to South Judah to prophesy about the Messiah and his birth in Bethlehem. 150 years later when South Judah is destroyed by Babylon's army, prophets Zephaniah, Habakkuk, Nahum, and Joel are appointed to comprehensively evaluate the 500 years of Israel's monarchy. During this time, Jeremiah prophesies the third-step punishment of a Kingdom of Priests upon Israel to unfold in Babylon for 70 years (as recorded in Leviticus – punishment, education, sabbath, lifespan of empire), as well as prophesying a New Covenant written "on the heart" not "on tablets of stone." To the returned captives from Babylon, God gifts I&II Chronicles as motivation to rebuild Jerusalem.

During the 70 years of Babylonian captivity, the people are reborn through the Word of God with the help of Ezekiel. Daniel's four visions sketch out the change of imperial rule from Babylon, Persia, Hellas to Rome and compares this upheaval to the Kingdom of God that will stand forever. The Babylonian empire falls to Persia just as God promised, and the Persian empire invests in the Levant region by facilitating the reconstruction of the Jerusalem temple through Zerubbabel, Haggai, and Zechariah along with the returned captives.

Meanwhile, the Jews who remain in Persia are threatened with death due to Haman the Amalekite's wicked scheme, but manage to overcome this disaster through Queen Esther's political savvy. Ezra then leads the second return of captives to Jerusalem and sets the foundation for the Sanhedrin Assembly. Nehemiah leads the third return of captives to reconstruct the Jerusalem walls. 1,000 years after the founding of a Kingdom of Priests, God makes

known His love towards Israel through Malachi and promises to send Elijah to turn the heart of the parents to their children, and the heart of the children to their parents.

God is then silent for 400 years.

In between B.C. and A.D., Jesus Christ is born in Bethlehem to the supreme delight of angels and shepherds. Jesus teaches God's unending love during his three years on earth, and values one soul more precious than the whole universe. At times, Jesus becomes exhausted from showing God's love to the people day and night. Jesus is a pillar to the weak, an advocate for the poor, a healer to the sick and wounded, and a friend to Samaritans, tax collectors and sinners. During Jesus' last week, Jesus turns his last Passover Meal into Holy Communion in fulfillment of the New Covenant. After standing trial before the Sanhedrin Assembly and Pontius Pilate, Jesus is sentenced to be crucified on the Roman empire's legendary torture tool, and turns it into a door to heaven itself. The moment Jesus cried, "It is finished!" on the cross, the curtain of the Jerusalem Temple ripped in two. In fulfilling the laws and the prophets, Jesus reigns victorious on the cross once for all by his own blood and becomes the new and living way through the veil as he embodies the Good News of God's Kingdom. Three days after Jesus' crucifixion, Jesus resurrects from his grave and gives his Great Commission: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peoples.

The Pentecost experience of the Holy Spirit paves the way for the Disciple Era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Jerusalem Council to spread the Good News of God's Kingdom and strengthen the church despite threats from the Sanhedrin Assembly. On his sixth post-resurrection appearance, Jesus appears to Paul on his way to Damascus and Paul is called to become an apostle for all nations. Paul accompanies Barnabas who is sent by the Jerusalem church on their first missionary journey to Asia Minor. Two years later, the Jerusalem Council meet to discuss the issue of circumcision raised by the Antioch church. The Council rules that the only way to salvation is through the cross of Christ. Also, Paul is acclaimed as a loving brother to the standard of Barnabas during this meeting.

Paul's team embarks on their second and third missionary journeys and sends letters to churches in Thessalonica, Galatia, Corinth, and Rome which are meant for public hearings, not private readings. Towards the end of their third missionary journey, Paul's team decides to spread the Word by traveling across Rome to Spain, a place considered to be the end of the world in those days. When they inform the Jerusalem church of this plan, the Jerusalem Council advises Paul first to visit the Jerusalem temple. But Paul is cornered by his own people who want to kill him. A Roman commander rescues Paul and strategizes to hold another Sanhedrin trial to help Paul attempt at a final persuasion. When the Sanhedrin Assembly's threats reach dangerous heights, Paul ostensibly and avowedly confesses his belief in resurrection, which splits the Sadducees and the Pharisees and makes his escape. That night, Paul is sent to Caesarea under the protection of the Roman Commander and is held under trial by Governor Felix which keeps Paul captive for a further two years.

Paul is subsequently held under trial by the new Governor Festus and ends up using his Roman citizenship, when threats by the Sanhedrin Assembly become unbearable, to be sent to Rome as a prisoner on deck to be tried by the Roman emperor. While waiting for the emperor's trial for two years under house arrest in Rome, Paul preaches the Good News of God's Kingdom and writes Ephesians, Colossians, Philippians, and Philemon. When Paul is released for a short while, he embarks on yet another missionary journey.

In A.D.64, a great fire sweeps over Rome. About 200 Christian leaders and first-generation evangelists are accused of starting the fire and are brutally massacred. Paul also realizes that his time is near and writes his final letter of last will and testament to Timothy. At the same time, first-generation evangelists write to second-generation evangelists Hebrews, I&II Peter, and Jude before their untimely deaths. The letters are written to spur on second-generation faithful to fight the righteous fight under the Roman empire's persecution of Christians, and to preach the gospel to the ends of the earth in the face of martyrdom. St. John outlives all the other first-generation evangelists for a further 30 years and looks after second-generation evangelists who face deadly persecution by the Roman empire. St. John records I&II&III John and proclaims that "God is love." St. John also introduces the lamb of God and the new heavens and the new earth to the seven churches in Asia Minor and closes with the story of Jesus' rapturous return in Revelation.

Opening your Bible opens miracles.
We will multiply our faith and churches through the Tongdok revival movement
in the 21st century through God's Word, the Bible.
God's story is the story of life, and our life-story. Amen.

Ⅴ. 사례에 따른 EPIC이론 적용

EPIC은 경험(Experience), 참여(Participation), 이미지(Image), 연결(Connection)의 핵심 요소를 바탕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반영하는 개념이다.이러한 EPIC의 원리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천적 접근 방식으로,인간이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EPIC의 핵심은 참여와 관계 형성에 있으며,경험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참여와 이미지, 그리고 연결을 모두 포함하는 과정이다.따라서,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 리더십 형성 연구와 EPIC 모델을 접목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이다.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 리더십 형성 연구에 따른 영성과 교육을 위한 EPIC 접근법은 단순한 종교적 영성을 넘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경적 영성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는 성령님이 행하시는 여성들의 모든 사역과 리더십을 기반으로 한다.

연구자의 사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여성 리더십은
단순한 지도력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령의 인격이 드러나는 EPIC 영성 리더십으로 나타난다.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리더십이다.창세기 1:27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라고 기록되어 있다.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임을 의미하며,이 형상에는 지성과 감성, 의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사랑과 자비, 자유와 거룩함의 속성이 포함되어 있다.따라서,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 리더십의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들은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로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리더들이다.

본 연구 사례에서 EPIC 모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본질을 담아내는 다양한 경험과 참여, 이미지, 그리고 관계 연결을 포함한다.EPIC 이론의 적용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공동체의 잠재력을 이끌어 내는 여성 리더십 형성과 깊이 연결된다.이러한 리더십 형성 과정은 단순히 개인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참가자들 간의 우정, 배려, 섬김, 연합이라는 풍성한 영성 형성을 이루는 과정이 된다.

EPIC 적용의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경험(Experience):

- 참가자들이 직접 경험하는 성경적 원리와 실천 활동
- 예배와 교육을 결합한 체험적 학습
- 신앙을 몸으로 기억하는 과정

2. 참여(Participation):

- 단순한 강의식 학습이 아니라 직접 참여하는 교육 방식
- 성경적 리더십을 몸으로 익히고 실천하는 훈련
- 개인의 신앙을 공동체 안에서 나누며 성장하는 과정

3. 이미지(Image):

- 은유적, 상징적 표현을 통해 신앙적 메시지를 전달
- 성경적 개념을 시각적·상징적으로 표현하여 학습 효과를 높임
- 이야기와 이미지, 상징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적용

4. 연결(Connection):

- 개인의 변화가 공동체로 확산되도록 설계
- 서로 연결되는 관계망을 형성하여 지속 가능한 리더십 구축

- 여성 지도자들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공동체 형성

EPIC 모델의 구체적 적용 사례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 리더십 형성 연구에서 2024 여성 지도자 컨퍼런스를 중심으로EPIC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적합한 접근 방식이다.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다양한 분야의 여성 리더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참여
- 교육자, 목회자, 사회 지도자 등 다양한 여성들이 참석
- 서로 배우고 나누며 공동체적 경험을 형성

2. 참여와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적 학습 방식 적용
- 참가자들이 단순한 수강자가 아니라, 상호작용하는 참여자로서 역할
- 배운 내용을 실천하며, 공동체 속에서 경험을 쌓는 과정

3. 리더십 형성과 영성 개발을 동시에 이루는 프로그램 구성
- 신앙과 교육을 통합하여 실질적인 리더십 개발을 목표로 함
- 성경적 가치와 영성을 실천하는 리더로 성장하도록 돕는 과정

EPIC 모델의 결정체인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 리더십 형성 연구의 교육 및 영성 컨퍼런스에서는 여성 지도자 그룹, 여성 목회자 그룹, 여성 교육계 그룹 등 다양한 리더들이 모여 몸으로 체험하고 기억하는 액티비티 중심의 학습 방식을 경험하였다.특히, 이 컨퍼런스는

- 몸의 예전(Liturgical Movement)
- 교회력의 패턴
- 바이블 액티비티 기반의 몸 예배

- 교육을 통한 리더십 개발

을 결합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EPIC 모델을 적용한 여성 리더십 컨퍼런스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참가자들이 먼저 경험하고 참여하여, 이미지화된 은유로 재창출하여 공동체를 세워가는 과정이다.이는 공동체 안에서의 연대와 관계 형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즉, 여성 지도자들의 리더십은 단순한 개인의 성장에 머무르지 않고,공동체와 연결되며, 인류를 위한 구속사적 사명을 감당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이것이 바로 EPIC 모델을 통한 리더십 형성의 핵심이며,동·중앙아프리카 여성지도자들의 영성과 교육에 적용된 EPIC 영성 리더십의 본질이다.

A. E 경험하기 (Experience)

'경험'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정신적·신체적 고통과 시간이 수반되는 과정이다.사회와 문화적 배경에 따라 그 고난과 수고의 척도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그러나 경험과 지식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한쪽으로 치우칠 위험이 있다.

- 경험만 많으면 설득력이 부족하고,
- 지식만 많으면 현실과 동떨어진 절대화된 관념이 될 수 있다.

레너드 스윗(Leonard Sweet)은 EPIC 이론에서 '경험'을 강조하며, 복음이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깊이 스며드는 열정적이고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그는 스타벅스 커피를 예로 들어,경험을 통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고 관계를 형성하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도 '경험'을 통해 진정한 매력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한다.그러나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들에게 ‘자발적인 경험’이란 기대하기 쉽지 않은 현실이다.식민지 지배와 가부장적인 사회 문화 속에서 여성들의 역할은 제한적이며,스스로 경험을 만들어가는 기회조차 부족한 경우가 많다.하지만,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과 잠재력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본 연구는 EPIC 모델의 ‘경험’을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 리더십 형성을 위한 사례 연구로 적용하며,성경을 테마로 한 자발적 경험을 통해 여성 리더십을 세우고,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확장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마사이 부족의 경험적 리더십 사례는 참여자가 단순한 관찰자가 아닌, 직접 경험하는 주체가 되는 과정이었다.

① 마사이 여성들의 경험적 예배와 영성 형성

- 마사이 여성들은 공동체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만,

기독교 신앙을 따르는 것 자체가 도전적인 일이었다.

- 그러나 EPIC 모델의 ‘경험’을 활용하여 몸의 예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 체험을 제공하였다.

- 마사이 여성들은 몸을 사용하는 예배에 익숙하여,

신앙을 몸으로 경험하며 영성을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었다.

- 컨퍼런스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는 몸의 예전을 직접 경험하며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실천하는 방법을 배웠다.

② 기도를 통한 영적 체험

- 마사이 여성들은 마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뭇잎에 기도를 적고, 이를 연결하여 기도문 장식을 만드는 활동을 하였다.

- 기도의 의미를 새기며, 기도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영적 습관을 형

성하였다.

③ 교육과 공동체 리더십 형성

- 마사이 여성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하는 경험이 리더십 형성의 핵심임을 인식하였다.
- 쉐마교육 경험을 통해, 학교 마당을 돌며 환호하고, '왕 된 제사장' 의 경험을 퍼포먼스로 체험하며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 또한, 노아의 방주 스토리를 활용하여 공동체 내에서 신앙을 실천하는 여성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짐하였다.

마사이 여성들은 전통적인 문화 속에서 신앙을 경험하며,주술적 의식이나 할례 같은 가혹한 전통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이것이 EPIC 모델의 '경험' 을 통한 정체성과 잠재력의 발견 과정이었다.

Bible Activities Worship(BAW)은성경 테마를 중심으로 한 액티비티를 통해, 아프리카 여성들의 리더십 형성을 경험적으로 접근한 사례이다.

- 많은 여성들이 성경을 소유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액티비티를 통해 성경의 의미를 직접 체험하도록 하였다.
- 기존의 강의식 전달 방식이 아니라, 참여자들이 몸을 움직이며 직접 체험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 교회 공동체의 예배, 친교, 봉사, 섬김, 배려 등의 신앙적 요소를 경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아프리카 문화는 느림의 문화로 알려져 있지만,참가자들은 단순히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기를 원한다는 점이 두드러졌다.

- 성경을 테마로 진행된 바이블 액티비티에서 참가자들은 순발력과 협

동심을 발휘하며,열정적인 경험의 주체자가 되고 싶어했다.

- 성경을 단순히 읽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온 감각을 활용하여 하나님을 체험하는 경험 중심 방식을 통해 신앙의 깊이를 더할 수 있었다.

이 경험은 마치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며 '이스라엘'이 된 과정과도 같았다.

- 누구나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 하나님과의 경험을 통해 진정한 신앙의 변화를 이루는 것이 목표였다.

여성 교육지도자 컨퍼런스에서의 '경험'을 적용하여 기존의 강의식 컨퍼런스에서 벗어나,경험 중심의 학습을 강화한 컨퍼런스로 전환하였다.

- 참가자: 고아원장, 학교 교장, 유치원장, 교사, 교회 교육자 등
- 주요 이슈: 체벌을 통한 교육 문제 해결

컨퍼런스에서는 '스마일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교육 경험을 변화시키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1. 체벌 없이 교육하는 방안을 모색

- 성경적 원칙을 바탕으로, 사랑과 격려를 통한 교육 방식을 논의하였다.
- 매를 들지 않고도 아이들에게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경험하였다.

2. 성경적 교육 접근법 실습

- 쉐마교육을 중심으로,

교사와 어머니의 기도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 성경적 가치관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였다.

EPIC 모델에서 ‘경험’의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

- 하나님과의 경험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신앙의 호흡이자 맥박이며, 생명이 되는 과정이다.
- 오늘날 사람들은 실제적인 신앙 경험을 원하며,성경적 경험을 통한 변화된 삶을 갈망한다.

이번 연구를 통해 여성 교육지도자들은 복음이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삶 속에서 직접 경험하는 진리임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교육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경험을 전하는 소명의식을 더욱 확고히 하였다.EPIC 모델의 경험을 통한 여성 리더십 형성은 단순한 교육을 넘어, 구속사역을 위한 사명으로 확장된다.이를 통해 여성 지도자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잠재력을 깨닫고,신앙공동체를 이끌어 가는 리더로 성장하게 된다.

B. P 참여하기 (Participatory)

경험 속에서 구체화되는 ‘참여’는 곧 예수님의 사명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한다.과거의 대리문화에서는 능동적인 참여보다는 타인의 결정을 따르고,통제를 받는 것이 익숙한 구조였다.이러한 환경에서는 리더십의 역할도 단순한 안내와 규정 집행에 불과하였다.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만 행동하게 된다.그러나 ‘참여 문화’는 창조적 리더십을 요구하며,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한다.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강하고 자

신 있게 만들어 주는 과정이 포함된다.개인의 시간과 자원을 현명하게 투자하는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몸으로 드리는 예배' 에서의 참여

① 성금요일을 기억하는 이머징 예전

- 동 · 중앙 아프리카 여성들이 단순한 예배 참석자가 아닌,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는 경험이었다.
- 몸과 영혼을 함께 사용하여 예배에 참여하며, 십자가를 묵상하고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 손을 들고 앞으로 나아가며 발걸음을 내디딜 때,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신비한 체험이 일어났다.

② 하나님과의 연결을 경험하는 예배

-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우리는 네트워크처럼 서로 연결되는 존재이다.
- 예배 안에서 개인이 단체가 될 수도 있고,단체가 다시 개인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유기적 예배 구조를 경험하였다.
- 이러한 상호 작용을 통해,고난을 기억하는 참여는 부활의 기쁨으로 이어지고,부활의 참여는 세상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힘이 된다.

③ 동 · 중앙 아프리카 여성들의 반응

- 예배 후 나눔과 토의를 통해,

참여가 단순한 개인적 활동이 아니라 상호 관계적이며 상호 의존적인 과정임을 깨달았다.

-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공동체와 리더십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였다.
- 이러한 예배 경험은 EPIC 모델에서 강조하는 자발적 참여 문화를 조성하는 핵심 과정이 되었다.

기술학교 여성들의 '참여' 사례

① 기술 리더십 프로젝트 참여

- 동·중앙 아프리카의 시골 오지에서 직업군이 전무한 20대 여성 50여 명이 기술 프로젝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직업 교육이 아니라, 여성들이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실천하는 과정이었다.
- 자신의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공동체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려는 거룩한 담대함이 있었다.

② 독립적인 주도권을 가진 참여

- 프로젝트에 참여한 여성들은 주어진 교육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열정적으로 배우고 자발적으로 실천하였다.
- 기술을 익히는 동안,세상과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용기와 독립성을 갖춘 리더십을 형성하였다.

③ 공동체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

- 수년간 기술을 익힌 후,이 여성들은 자신의 참여 결과를 공동체와 지역사회에 환원하였다.
- 프로젝트 참여자들은 연대하여 사회적 기업을 창출하였고,

지역 교회에서도 사명을 가진 일꾼으로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 특히, 아프리카 오지에는 정상적인 목회자가 부족한 현실에서 여성들의 자발적인 리더십 참여가 교회의 성장과 복음 전파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EPIC 모델의 '참여'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세상을 인지하고 이해하며, 세상과 함께 상호 작용하는 과정이다.기술학교 프로젝트에서 여성들은 경제적 자립뿐만 아니라,자신들의 역할과 사명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예배 속에서의 몸을 활용한 참여는 신앙을 보다 깊이 경험하는 방식이 되었다.모든 참여 과정이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적 사명이 되었다.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리더십 형성은 결국 인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확장하는 과정이다. EPIC 모델의 참여를 통해 아프리카 여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리더로 변화하고,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강한 지도자로 성장하게 된다.

C. I 이미지 메이킹 하기 (Image)

기독교에서 구속사의 복음을 전하는 핵심은 '말'이 아니라 '이미지'이다.리더십도 이미지로 관계를 형성하고, 현실 속에서 구체화되어야 한다.이미지는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드러내는 창이며,사람들의 영적인 삶을 형성하고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이다.이는 단순한 의식이나 교리, 종교적 형식이 아니라, 생생하고 풍부한 상징과 은유가 담긴 신학적 이미지여야 한다.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을 단순한 말로 전달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이 지닌 신학적

의미를 상징적 이미지로 기록하였다.글과 말보다 복합적이고 역설적인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이미지는 사고와 행동을 형성하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 리더십 형성 연구와 '이미지' 적용

① 교회력(Church Calendar)의 이미지화: 예수님의 탄생, 삶, 죽음, 부활, 승천은 구속사의 전환점이자 절정이다.이 패턴을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들의 삶 속에서 이미지로 형상화한다.

(1) 대림절(Advent) 이미지 적용 - '빛'과 '기다림': 예수 그리스도의 기다림을 상징하는 빛의 이미지를 촛불로 형상화한다.대림의 촛불은 단순한 불빛이 아니라,인종의 정체성, 여성의 억압으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을 의미한다.또한 내전 종식, 용서와 화해, 가난한 자들의 희망을 담은 빛이기도 하다.대림절을 기념하며, 모든 참가자가 촛불을 하나씩 들고, '주님을 기다립니다'라는 말과 함께 불을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한다.이는 단순한 절기 예배가 아니라,기다림과 소망을 영성으로 형상화하는 강력한 이미지 예배였다.

(2) 성탄절(Christmas) 이미지 적용 - '연합과 축제': 나라별로 성탄절 음식을 만들어 이웃과 나누는 '성탄의 식탁'을 연다.성탄절의 원형 트리(Wreath Tree)를 만들어, 기쁨과 연합을 상징한다.성탄의 식탁과 원형 트리는 단순한 장식물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위한 성찬',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3) 주현절(Epiphany) 이미지 적용 - '부르심과 소명': 주현절을 상징하는 드레스 코드(자주색, 흰색, 초록색, 빨간색, 금색) 적용한다. 여성들은 절기에 맞는

색상의 옷을 입고,성경의 메시지를 나누며, 교회력의 패턴을 몸으로 경험한다. 에코백에 교회력의 색을 칠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회력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메시지를 체험한다.

(4) 고난주간(Passion Week) 이미지 적용 - '십자가의 길' : 잔나무 가지와 풀잎을 엮어 십자가를 만들고,십자가의 길을 따라 행진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비아돌로로사(고난의 길) 체험을 통해,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승리를 이미지로 형상화한다. 십자가의 퍼포먼스를 통해, 십자가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복음 전파의 강력한 상징이 됨을 체험하였다.

(5) 성찬(Eucharist)의 이미지 - '하나님의 식탁' : 성찬의 이미지는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 '차별 철폐', '구원과 연합'의 상징이다. '주님의 식탁' 초대장을 만들어,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성찬의 의미를 체험한다.이 성찬의 이미지는 여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명의 자리로 연결된다.[81]

몸으로 드리는 예배 - '몸 예전'(Body Liturgy)의 이미지 경험

과거의 복음 전파 방식이 구술(Oral Tradition) 중심이었다면,오늘날은 시각적 이미지와 상징을 통한 예배 형식이 더욱 효과적이다.예배는 언어를 초월하는 감각적 경험이 되어야 한다.이미지는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상징이자, 복음의 전달 매체가 될 수 있다.

① '몸 예전'의 이미지 - 머플러를 활용한 예배: 참가자들은 머플러를 활

[81] 레너드 스윗, 『태블릿에서 테이블로』 장택수 역 (서울: 예수전도단, 2015), 23.

용하여 깊은 호흡과 기도의 움직임을 연습하였다.자신의 신체와 화해하는 '신체 치유 예배'를 진행하였다.몸의 예전은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영적 경험이었다.

② '왕 된 제사장'의 이미지 - 왕관 퍼포먼스: 모든 참가자가 왕관을 만들고,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며 행진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왕관의 이미지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이며, '여성 리더십'이 단순한 역할이 아니라, 거룩한 소명임을 상징한다.

EPIC 이미지의 확장 - 리더십과 교육의 변화

① U국 여성 지도자 H의 리더십 사례: 돼지 두 마리에서 시작한 그녀의 리더십은 '새마을 하버드학교' 창립으로 이어졌다. '새마을 운동'의 이미지(근면, 자조, 협동)를 교육 패턴으로 적용하여,학교가 신앙과 교육,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도록 만들었다.그녀의 사명감은 단순한 학교 운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으로 확장되었다.

② 피그미 부족의 '글 없는 책' 프로젝트: 성경을 읽지 못하는 부족을 위해, 그림과 이야기 플롯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극화, 인형극, 무언극을 활용하여 이미지를 중심으로 성경을 교육하는 방안을 모색

이미지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행동과 변화를 이끄는 강력한 도구이다.교회력의 이미지, 몸의 예전, 성찬의 상징, 왕 된 제사장의 선포이다. 이 모든 과정은 여성 리더십을 형성하는 강력한 영적 경험이다. EPIC 모델의 이미지는 아프리카 여성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왕 된

제사장이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다.

D. C 연결된 관계로의 교회(리더십)되기 (Connection)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와의 유대감과 풍성한 관계를 갈망하고 있다. 특히 억압받고 소외된 사람들뿐 아니라, 누구나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EPIC의 경험, 참여, 이미지 요소가 ‘연결’과 ‘관계성’을 창출하는 핵심 원동력이 된다 .이러한 관계 형성은 사회·문화적으로 평등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체 활동을 장려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 기독교 리더십에서도 공동체와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연결’과 ‘관계성’을 기반으로 한 리더십 사례 연구

① 한국 연수 교사 사례 - 교육 공동체와의 연결: 한국에서 6개월간 연수를 받은 T국 출신 교사 2명이,자국으로 돌아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지역사회 교육기관과 연대하여 어린이들의 교육 질 향상과 발전을 목표로 삼았다. 특히 정기적인 교사 교육 연수와 주정부 교육 관계자들과의 협력을 추진하며,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적용하고 있다.

연수 교사의 리더십 확산 사례: 연구자는 수년 전, 연수 교사들이 주최한 M주 여성 교육 지도자 80명 및 교회학교 교사 리더십 컨퍼런스를 진행하였다. 이 컨퍼런스를 통해 참여한 교사들이 필드에서 영성과 교육을 연결하는 리더십을 발휘하였다.나’에서 ‘우리’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공동체로 확장되는 상

호 관계성이 형성되었다.또한, 기독교의 핵심 원리인 관계성을 강조하며, 복음적 구속사의 흐름을 연결하는 교육 모델을 도입하였다.

성경 교육과 연결된 신앙 지도: 유치원부터 초등·중등 교육까지, 조병호의 '성경 66권 10분 스토리'를 활용한 신앙교육을 구심점으로 삼았다.학생은 부모에게 복음을 연결하고, 부모 교육에서는 영성을 전수하는 연결 고리의 중심점이 되었다. 교사 공동체는 쉐마 교육과 예수님의 이야기 중심의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관계성을 확장하고 있다.

연수 교사의 리더십이 창출한 공동체적 변화를 살펴보면 교육 기관을 리더십 발휘의 장(場)으로 활용, 학생을 통해 가정으로, 가정을 통해 지역사회로 복음 확산, 연결과 관계성을 통한 교육 리더십 모델 정착이 이루어졌다. 이 사례에서 '연결'과 '관계성'은 단순한 교육 시스템의 도입이 아니라, 기독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 형성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② U국 여성 목회자 마리(Mari)의 사례 - 지역사회와의 연결

여성 목회자인 마리는 타 종교 집성촌에서 목회를 시작했다. 그러나 처음에는 지역사회와의 연결점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었다.

1단계: 관계 형성을 위한 '염소 뱅크 프로젝트'

- 빈곤 가정 실태 조사 후, '자녀 학교 보내기' 염소 뱅크 프로젝트 시행
- 10가정 선정 → 가정당 염소 2마리 지급 → 6개월 후 새끼 2마리 반납 →다른 가정에 분양 → 지속적인 관계 형성
- 이 프로젝트를 교회를 중심으로 운영하여, 지역사회와 교회 간의 연결점을 만들었다.

2단계: 교회를 통한 지역사회와의 관계 확장

- 방과 후 교실 운영 → 어린이 대상 성경 교육 및 학습 보완
- 지역 여성 대상 문화 교실 개설 → 여성 교육 및 공동체 활동 장려
- ‘자녀의 미래 = 교회와의 연결’이라는 가치관 확립

3단계: 신앙 교육과 공동체의 영적 성장

- 지역 여성들의 모임이 점차 쉐마 교육을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로 발전
- 마리의 리더십이 지역사회에 희망을 주고, 다음 세대의 미래를 형성
- 교회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관계망이 확장되면서,이웃 마을까지 연결성이 확장되었다.

마리 목회자의 리더십이 가져온 변화는 신앙 공동체와 지역사회의 유기적 관계 형성, 교회가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도록 연결점 구축, 신앙과 삶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공동체의 영성이 확장되었다. 이 사례를 통해, ‘연결’과 ‘관계’가 구속사적 사명을 이루는 핵심 요소임을 알 수 있다.

③ R국 여성 지도자의 리더십 사례 - 부족 간 화해와 연결

R국은 종족 전쟁의 영향으로 부족 간의 반목이 심하고, 공동체 내부에서도 갈등이 깊은 상황이었다.

1단계: ‘몸의 예전’을 통한 관계 회복

- 몸의 예전(Body Liturgy)을 통해,자신과 상대를 치유하는 과정 경험
- ‘나’에서 ‘우리’로 연결되는 관계성을 형성
- EPIC의 힘을 경험하며, 공동체적 화합의 기틀 마련

2단계: ‘베틀 기도’를 통한 영적 연대 형성

- 베틀 기도(Woven Prayer) 진행 → 씨실과 날실을 엮듯이 관계 형성
- 서로 하나 되어 연결 고리를 만들고, 성숙한 공동체 구축
- 기도와 공동체 활동을 통해 용서, 화해, 기쁨을 경험

3단계: 리더십 네트워크 구축

- 나라와 민족을 위한 리더십 네트워크 형성
- 지속적인 여성 리더십 연결망 구축 및 확산
- 하나님 나라의 형체를 만들어가는 여성 리더십의 실천적 모델

R국 여성 지도자의 리더십 확장이 된 것은 부족 간 갈등 해소 및 평화 구축, 공동체의 영적 성숙과 관계성 강화, 지속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리더십의 확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 사례를 통해, ‘연결’과 ‘관계’는 단순한 교류를 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중요한 사역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EPIC 모델에서 ‘연결’과 ‘관계성’은 단순한 네트워크 형성이 아니라, 구속사의 핵심 사역이다.연수 교사의 사례를 통해 교육과 신앙을 연결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적 리더십이 형성되고, 마리 목회자의 사례를 통해 지역사회와 교회의 연결점을 만들며, 신앙 공동체 형성되었으며, R국 여성 지도자의 사례를 통해 부족 간 화해와 공동체 연합을 이루며, 평화 구축된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연결’과 ‘관계성’을 통해 확장되며,리더십을 가진 여성들은 이 사명을 이루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

Ⅵ. 결론 및 제언

동·중앙아프리카 여성들의 건강한 리더십 형성은 깊고 넓은 영성으로 채워질 때 공동체를 세우고 이끌 수 있다. 이는 신앙의 주체자로서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의식을 확립하는 과정과도 연결된다. 여성 리더십 형성을 위한 선교 사역의 전략과 비전은 다음 세대인 어린이들과 할례 의식으로 희생되는 소녀들을 위한 미래적 도전이자 생명을 위한 사명이다. 이러한 영적 리더십 형성의 사각지대에 놓인 동·중앙아프리카 여성들은 서로에게 등을 맞대며 경험을 공유하고, 참여를 통해 풍부한 이미지 공동체를 형성하며 연결성을 구축하고 있다. 이 연결성의 영성은 하나님의 이야기와 맞닿아 있다.

본 연구는 EPIC 이론을 바탕으로 동·중앙아프리카 여성 리더십의 영성을 연구하였다. 레너드 스윗은 그의 저서 신의서사시에서 EPIC을 생명 활동의 특성을 나타내는 약어로 설명하며, 하나님의 이야기가 EPIC의 특성과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리더십의 영성은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출발해야 하며, 이는 곧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연결성을 확립하는 과정과 직결된다.

연구자는 동·중앙아프리카 여성 리더십 영성 형성을 위해 교육을 중심으로 한 성경 이야기(Bible Story)를 핵심 요소로 삼았다. 여성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성경을 경험하고 참여하며, 풍부한 이미지를 통해 공동체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다. 성경을 바탕으로 극을 만들고, 전달하며,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세상의 부정적 현실로부터 벗어나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단순한 교육을 넘어 영성 형성의 도구로 작용하며, 공동체를

세우는 원동력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 실행한 사례 연구는 다음과 같다.

1. 교육 연수생 및 MZ 유학생 그룹: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례 연구는 교육 연수생과 문해력이 뛰어난 MZ 유학생들의 영성 교육이었다. 이들은 동일한 문화권에서 성장했으며, 연수와 학업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소그룹 형태로 운영된 덕분에 상호 관계적인 영성 형성이 용이했다.

한국에서의 교육 과정은 낯선 환경과 기후의 어려움을 동반했지만, 오히려 공동체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정기적인 성경 공부와 기도회는 E여대 채플실, Y신학대학원 연구실, S교회 비전센터, 연수생들의 교육기관에서 꾸준히 이루어졌다. 또한, 한국 교회를 순회하며 리트릿과 다양한 영성 프로그램을 통해 리더십을 형성할 기회를 가졌다.

특히 ‘다음 세대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구성된 여성 유학생 찬양 워십팀은 전국 교회 및 대학가에서 사역하며 특별한 경험을 쌓았다. 이러한 활동은 복음적 열매를 맺는 기회가 되었으며, 영적 성숙과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들은 순회 복음 사역을 통해 찬양을 매개로 타문화권 교회, 대학생 및 일반인들과 연결성을 구축하며 영향력을 발휘했다.

아프리카 여성들에게 주어진 고등교육의 기회는 큰 축복이지만, 타국에서의 학업과 생활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매일의 QT(Quiet Time) 교실, 예배, 말씀 연구, 기도회를 통해 영성을 유지한 덕분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훈련은 유학을 마친 후에도 한국과 아프리카에서 지속적인 리더십 훈련으로 이어졌으며, 차세대 여성 지도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전수되었다. 현재 MZ 여성들은 동·중앙아프리카에서 공동체의 리더로 활동하며, 상호 관계적인 ‘브리지 리더십(Bridge

Leadership)’을 발휘하고 있다.

2. 지역사회 여성 지도자 그룹: 세 번째 사례는 지역사회 여성 지도자들의 영성과 교육 과정이었다. 선교사역으로서 여성 리더십을 발전시키는 것은 타문화권에서 쉽지 않은 일이다.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지만, 경험과 참여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지역사회 여성 지도자들 중에는 비기독교인도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연구자가 진행한 사역 프로젝트에서는 예배와 영성 훈련이 우선시 되어야 했다. 마을 여성들의 경험과 참여는 삶과 직결된 ‘일터 사역’과 연결되었으며, 단순한 참가가 아닌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양계팜 프로젝트가 있다.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사회 복음 전도의 기틀이 마련되었으며, 여성 리더십이 실질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장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각종 팜 커뮤니티 대상자들에게 예배와 성경 공부, 기도회를 필수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지역 여성 리더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신앙의 연결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 핵심 과제였다.

사례자인 여성 리더 ‘사라’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연구자와의 연대 속에서 점차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녀는 실패한 양계팜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닭이 알을 품어 많은 병아리를 부화시키는 모습이 예수님의 마음과 같다는 상징적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깊은 신앙을 갖게 되었다. 사라는 이후 솔선수범하는 리더로서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쳤으며, 상호 협력적이고 열정적인 공동체 형성을 이끌었다.

3. 여성 목회자 그룹: 네 번째 사례는 ‘자녀 학교 보내기 염소 뱅크’ 전도 프로젝트를 통해 여성 목회자의 리더십이 어떻게 발휘되었는지를 보여준다. 가부장적 문화가 강한 동아프리카 U국에서 여성 목회자의 영향력은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본 프로젝트를 통해 변화가 시작되었다.

여성 목회자들은 ‘염소 뱅크’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꿈을 실현시키면서, 동시에 교회와 하나님과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처음에는 교회 방문조차 꺼렸던 지역사회 여성들이 자녀 교육을 위한 염소 프로그램을 통해 교회와 연결되었으며, 여성 목회자에 대한 존중 또한 높아졌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교육 지원을 넘어, 신앙과 영성 형성을 위한 발판이 되었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예배, 성경 공부, 기도회가 확장되었고, 이후에는 도서관과 방과 후 교실로 발전하며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교육 기반이 마련되었다.

동·중앙아프리카 여성들은 사회적, 문화적 이유로 인해 리더십 형성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전의 상처와 가부장적 구조는 여성들이 용기를 내어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여성들의 고민과 상담이 선행된 후 영성 형성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본 연구에서 사용된 EPIC 모델(Experience, Participation, Image, Connection)은 동·중앙아프리카 여성들에게 새로운 리더십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경험과 참여, 풍부한 이미지, 공동체적 연결성을 강조하는 이 모델을 통해 여성들은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들의 사회적 이슈, 필요, 장애요인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더욱 실효성 높은 리더십 교육과 영성 형성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PIC 모델을 기반으로 한 성경테마교육과 영성훈련은 여성리더십 형성에 있어 지속적으로 적용 될 가치가 있는 중요한 접근방식이다.

<컨퍼런스에 대한 평가 : 설문내용>

구 분	MZ세대	지역사회 여성	교육지도자	여성목회자	여성지도자
20대	50명	7명	40명	3명	45명
30대	70명	15명	160명	17명	207명
40대	-	20명	220명	85명	455명
50대	-	27명	80명	102명	243명
60대	-	6명	5명	23명	30명

동/중앙 아프리카 3개국 여성 컨퍼런스 참가 대상자의 연령 분포도

컨퍼런스 강의 이해도와 공감도	**U국**	**T국**	**R국**
신학적 견해를 참고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되었다	87%	89%	95%
목적과 취지에 맞게 충분한 교육적이었다	88%	92%	89%
영성 강의 커리큘럼과 액티비티 패턴이 좋았다.	91%	95%	88%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82%	84%	92%

컨퍼런스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	U국	T국	R국
영성에 대한 시간이 부족하여 아쉬웠다.	78%	87%	93%
성경교육과 거룩한 기도에 대한 공동체구성 시간 부족	62%	78%	90%
더 많은 여성들이 참여하지 못해 매우 아쉽다.	98%	97%	98%
참여도가 깊어질 수 있는 연대의식 형성하기엔 1년이 짧다	95%	98%	92%

컨퍼런스에서 가장 마음에 좋았던 점	U국	T국	R국
영성 강의 주제에 따른 토의와 나눔 발표가 좋았다.	98%	99%	98%
여성 리더들의 정기적인회합(중보기도회, 연구모임)조성된 것	91%	95%	88%
여성 리더십 향상에 자신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높아졌다.	88%	91%	94%
교회력과 예전, 몸 예배 영성훈련과 신명기적 영성 교육이었다	85%	92%	97%

여성리더쉽에 가장 필요한 점	U국	T국	R국
하나님과 소명에 대한 깊은 지식	91%	97%	91%
자신감, 자존감 형성	90%	92%	94%
여성으로서의 존중감	90%	89%	97%
사회에서의 남/여성 차별화 문제	98%	93%	92%

다음 기회에 영성교육에서는 무엇을 더 배우고 싶은가	U국	T국	R국
사도교회 시대에 대하여	95%	99%	95%
어린이와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따른 영적 지도	98%	98%	89%
상담 심리 및 상담 목회학	87%	92%	99%
여성 영성프로그램의 정착을 위한 기술적 교육	90%	88%	92%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들의 리더십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영성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나라와 민족, 나아가 세계를 향해 나아가도록 촉구하는 것이다.창세기 22:2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으시며 그에게 “가라” 또는 “나아가라”라고 명령하신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이 때로는 고난과 고통의 자리일지라도, 예수님께서 다녀가신 곳과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자리에서 여성들은 손과 몸을 내어주며 경험하고 참여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맺고 연결성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한다.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들은 언약의 자녀이자 교회의 일원이며, 이 땅의 삶을 숨 쉬게 하는 미래의 주

역들이다.

연수교사들의 리더십, 다음 세대 여성 지도자를 준비하는 유학생들, 지역사회 교육과 공동체 농장을 이끄는 여성 리더들, 그리고 문명과 단절된 마사이 부족 및 사회의 주변부로 밀려난 피그미 부족 여성들 모두가 아브라함이 떠나야 했던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들에게 단순한 통제가 아닌 관계를 맺으라고 부르셨다.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와 내재된 잠재력을 주심으로써, 어둠 속에 처한 아프리카와 인류를 올바른 빛으로 회복하고자 하신다. 따라서 여성 리더십은 통제와 제한 속에 갇혀서는 안 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내재적 잠재력을 발휘해야 한다. 관계 형성은 그리스도의 의식과 거룩한 정신을 통해 실재하는 삶과 접촉하면서 영적 리더십을 정비하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여성 리더십 연구를 위한 컨퍼런스에서 추가적으로 포함하면 좋은 프로젝트로 성경 이야기를 극화하여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들은 공동체와 다음 세대를 위해 창의적인 극화 활동을 매우 잘 수행하며, 풍부한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잘 알려진 성경 테마를 중심으로 다양한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제안하는 성경 테마는 다음과 같다.

- 솔로몬의 재판
- 다니엘과 세 친구
- 삼손과 데릴라
- 아담과 하와

- 팔복과 산상수훈
-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이야기들
- 오병이어의 기적
- 12제자들의 여정
-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 바울의 전도 여행
- 선한 사마리아인

이러한 성경 테마를 뮤지컬, 역할극, 인형극, 그림자극, 무언극, 즉흥극 등의 형태로 극화하여 표현하면, 시각적이고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 영성과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특히 교회력에 따른 절기를 무대화하는 방식은 여성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직접적인 리더십 형성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동·중앙 아프리카는 내전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안고 있으며, 여성들은 치유와 회복, 용서와 화해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여성들이 평화의 중재자가 될 수 있도록 돕는 '피스메이커(Peacemaker)' 프로그램이나, 여성 영성을 강화하는 '마더와이즈(Motherwise)', **'어머니학교'**와 같은 영성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내러티브적 접근은 여성 리더십 형성과 교육에 있어 필수적인 연구 주제로 자리 잡아야 한다.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 리더십 형성은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변화시키고 주도할 수 있는 여성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 리더십이 단순한 종교적 기능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삶의 영성으로 자리 잡도록 연

구와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진정한 여성의 자유와 해방이 차단된 환경 속에서도, 동·중앙 아프리카 여성들은 숭고한 이상과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발견하고 실현해야 한다. 이는 본 연구의 핵심적인 성찰이자 제언이다.

결론적으로, 동·중앙아프리카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소외 당하는 위치에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속에서 내재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성경 이야기 극화와 참여적 교육을 통해 리더십을 형성하고, 치유와 화해의 프로그램을 통해 내전의 상처를 극복하며, 여성들이 스스로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연구와 실천이 지속될 때, 동·중앙아프리카 여성들은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변화의 주체로 설 수 있을것이다.[82]

---

[82] 여성목회자이며 교육지도자 학교교장인 L 여성은 여성 리더쉽의 저해 요인에 대한· 사회적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피력한다.여성 리더쉽의 저해 요인에 대한·사회적 문제점은 나라의 문화규범과 여성에 대한 공포와 차별이다. 문화규범에는 여성들을 억압하거나 발전을 억제하는 소외규범이 여성의 리더십 향상에 저해요인으로 심한 장애를 가져다 준다. 또한 여성의 목소리와 여성의 위치 여성의 존재감에 대한 남성과의 차별화는 L이 속한 나라의 사회적 문화규범이라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매우 답답함을 느낀다. 이에 여성들의 심리적 건강을 위한 지속성 있는 영성세미나와 교육프로그램과 여성상담센터 운영이 필요하다. 불안정한 사회는 여성들에게 불안과 공포 분위기를 벗어날 수 없게 한다. 또한 거부당하고 무시당하는 사회로부터 오는 공포는 여성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조장하고 리더쉽을 멈추게 한다. 여성 리더쉽의 발전과 성장을 막아서는 요소들 로부터 우리는 탈출과 해방을 꿈꾸며 기도한다. 형성된 리더쉽을 맘껏 발휘하고 장애 받지 않고 사회로 확장되어 상호관계성이 일어나길 소원한다. 아프리카와 인류의 여성들을 위해 우리의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는 내일을 기대하고 희망한다.

기독교 여성지도자이자, 중학교 교장인 H여성의 교육지도자 컨퍼런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피력했다.아프리카는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교육 자료와 성경 자료의 부재이다. 자료를 생성하여 다양한 패턴의 교육으로 학교교육과 신앙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킬 수 있는 방법과 기술을 제공해 주길 원한다. 여성 지도자들의 리더십에 교사의 자질향상과 학생을 대하는 인내심에 대한 자세와 발달단계에 따라 지도해야 할 이해력의 스킬도 필요하다. 지속 가능한 관계성으로 상호 연결이 필요하다. 행정과 기능 기술적인 부분도 리더십에 포함해 주길 원한다. 또한 상담심리학과 목회관계 심리학이 운영되어야 하며 교회 행정학에서는 재정교육을 리더쉽의 형성 연구에 채택해 주길 요청한다. 또한 단계별 교사들의 역량 강화 과정지도와 여성 지도자 자존감 구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신학이 필요하다. 하부르타 성경통독방식의 혼자보다 둘이 둘보다 그룹이 질의 응답하며 숙지하는 패턴이 신선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영성과 리더십 자질을 갖출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풍성했다. 컨퍼런스는 영혼으로 가득 찼다. 열정을 불러 일으켰다. 영혼이 가득 찰 내일의 컨퍼런스 기회를 기다리고 기대한다.

참고문헌

국내서적

도미향, 채경선. 여성학의이해. 경기: 양서원, 2008.

정미현. 여성신학이야기. 서울: 한들, 2007.

한국여성신학회. *21*세기세계여성신학의동향. 서울: 동연, 2014.

번역서적

콜린스, 패트리샤 힐. 흑인페미니즘사상. 박미선, 주해연 역. 서울: 여이연, 2009.

루츠, 로리. 세계를움직이는기독여성들. 횃불성경연구소 역. 서울: 횃불, 1998.

Fiorenza, Elisabeth Schüssler. 동등자제자직. 김상분 외 역. 서울: 분도출판사, 1997.

Trible, Phyllis. 하나님과성의수사학. 유연희 역. 서울: 알맹e, 1996.

Sweet, Leonard. 영성과감성을하나로묶는미래교회. 김영래 역. 서울: 좋은씨앗, 2002.

——. 교회, 스타벅스에가다. 이지혜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 관계의영성. 윤종석 역. 서울: IVP, 2007.

스윗, 레너드. 태블릿에서테이블로. 장택수 역. 서울: 예수전도단, 2015.

러셀, 레티 M., J. 샤논 클락슨. *Dictionary of Feminist Theologies.* 황애경 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3.

웨버, 로버트 E. 교회력에따른예배와설교. 이승진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6.

Mitchell, Nathan D. 예배, 신비를만나다. 안선희 역. 서울: 바이북스, 2014.

조병호. 통通하는마지막유월절첫번째성찬식. 서울: 통독원, 2018.

할타우직. 기독교는식사에서시작되었다. 조익표 외 3명 역. 서울: 동연, 2018.

마타이, 왕가리. 아프리카의푸른희망왕가리마타이. 김민경 역. 서울: 리잼, 2019.

외국서적

Griffin, Winn. *God's EPIC Adventure.* Harmon Press.

Hinga, Teresia Mbari. *African, Christian, Feminist: The Enduring Search for What Matters.* Maryknoll, NY: Orbis Books, 2017.

Mavury, Chaba Rhuwanya. *A Taste of East Africa.* Haum, 2024.

Hinga, Heresia Mbari. *African, Christian, Feminist: The Enduring Search for What Matters.* Maryknoll, NY: Orbis Books.

인터넷 자료

"The Circle for African Women Theologians." Accessed 2024.12.04. http://www.thecirclecawt.org.

"Hope Voice Mission." Accessed 2024.12.04. www.hopevoicem.com.

"Public Health Research." Accessed 2024.12.04. https://doi.org/10.1186/s12889-022-14165-x.

"아멘뉴스." Accessed 2024.12.04. https://www.am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27.

"Bing 검색." Accessed 2024.12.04. https://www.bing.com/search?q.

“Bing 검색 (LCRP).” Accessed 2024.12.04. https://www.bing.com/search?q=_lcrp.

“Bing 이미지검색.” Accessed 2024.12.04. https://www.bing.com/images/search?q.

V I T A

PERSONAL DATA

Full Name: Eun Rye Kim

Place and Date of Birth: Republic of Korea, Jan 25, 19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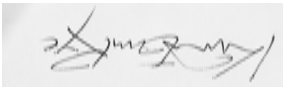
Husband`s Names: Bong Gwi Ko

EDUCATIONAL INSTITUTIONS

School (Name and Address)	Degree	Date
Myeong-Shin Girls' High School 260 Won Juck-ro, Bupyoung-gu Republic of Korea	Diploma	Feb 16, 1980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86 University-ro, Jongro-gu Republic of Korea	Bachelor	Feb 28, 1986
Asia United Theological University 1276 Gyeonggang-ro, Okcheon-myeon Yangpyeong-gun, Geoenggi-do Republic of Korea	Bachelor	Feb 14, 2012
EwhaWomans University 52 EwahWomansUniversity-ro Seodaemun-gu, Seoul, Republic of Korea	Th.M	Feb 23, 2015
Drew Theological University 36 Madison Ave, Madison, NJ 07940	D.Min.	(expected to graduate)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ries.

Signature



Eun Rye Kim
Oct31, 2024